

<제12회 전주학 학술대회>

근대 전주, 전주인들의 예술세계

일시 : 2011년 6월 8일(수), 11:20~17:00

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

전주역사박물관·전주학추진위원회

학/술/대/회/일/정

09:30~10:00 등록 및 접수

□ 개관 9주년 기념식

10:00~10:30 개회식 오전진행 / 김주성(전주교대)

 개회사 Ⅵ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환영사 Ⅵ 함한희(전주학추진위원회 위원장)

 축사 Ⅵ 송하진(전주시장), 조지훈(전주시의회 의장)

□ 특별전 개막식 “우리동네 이야기 I _ 서학동 · 동산동 일원”

10:30~11:20 특별전 개막식 및 전시관람

□ 제12회 전주학 학술대회

11:20~12:00	주제발표 1 _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 발표 _ 함한희(전북대) Ⅵ 토론 _ 이철량(전북대)
12:00~13:30	중식 및 전시관람 오후진행 / 조법중(우석대)
13:30~14:10	주제발표 2 _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 발표 _ 이태영(전북대) Ⅵ 토론 _ 최명표(문학평론가)
14:10~14:50	주제발표 3 _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붓과 종이 발표 _ 이동희(전주역사박물관) Ⅵ 토론 _ 조수현(원광대)
14:50~15:00	휴식
15:00~15:40	주제발표 4 _ 전주 전통예능의 산실, 행원에서 백번집까지 발표 _ 송화섭(전주대) Ⅵ 토론 _ 심승구(한국체육대)
15:40~16:00	휴식 및 장내정돈
16:00~17:00	종합토론 좌장 / 조법중(우석대)

목 / 차

■ 주제 발표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 _ 함한희	9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 _ 이태영	25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붓과 종이 _ 이동희	45
전주 전통예능의 산실, 행원에서 백번집까지 _ 송화섭	71

■ 종합토론103

이철량(전북대), 최명표(문학평론가), 조수현(원광대), 심승구(한국체육대)

주제발표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

함한희*

<목 차>

- | | |
|-------------------|-----------------------|
| I. 서론 | IV. 근대 전주의 예술 향유층의 등장 |
| II. 조선시대의 예술과 향유층 | V. 사랑채문화의 발달 |
| III. 문화의 '양반화' | VI. 맺는말 |

I. 서론

전주는 예향(藝鄕)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주에서는 유독 예술인들과 그들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여 적극적인 감상태도를 가진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주가 예향이라는 별칭을 가진 것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예향이라면 첫째, 예술가 층이 두텁고 둘째, 예술을 향유 또는 소비하는 계층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예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또한 이 둘은 상호 의존적인 측면이 강하다. 예술가 층과 예술향유 층이 서로 기대어서 존재함으로써 예술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향유 층은 예술감상, 비평, 후원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예술가 층을 지지하는 기반이 된다. 거듭 강조하건대, 예술가집단과 예술향유집단이 짝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예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주의 예술을 논할 때, 걸출한 예술인, 예술작품을 집중 조명한 반면에 예술향유 층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 두 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어 오지 못하고 있다. 본 발표자는 이 점에 주목해서 전주의 예술향유 층의 정체

*전북대학교 교수

를 밝혀보고자 한다.

필자는 전주에 새로운 예술향유 층이 등장하는 시기는 20세기를 전후한 때, 즉 한국의 근대문화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조선왕조가 무너지면서 전통적인 문화예술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며,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19세기 말부터 전통적인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부와 권력구조가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다시 새로운 예술향유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필자는 본 발표에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 가운데 회화 · 서화 활동에 주목해서 당대의 예술향유 층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곧 예술의 사회문화사적 접근을 통해서 전주의 근대사를 재구성하려고 시도라고 볼 수 있다.

II. 조선시대의 예술과 향유층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는 도덕적 수양과 학문의 연마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서화예술에 탐닉하는 것을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해서 금기시했다. 예술은 단지 즐기는 정도로 족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금욕적인 풍조가 17세기 이후부터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양반들이 서화의 소장에 탐닉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18,9세기에 이르면 그 풍조가 더 커진다.¹⁾ 예술품을 수장하기 위해서는 기실 경제력이 필수이다. 결국 돈이 있는 양반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할 수 있다. 전북 무주 출신으로 알려진 최북(1712-1786)이 남긴 일화를 통해서도 당시 양반들이 화원들로부터 그림을 사가는 일이 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 이용엽이 펴낸 『전북미술약사』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하루는 탐관오리로 정평이 나있는 장안 부자 김판관 댁 하인이 그림을 사러왔으나 그림을 팔 것이 없다고 면박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김판관이 가마를 타고 하인 셋을 데리고 직접 찾아와 고급 화선지, 개성인삼 한 묶음을 하인을 통해서 들여 놓고 오만 무례하게 ‘이리 오너라’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하니 ‘나 김판관이오’,

1) 이와 관련한 연구는 강명관의 일련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강명관 1999)에 실려있다.

2) 최북은 중인 출신으로 삼십세에 이르러 도화서(圖畫書)의 화원이 되었다. 그는 시, 서, 화에 능하여 당대 최고의 문장가, 화가, 관료 등과 교류하였고, 많은 일화를 남겼다.

‘어찌 오셨습니까?’ 하니 ‘그림을 사러왔습니다. 값은 높게 쳐 드리리다. 미리 선약금을 드릴 테니 산수병풍 한 폭 그려주소’...(하략)”

『전북미술약사』, p.55

위의 일화는 당시 김판관이 그림을 사고자 했으나, 최북은 그가 그림을 수장할 만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서 그의 청을 거절하면서 눈마저 뿔었다는 이야기에서 간추려 본 것이다. 자신을 ‘그림이나 파는 화쟁이’로 하대한 점도 최북이 과격한 행동을 취한 원인이었다. 이 일화 속에는 당시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의 그림은 비싸게 팔린다는 점, 그림을 수장하는 계층은 주로 부자 양반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부유층이 양반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은 아니고, 예술품 수장을 즐기는 이들도 양반층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인과 아전을 중심으로 한 중간계급 즉 여항인(閭巷人)층은 예술품의 소장층 · 수요층이었다. 양반 못지않은 문식과 경제력을 갖춘 여항인들도 많았다고 한다(강명관 1999: 277-316/319-320).

조선시대 서화예술에 탐닉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반들 가운데는 서화 애호가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비들이 주로 취미로 서화를 그렸지만 그 수준은 높았고, 또 그런 그림이 일정한 네트워크 안에서 유통되기도 했다. 규범적인 제한을 받고는 있었지만, 창작층이었던 선비화가들이 18,9세기 서화예술을 발달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진다. 당시 선비들은 서화예술에 대한 식견이 높았고 비평가들이었으며 때로는 소장자이기도 했다. 18세기 이후에는 선비화가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예술을 둘러싼 신경향이 움트고 있었다. 완물상지라는 평가를 받던 그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서 서화가들도 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강명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는 창작을 진지한 취미로 전공하는 이들이 증가했다는 사실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서화의 수요가 늘자 공급자로서 전문화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서화를 지배층의 고아한 취미 또는 관에 대한 강제적 봉사를 넘어서서 생활수단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출현했음을 지적하였다(강명관 1999:327).

조선시대에도 직업이 화가인 전문인들이 소수지만 존재했다. 이들을 화원이라고 하는데, 도화서에 소속된 기능직 관료였다. 도화서는 왕실, 국가 그리고 양반층이 주관하는 행사를 기록하는 기념화나 목적화를 많이 그렸다. 신분상으로는 중인이었으며, 중인들 가운데에서도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화원에 대한 처우도 낮았다(강명관 1999:324). 서화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화원 화가의 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그 수도 증가했다. 기록에 의하면 18세기 공적 · 사적 수요가 팽창했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김홍도와 관

련된 기록에서도 그 사실이 드러난다.

“...그림을 청하는 사람이 날로 많아져서 비단이 무더기로 쌓이고 재촉하는 사람이 문에 가득하여 미처 잠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표함유고』, p.249

18,9세기 무렵 전북에서도 뛰어난 선비화가들이 등장해서 이후 전북예술의 전통을 세웠다. 전북지역에는 문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19,20세기까지 활동했던 선비화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인화의 전통을 세운 선비화가로 대표될 수 있는 인물은 석정 이정직(1841-1910)이다. 그는 13세부터 지역에서 통유(通儒)로 이름난 안정봉의 문하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기(李沂), 황현(黃玹)과 교류하면서 실학, 서양학문 등을 수용하는 선구적인 선비였다. 그의 제자로는 조주승(1854-1903), 송기면, 나갑순, 최규상, 강동희, 최승현, 유영완 등을 꼽을 수 있다(이용엽 2007:76-80).

이러한 탁월한 서화가들이 등장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도 당시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북지역에 문인화가 발달되었다고 하는 것은 향촌의 선비들이 관직에 나가는 일을 포기하면서 글을 읽거나, 시, 서화에 몰두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9세기 이후 선비들뿐만 아니라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중간계급들도 이러한 유학자적 교양을 갖춘 생활세계를 함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양반계층의 문화적인 특권이 다른 계층으로 확대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양반들의 독점적인 문화적 소양이 부를 축적한 중간계급으로 확산되면서 문화의 ‘양반화(gentrification)’가 일어난 것이다. 조선의 양반층이 시서화를 독점적으로 향유했던 시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서화예술의 사회적 수요가 늘자 전문적인 예술가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예술 향유층의 확대와 전문 예술가집단의 탄생은 상호연관성이 깊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문화의 '양반화'

조선 후기 사회계층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농업자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분은 낮으나 토지자본을 매개로 한 지주계층이 생성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 중간계층을 차지하고 있던 향리들이거나 아니면 농업경영에 성공한 농민들로 부를 축적한 집단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신분사회에서 결코 정통성을 가진 양반이 되기는 힘들었다. 향리들에게는 중앙의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도 막혀 있었다.³⁾ 향리는 원래 지방의 토착세력으로써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보좌하면서 지방민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행정명령을 집행하며 또 지방민들의 요구를 중앙에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직책에 있었다. 직책이 그러하므로 지방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것이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향리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다. 향리들의 도움이 없이는 지방의 수령들마저도 중앙으로부터 하달되는 명령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런가하면 지방민들의 정세를 파악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지방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들도 이들이었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신분적으로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였다. 나아가서 이들은 문화적으로도 양반문화와 평민문화의 양면을 모두 수용하는 중간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당대의 사회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던 계층이었다. 이러한 이들이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여 빠른 대응을 보였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당대 신분제의 변화를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 양반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반면에 향리게층은 신문물을 수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러나 특정한 계층과 그 속에 속한 개인들이 오랜 동안 축적되어온 관습, 인식, 취향을 하루 아침에 버리거나 획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자본을 돈으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중간계층이나 서민층에서 경제적인 부를 갖추고 정치적인 권력을 손에 넣어도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회의 지배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배층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식이 있어야 하고, 교우하는 집단의 위상이 높아야 하고, 문화적인 격조를 갖추어야 하는 등의 상징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신지배층으로 올라선 집단에서는 과거 명문세족들의 문화적 취향을 획득코자 하였다.

3) 조선후기의 향리연구는 이훈상의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를 참고하였다.

한편, 시대가 변해가자 양반들로서도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해가는 중간계층과 서민출신 지주들과 담을 쌓고 살기는 힘들어졌다. 언제까지 과거 신분제에 기대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일부의 양반들은 변화하는 세류를 인식해서 신진세력들의 성장을 인정하였고, 이들과도 개방적인 자세로 교류를 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유학의 길이 막혔던 향리들도 학문을 연마해서 지식인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졌다. 이들이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오르는 예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늘어나자 조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이훈상 1990:241).⁴⁾ 이처럼 조선 후기에 이르면, 관직이나 유교적 지식이 더 이상 사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⁵⁾ 부를 축적한 중간계층과 서민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양반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다.⁶⁾ 그러면서 시서화의 창작이나 관람, 향유, 수장도 사족들만의 독점적 취향에 머무르지 않는 않았다.

IV. 근대 전주의 예술 향유층의 등장

20세기 초 무렵까지 한국의 거부(巨富)들은 주로 대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었다. 농업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농사경영이 가장 중요한 축재의 수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배 아래서 발달하게 된 자본주의가 들어온 이후에는 금융업, 상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생기면서 이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이용선 1976).⁷⁾ 자본주의는 산업화와 상업화를 촉진해서 자본흐름의 판도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을 재편했다. 대규모 유통업을 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거나, 금융업을 하면서 부르주와 계층이 형성될 수 있었다. 전주지역에서도 과거에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주들이 부자들이었으나, 점차 각종 상업에 종사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상인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조선시대 이래 신분사회가 만든 사농공상의 위계로 인해서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풍속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일수록 신분의 상승을 꿈꾸었고, 신분상승의 하나의 수단으로 문식을 갖추고, 세족들이 누렸

4) 매천 황현은 과거에 응시하는 중인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천야록에 기록해 두었다(이훈상 1990: 241)

5) 1925년 경 전국의 300여 군수 가운데 260 여명이 향리의 자제였다고 한다(이훈상 1990: 242).

6) 조선후기사회에서 양반의 쇠퇴와 새로운 사회세력의 대두와 관련한 연구성과는 많다. 그 가운데 전라도 태인현 고현 내면의 향촌사회의 변동을 미시적으로 연구한 백승종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백승종 1996).

7) 일제시대 사회경제적 변화를 연구성과 가운데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논문으로는 박명규(1997)의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던 문화와 생활양식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기우렸다. 최상류층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로 치장을 하고 문화엘리트로 올라서는 것이었다. 서화를 수장하고, 골동품을 모으는 취미생활이 조선시대 세족들이 누리는 문화였다면, 이후에는 새로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에서는 이 같은 문화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20년대 전주의 기업인으로 국가적인 부호로 꼽히던 두 집안이 있었다.⁸⁾ 백인기와 박영철이다. 백인기는 고종황제의 측근무관이던 백남신(본명은 樂信)의 아들로 1924년 당시 학교비 부담 전국 랭킹 3위를 기록하고 있었다.⁹⁾ 백인기의 재산은 뒤에 부인의 회사로 익산의 남성고등학교의 설립자금이 되었다. 박영철은 박기순의 아들로 1939년 경성일보가 발행한 조선연감에 30대 기업인의 한 사람이었다. 뒤에 상업은행 두취(장)를 역임하는 등 당대 대부호이면서 관직도 하고 금융인으로 활약하였다.

이 두 집안은 구한말 대지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¹⁰⁾ 그리고 이들은 일제시대가 되어 다른 제조 산업이나 금융업 따위에도 눈을 돌려서 산업자본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같다. 그러면 이 두 집안이 당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였을까. 아마도 당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 두 집안의 대응 자세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은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묻히게 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친 대변화는 1910년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더욱 현저해졌다. 여러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자본주의의 발달이었다. 이 두 집안 모두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나아갔던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제성공의 비결은 이 두 집안이 모두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관료를 많이 배출하였다는 사실에도 있다고 믿어진다. 두 집안은 당시 대지주로서 이미 경제적인 발판을 굳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손들이 관직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박영철(1869-1939)은 전주의 부호 박기순(1857-1935)의 아들로 일본 동경유학을 하였고, 그 후 고종황제의 근위장교, 강원도지사, 함경북도 지사를 거쳐서 상업은행 두취를 지냈다. 백인기도 무관이었던 부친을 따라서 1903년 대한제국의 육군참위로

8) 이용선의 거부열전(1976, 상서각)은 총12권으로 이루어져있다. 한국거부이백년사(韓國巨富二百年史)는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부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다.

9) 백남신의 원명 樂信인데 고종의 어명에 의하여 南信의 이름을 제수 받음. 1893년 무과에 급제하고 1897년 궁내부 영선사 주사에 임명되었다. 전주진위대의 향관을 겸하여 군량 및 군수물자를 조달하였다. 1902년 궁내부 내장원의 전라도 검세관에 임명되기도 했다.

10) 백남신, 백인기는 수원백씨 은진공파로 忠肅(文敬)公 白仁傑 (1497-1579)를 중시조로 모시고, 그의 3남인 惟威 (1546-1618)이 通政大夫 承政院 左副承旨를 지내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1등, 2등 공신이었다. 그 후손 가운데 2男 善民 (1574-1642)은 通訓大夫 恩津縣監을 지냈다. 淸에 불복해서 전북 함열 용안으로 낙향하였다. 이 가계는 16세기 경에는 중앙의 관직을 가졌던 사대부들이었다.

임관했다. 군대가 해산 된 후에는 금융인으로 한일은행을 설립해 전무 취체역을 지냈고 조선식산은행 상담역으로도 근무했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지주관료층의 대응은 남다르게 빨라졌다. 일본은 한국에 여러 가지의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정치·경제·문화등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정치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체계가 세워졌다. 신교육제도도 소개되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이 본격화되었다.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던 당시의 상황 아래서 새로운 지주관료층은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과거의 소작제를 개선하여 현대식 경영체제를 농장경영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제의 지배 아래서도 정계로의 진출을 피하였다. 군·도회의 의원직, 군수, 도의 참사관 등의 자리는 많은 경우 이들의 차지였다. 이들은 신학문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개방적이어서 후손들이 서양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들은 자제들을 일본유학을 시키기도 하였다.

자본주의 아래서 상공업이 발달했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상공인들 가운데에는 성공해서 부자가 된 인물들이 나타났다. 전주에서도 여러 인물과 집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호남 거상 이치중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전주에서 포목상을 해서 재산가의 반열에 올랐다. '서문안 미영집'을 운영하면서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명주, 포목 등을 전국으로 유통시키면서 부자가 되었다. 한 때 이치중의 재산이 흥업은행의 자산보다 많았다는 소문도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김용옥 1994:16-24).

백낙중(1883-1929)도 백남신의 막내동생으로 역시 큰 재산가였다. 부친인 백진수(1832-1906)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크게 늘려서 만석꾼이 되었다.¹¹⁾ 백낙중의 장자인 백남혁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명치대학 법과를 다녔다. 백낙중, 남혁父子는 예술에 대한 기호가 남달라서 시·서·화 뿐만 아니라 판소리 등의 전통음악활동을 지원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4-1. 박영철 소장 서화류들 - 근역화휘(槿域畵彙)

박영철(호 다산)은 고서화 100여점과 경성제국대학교진열관 건립비를 경성제국대학에

11) 백낙중의 부친 백진수는 경북궁 중건시에 거금을 헌납하면서 고종으로부터 대저택을 지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이후 시행을 못하다가 백진수를 모시고 살던 6남 백낙중(1883-1929)은 1905년 부친의 허락을 받아 104번지 492평의 대지에 당시 초가를 허물고 장자 백남혁(1905-1981)의 태어남을 기념하여 아들에게 만석군의 재산보다는 자손손 수 백년을 물려줄 저택을 짓기로 결심하고 당시 고종황제의 측근무관이던 백남신 [白南信 : 백낙중의 둘째 형, 원명 樂信인데 고종의 어명에 의하여 南信의 이름을 제수 받음. 궁내주사육군. 종2품 전주진대대장 육군부령] 과 상의하여 고종의 윤허를 받고 궁중의 일류 목수들을 지원받아 궁중양식의 학인당을 건립 하였다.

기증하였다. 박영철의 회사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전신이 진열관이 1941년 9월에 문을 열었다. 박영철의 기증품 가운데 『근역화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인용해서 수장가로서의 박영철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진준현 1992).

『근역화회』는 오세창이 편집했다는 설도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근역화회』는 조선시대 귀중한 회화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박영철은 『근역서회』 27책도 기증하였는데, 이 두 책은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 들어있다. 『근역화회』는 천, 지, 인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천첩에는 25점, 지첩에는 21점, 인첩에는 21점으로 모두 67인의 67점의 그림이 실려 있다. 시대별로는 조선 초기 1점, 중기가 9점, 후기가 30점, 말기 이후가 27점이다. 그림의 주제는 산수가 18점, 인물이 4점, 사군자가 14점, 화조가 10점, 동물이 5점, 어해(魚蟹) 7점, 초충(草蟲)이 9점이다. 시대별로 보면 안견, 중기 신사임당, 이요(李潯), 이우, 전충효, 송민고, 후기에는 진재채, 김덕성, 미군후, 일명(佚名)화가인 이남원수와 혜춘, 말기의 우상하, 오경림, 이정직, 조주승, 김용수, 박기준, 유치봉, 이공우, 유재소 등의 실려 있다.

4-2. 백낙중·백남혁의 소장품¹²⁾

백낙중의 장자 백남혁은 부친의 서거로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온 1930년 이후에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인들의 후원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¹³⁾ 백남혁은 효산(曉山)이광열(李光烈)을 선생으로 모시고 스승의 뒷바라지와 동료 예술인들과 각별한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이광열은 전주에서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정신적인 지주로 활동하고 있었다. 1935년 최규상, 김희순 등과 같이 서화동호인 모임인 한묵회(翰墨會)를 창설하였다. 스승, 동료들과의 활발한 교류 덕분에 백남혁은 많은 예술작품을 소장할 수 있었다. 이광열, 김정희, 김돈희가 쓴 편액이 현관과 집안밖에 걸려있다. 그가 당대 화가들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 예술인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증거이다. 박영철이 조선시대 미술품을 수집하는 수장가였다면, 백남혁은 당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작품을 구입하는 등 후원역할을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소장품 목록을 보면 그런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다. 심농(心農) 조기석(趙沂錫), 유당(酉堂) 김희순(金熙舜), 성재(惺齋) 김태석(金台錫), 설송(雪松) 최규상(崔圭祥), 소

12) 소장품에 관련한 자료는 현 학인당의 당주인 백창현이 자료를 제공하였다.

13) 인제(忍齋)백남중은 예술분야에 조예가 있었는데, 특히 판소리를 아끼어 대사습 경연이 중단되자 이를 안타까워 하면서 학인당의 대청을 판소리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국악의 인사로는 만정(晩汀) 김소희, 박녹주, 김연수, 박초월 등이 어려웠던 일제시대 백남중의 집에서 공연을 하는 등 교류가 잦았다.

파(小波) 송명회(宋明會), 중당(中堂) 김근진(金瑾鎭), 성산(惺山) 이순재(李舜載), 청전(靑田) 이상범, 금추(錦秋) 이남호, 소정(小亭) 변관식¹⁴⁾, 묵로(墨鷺) 이용우, 의재(毅齋) 허백련, 남농 허건, 묵재 허행면 등의 작품이 있다.

소장작품을 통한 이 두 향수자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술사의 입장에서 보면 박영철은 한국의 미술사연구에 지대한 공을 끼쳤고, 『근역화회』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에 예술사회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백씨가 역할은 달리 평가받을 수 있다. 좋은 작품을 골라서 수장을 하는 전문적인 수장가라기 보다는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더 중시하면서 지방예술의 맥을 이어주는 차원의 예술향유층이라고 볼 수 있다.

V. 사랑채 문화의 발달

프랑스에는 살롱이 있었다면, 전주에는 사랑채가 있었다. 사랑채는 원래 한국의 전통가옥에서 남성들이 거처하는 곳이었고, 주로 외부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사대부가의 경우 사랑채의 사교모임이 곧 그 집안의 사회적 위상을 말해주기도 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이라 해서 가(家)를 경영할 때 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손님을 맞는 의례와 행사를 중히 여기던 유교사회의 전통이 근대로 이어지면서 전주의 예술인들이 모이는 사랑채가 명성을 얻기도 했다. 신분별로 교류했던 과거의 사랑채문화가 직업, 취향, 이념으로 대치되면서 새로운 사랑채 문화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들이나 예술애호가들의 사교모임이 사랑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전주는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발표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같은 사랑채 모임이 활발했던 곳으로 학인당, 향천주장과 오일주장을 경영했던 백남석, 송정섭 등의 집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사랑채에는 경향 각지에서 온 예술인들의 왕래가 잦았다고 당시의 일을 목격했던 이들이 증언하고 있다.

일제시대 이후 전주는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진 곳이었다. 전주에는 당대 뛰어난 예술가들이 있었고, 후원자들, 그리고 애호가들 역시도 관람객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전주에서 전시를 하면 작품이 잘 팔렸다고 하는데, 이는 전주에 예술품 관람객이자 수장가들이 여느 곳 보다 더 많았다는 뜻이 된다.

14) 소정 변관식의 작품은 미소장, 사진만 남아 있음.

지금은 유명해진 예술인들도 젊은 시절에는 오로지 예술창작에 혼을 불어넣으면서 어렵게 지냈다고 한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각자의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들은 당시 사랑채문화의 수혜자이기도 했다.

1924년 전주시 중앙동에 개척사라는 간판업을 시작한 이응로(1904-1989)도 한 때 오목대 아래에 위치한 오일주장에서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 그는 전주에 머물면서 해강 김규진의 문하에서 사군자 배웠다고 한다. 그가 1932년 일본유학을 떠날 때까지 약 8년 동안 전주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창작활동을 했다. 군산에서 전주로 온 젊은 하반영(1918-)은 이응로의 개척사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상략) 예. 고암(이응로의 호)은 명필이거든요. 내가 거기서 그 양반 대신 글자를 썼죠. 무슨 무슨 상점이라고. 내가 처음으로 사사키 약국이라고 페인트로 썼는데. 글자가 내가 맘에 안 들었어요. 처음으로 쓴 것이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 양반이 보더니 “이거 솜씨가 좋네. 자네 이 간판 그럴래?” 그래서 간판점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간판 달러갔다가 이층 지붕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 고생도 했지요. 그 양반이 전주를 떠날 적에는 이순재 선생에게 개척사를 맡기고 떠났죠.”

_ 하반영氏 구술 가운데

해방 이후 전주는 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일제시대 이래 활발했던 예술활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반영 : 그 무렵 임실에 부자가 있어요. 박부자라고. 그 큰아들이 박병수예요. 일본 가서 공부를 했죠. 당시 부자사람들은 동경으로 유학을 많이 갔었어요. 그 박병수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서 전주에다가 미술학원을 했어요. 그 분이 재산을 몽땅 들여서 전주 고사동 자리에 학원을 시작했죠. 그 전에는 미술학교라고 하지 않고 학원이라고 해서 귀족들만 다니는 거예요. 가쿠인이라고. 일본에서는 귀족들이 댕기는 학원이에요. 그 본을 딴 거죠. 미술학원이 있던 곳이 고사동 백양메리야스 자리에요. 동방학원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을 때 우리가 벽돌을 나르고 그랬어요.

면담자 : 선생님도 그 학교에?

하반영 : 그때 나도 벽돌을 날렸죠. 나는 극장에서 마네킹을 그리니까 영화초대권이 나와요. 다섯 장 씩. 그게 나오면 우리 선생님한테 갔다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학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자동으로 그 학원 학생이 됐어요.

면담자 : 그때 함께 다니셨던 분 기억하세요?

하반영 : 그 때 허산옥, 선초(仙草), 몇 명이 그 학원을 댕겼어요. 선초는 일찍 죽었죠. 그림 잘 그렸어요. 또 이강천이라고 같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내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려서 그러지 동료가 많았죠. 고암선생님, 그리고 관재 이서영씨. 그리고 홍대를 설립한 이도영씨가 거기서 동양화를 가르쳤어요. 나는 2기생이었는데, 1기생이 이의주 부산대학. 배영식, 백양석이도 거기 졸업했고, 이도영씨, 또 고은희. 또 허은이도 수채화를 잘 그리죠. 허은이는 익산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소병호였어요. 조선에서 제일 먼저 된 것이 그 학원일 거요. 일본사람들이 허가를 했는데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을 총독부에서 주목을 했어요. 반일사상가들이 전부 다 그 학원에 있다고 해서.

면담자 : 아니 뭐 그림을 그리는 학원인데 왜 이념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반영 : 그 때는 소위 지식인들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렇게 봤어요. 해방이 되니까 공산당으로 몰렸어요. 사회주의자. 공산당으로 몰아서 학장은 아들 하나 놔두고 북한으로 가버렸고. 그 여파가 남아서 결국 그 학원이 없어져버렸죠.

면담자 : 거기에 들어간 분은?

하반영 : 천경자랑 이의주, 배영식도 거기 교수로 들어갔어요.

면담자 : 학원에서는 주로 동양화를 가르쳤어요?

하반영 : 네. 동양화, 이응로 선생과 이도영씨가 동양화 · 수묵화를 가르치고, 금릉 김영창 선생도 (서양화)교수고. 그리고 서예도 고암선생이 가르쳤고, 또 박병수씨가 원장인데 가르치고. 또 진환씨라고 있었어요. 고창에 진환. 그이도 일본서 미술공부를 하다 왔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었거든요? 해방되고서도 학교는 지속이 되었는데, 여순반란 사건이 나가지고서 경찰들이 모두 다 데려가고, 그 학생들 중 여자 김... 누구더라 개도 서양화 잘 그렸는데. 그냥 데려가 버린 뒤 행방불명이 되었고. 또 경상도 진해에서 온 설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도 경찰서 데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아주 살벌한 때였어요. 여순반란 사건 때는. 그러다가 6.25가 일어났지 않겠어요? 학원은 그 이전에 없어졌는데 소방관들이 와서 집을 부수고 그랬어요.

면담자 :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겠네요.

하반영 : 그렇죠. 그 학생들을 몰고 서울로 가신 양반이 이도영씨요. 관재 이도영. 이근영이는 동생이고. 동양화 가르치던 양반이 서울로 가서 홍익대학을 설립했어요. 홍익대학을 어디에 만들었냐하면 종로 1가에 가면 다케다 약국이라고 일본 사람이 약국을 하던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 두 개를 빌려서 시작했죠. 전주에서 데려간 학생들 한 삼십여 명과 거기 서울에서 온 학생들 그저 몇 명하고.”

_ 하반영氏 구술 가운데

“(상략) 우리나라 10대 작가 중 여기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울보다 여기 전주에서 전시를 해야 100% 소화를 했다는 얘기해요. 전시하다 안 팔리면, 학인당하고 박○○이가 다 사줘버렸대요.”

_ ○○○氏 구술 가운데

6.25 때 피난을 와서 약 1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뜬 목로 이용우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주에서 창작활동을 했다. 그는 이광렬의 주선으로 거처를 마련해서 당시 전주에 있던 예술인들과 교류했다. 한편, 외지에서 와서 생활이 어려웠던 이용우를 남전 허산옥, 백남석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허산옥이 운영하던 행원과 백남석의 집에서 머문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인물이 허산옥이다. 그는 자신이 화가이기도 했지만, 주위의 어려운 예술가들을 소리없이 도운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예술가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는 얼 굴 없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허산옥씨한테는 많은 화가들이 찾아왔어요. 그 화가들을 많이 도왔어요. 소정선생은 한 때 자살을 하려고까지 했던 분인데 머리를 뽕뽕 깎고 그랬었어. 근데 허산옥씨가 모셔다가 돌봐줬지. 나도 그 옆에 있었고. 그러고 청전선생도 거기에 와서 있으면서 고맙다고 열두 폭짜리 병풍을 다섯 벌인가를 그려서 허산옥씨한테 주었고. 그러니까 허산옥씨가 또 돈을 주었어요. 그 병풍을 이병철이가 가지고 있었죠.

_ 하반영氏 구술 가운데

전주의 예술이 꽃을 피운 시기는 아마도 1920년대 이후부터 1970년대 무렵까지가 아닐까한다. 약 반세기 동안 전주는 전국적으로도 예술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 근대도시에는 예술가들, 향수자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 존재했으며 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VI. 맺는말

이 발표에서 필자는 근대 전주에서 예술이 발달하게 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들의 전유로 여겨져 왔던 시·서·화의 향유계층이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새로운 부르주아계급을 형성했고, 이들 가운데는 적극적인 예술향수층인 된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계층은 재편되었으나 과거의 문화적 상징자본은 여전히 유효했다고 보여진다. 즉 양반의 생활양식, 문화적 취향을 그대로 유지하여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향은 신분제가 폐지된 근대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신 부르주아 계층이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양반적인 요소를 지향하고 있었기에 이를 문화의 '양반화'라고 보았다. 이들이 신지배층으로 올라서면서 지위에 걸맞는 문화적 상징을 획득코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과거의 양반들도 더 이상 폐쇄적인 사회문화활동을 할 수 없었다. 신진세력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교우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양반문화의 확산에 일익을 담당했다.

전주에서는 사랑채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신분별로 교류했던 과거의 사랑채문화가 직업, 취향, 이념으로 대치되면서 새로운 교류문화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들이나 예술애호가들의 사교모임은 근대적 공간으로 변신한 사랑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전주는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 김용옥, 「조선사발같은 전주토박이」, 『노령(蘆嶺)』 71, 1994.
- 박명규, 『한국근대국가 형성과 농민』, 문학과 지성사, 1997.
- 백승종, 『한국사회사연구-15~19세기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 이용선, 『거부열전』, 상서각, 1976.
- 이용엽, 『전북미술약사』, 전북역사문화학회, 2007.
-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BK21사업단, 「전주한옥마을 구술열전 - 효자가문의 학인당」, 『전주시 한옥마을스토리개발사업 결과보고서』, 2008.
- 전주문화재단, 『일제 식민시대 구술실록』, 전주문화재단 총서 3, 2007.
- 전주문화재단, 『격동기 구술실록』, 전주문화재단 총서3, 2008.
- 전주역사박물관, 『서화(書畵), 손 끝에 흐르는 정신세계』 전주학 총서 9, 2007
- 진준현, 『근영화회』, 서울대학교박물관 학술총서 1, 1992.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

이태영*

<목 차>

I. 서론 - 5·60년대의 전주

III. 전주 문인들의 활동 무대

II. 전주의 문인, 예술인

IV. 결론

I. 서론 - 5·60년대의 전주

1945년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에 1950년 6·25 사변이 터졌다. 서울이 함락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남쪽 지역에 있는 전주와 부산은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전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향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영화인, 미술인, 문학인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전주를 찾게 되었다.

당시 가장 변화가였던 전주 중앙동과 고사동의 인근 지역은 문화 예술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음식점, 다방, 술집 등이 번창하였고, 극장과 다방을 중심으로 수 많은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현대까지 전주의 문화적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전주는 음악, 미술, 서예, 문학, 영화 등등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5,60년대의 전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월등한 문화적 발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활동한 문화예술인과 그 문화 활동에 대한 언급은 그 당시를 겪은 문화인들과 이 지역 거주자들이 구술한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의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근·현대라 할 수 있는 50년대와 60년대에 대해 당시의 상황

*전북대학교 교수

과 구술자료를 모아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51년 전주로 내려와서 약 5년간 전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국어 국문학과 서지학계의 거목인 시조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석정, 김해강, 김창술, 최승범과의 교분 및 활동을 조명하고, 그 시대의 많은 예술인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주 지역의 소지역과 그 지역의 문화적 활동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II. 전주의 문인, 예술인

6.25사변이 터지고 전주에서 활동하던 많은 문인과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을 할 만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학, 극장, 거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가람 선생이 전주에 온 뒤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인사들과 교유하면서 전주의 학문, 교육, 문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가람 이병기 선생이 거처했던 양사재와 전주의 예술인들이 활동했던 전주극장,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어 강의를 했던 전시종합대학과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문인들의 활동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양사재'와 문인들

향교에서 유림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곳이 '양사재(養士齋)'이다. 양사재는 서당 공부를 마친 청소년이 모여 생원, 진사 시험 공부를 하던 곳이다. 향교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자 이를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이 전북대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자, 1951년 6월 4일(월) 가람 선생은 양사재로 이사를 하였다. 이곳에서 1956년까지 주로 기거하게 된다. 그러므로 양사재에서 약 5년간 기거하시는 동안 전주를 중심으로 많은 문예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며,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과 교분을 나누게 된다.

1975년 서울에 있는 신구문화사에서 '가람 일기(1)'가 출판되었다. 가람 선생님의 제자인 정병욱 교수와 최승범 교수님이 편집하여 낸 책이다. 이 책은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1919년 4월 14일부터 1968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50년의 일기를 모아 편집한 책이다. 가람 선생의 활동 사항은 이 책을 참고하여 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여산이 고향인 가람 이병기 선생님은 국문학을 전공하신 시조시인이었다. 필

자가 대학을 다닐 때, 은사님으로부터 가끔 국문학자이며 시조시인으로 잘 알려진 가람 이병기 선생님의 일화를 들곤 하였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이 1951년 전시연합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이어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면서 강의 하실 무렵, 선생님은 수업이 끝나시면 학교 앞 막걸리집에서 술을 드시기 시작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풍남문 앞에서 술을 드시고 집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마치 전설처럼 들었다. 국문학사를 강의하시면서 점심에 하신 술이 얼큰하게 올라와서 여학생 앞에서 하기 어려운 시조의 내용을 거침없이 읊으면서 강의를 하셨다는 말씀도 자주 들곤 하였다.

선생님은 이처럼 호탕하셨고 올곧은 선비의 자세를 지녔다고 전한다. 난을 좋아하셔서 선생님이 학장 관사로 쓰면서 계시던 ‘양사재’ 방안에는 항상 난향과 수선화 향기가 가득하였고 울안에는 매화, 연꽃을 심으셨다.

특히 문인 중에서는 신석정, 김해강, 백양촌(신근), 최승범과 주로 만났으며, 이름이 언급된 분들을 들어보면 박준규, 김상기, 소공(素空), 포광(包光), 우당(愚堂), 유호석, 고희근, 이우식, 박천일, 양상경, 김남곤, 유엽(柳葉), 이혜구(李惠求), 조병희, 문선규, 이광렬(효산), 김용규, 국어학자 김형규, 정인승, 박길진(원광대학 학장), 장순하(삼남신문사), 김근수, 김충선 등이 보인다.

전북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들을 양사재로 초청하여 꽃을 보면서 술을 드셨던 내용이 가끔 나온다.

57년 1월 11일(금), 청매가 많이 피었다. 전원배, 송준호, 홍현식, 노철, 김상오, 김근수, 최승범 군을 청하여 매화음을 하였다.

1968년 11월 29일, 가람 이병기 선생의 서거에 쓰신 신석정 선생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풍란이 바야흐로 벌어졌습니다. 방렬청(芳烈淸)한 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난대 밀림 속에나 앉아 있는 듯합니다. 틈나시거든 왕림하시압.” - 가람 선생님의 편지

선생이 생전에 보내신 글밭이다. 아마 어느 해 늦은 봄이었다고 기억된다. 글월을 받자마자 바로 나는 선생을 심방하였고 그날 선생과 더불어 두견주를 기울이며 좀체 틈을 주지 않는 선생의 장광설을 경청하던 것이 어제런 듯 선하다.

봄이 지나면 바로 뒤이어 연엽주(蓮葉酒)의 계절이 선생을 찾아온다. 이때쯤 되면 풍란도 이울고 들에는 백련이 소담하게 피어 그윽한 향기가 술곳이 들려오는 오목대 아래 양사재 서가에는 선생의 지기와 제자들이 둘러앉아 호방한 선생의 웃음소리 속에 연엽주 잔이 오고가기 마련이다.

고매(古梅)처럼 허울 다 떨어버린 그 고매한 풍모에 어울리는 담소에서 풍겨오는 선생의 담담하면서도 뜨거운 인간애를 어찌 한두 송이 매화꽃 봉오리에만 비기랴?

청자 빛 하늘이 오목대를 넘어가는 가을철이면 양사재엔 또 다시 국화주¹⁾의 향기가 드높은 시절이 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가신 포광 선생과 더불어 국화주를 기울이며 오고가는 이야기는 그대로 속진을 떠난 청담(淸談)이 아닐 수 없었다.

『신석정 전집』 4, p.247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기거하던 ‘양사재’를 중심으로 많은 문인들이 드나들면서 전주의 문학을 꽃피운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 ‘비사벌초사(比斯伐艸舍)’와 신석정(辛夕汀)

한편 가람 이병기 선생과 문학적으로 교분이 많았던 분은 신석정 선생이다. 신석정은 1907년 7월 7일 전북 부안읍 동중리에서 출생하고, 1930년 3월 서울로 상경하여, 석전 박한영(朴漢永) 선사가 경영하는 ‘중앙불교전문강원’에서 공부한다.

1931년 6월 『時文學』 3호에 <선물>을 발표하여 시문학 동인이 되어 박용철, 정지용, 김영랑과 활동하며 한편으로는 이광수, 한용운, 주요한, 김기림과 교분을 쌓으면서 영향을 받는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고 1952년 전주로 활동무대를 옮긴다. 1961년 남노송동 ‘比斯伐艸舍’에 기거하면서 활동한다. 1951년부터는 태백신문사 편집고문으로 있으면서 전북대학교 ‘시론’ 강의를 맡아 후진 양성과 전북문학활동의 선도가 되었다.

1954년 전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전북대학교와 영생대학에서 시론을 강의한다. 1958년 이병기와 공저로 『명시조 감상』(박영사), 역서 『매창시집』(낭주문화사)을 출간한다.

신석정은 ‘가람 선생과 나’라는 글에서 가람을 만나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1) 전북 여산에서 생산하는 술로 ‘호산춘’이 있다. 이는 가람 선생이 즐겨 애용했다는 술에서 연유하여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내가 선생을 처음 뵈는 것은 40년이 가까운 까마득한 옛날로 20대의 문학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영광·고창을 둘러 오신 선생은 매창의 무덤을 찾아오신 길이라고 우리 고장 부안을 들르셨습니다. 그 길로 매창의 무덤을 둘러 변산 해수욕장으로 모신 나는 밤이 이슬하도록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문학 이야기를 듣던 것이 바로 엇그제같이 성합니다.

『신석정 전집』 4, p.249

전주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운포의 권유로 전주로 나와 정박한 지 벌써 20여 성상, 나의 교우록에도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T신문사의 편집고문을 맡아오는 동안 고등학교 국어와 대학의 시론을 맡게 되어 가람 선생을 대학에서 다시 만나고 김해강·백양촌을 중심으로 전주문인회라는 문우 친목 서클을 만들어 문학 활동에 자못 활기를 띄게 되었다.

『신석정 전집』 4, p.516

신석정은 ‘전주 문학풍토기’(『신석정 전집』 5, p.186-190)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많은 전북의 문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소설가로 백룡 채만식, 최일남, 홍석영, 상산 박상남, 양인기, 유현종, 오승재, 박조웅, 윤항목, 신석상, 강석근, 유림일, 이추원을 언급하고 있다.

시인으로는 유엽, 김창술, 김해강, 서정주, 백양촌 신근, 최승렬, 이철균, 하희주, 허소라, 황길현, 이병훈, 김영협, 백초, 이향아, 최종규, 이가반, 장경룡, 오경남, 진을주, 고은, 박항식, 박순호, 박희선, 이어룡, 이운룡, 강인한, 이가림(이계진), 채규관, 문효치 등 시인들을 언급하고 있다.

시조시인으로 가람 이병기와 그의 제자들인 이호우, 김상옥, 장순하, 최승범, 구름재 박병순을 언급하고 있다. 평론에는 천이두, 원형갑, 이상비, 희곡 분야에는 정구하, 김진옥, 박동화가 언급되고 있다.

최명표(2006)에 의하면, 신석정과 같이 활동한 김해강은 1903년 4월 16일 전주시 전동 182 번지에서 출생하여 1927년 1월 1일 동아일보 문예 작품 현상날의 공모에 시 ‘새날의 祈願’이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1945년 전주사범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9월 김창술 등과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47년 2월 16일 채만식(대표), 이병기,

김창술, 신석정 등과 '전라북도문화인연맹'을 창립하였다.

1945년 8월 27일 김해강, 김창술을 중심으로 전주문화동우회가 탄생되었다. 문학 백양촌, 미술 김영창, 연극 김구진, 유춘, 음악 이준석, 무용 김미화, 언론 이평권 등이었다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 2008, p.445 참조). 1959년 12월 신석정 등과 '전주문학회' 해체 후, '문인의 집'을 재발족시켰다가 4·19후 해체하였다.

신석정과 함께 활동한 김창술은 1902년 4월 19일 전주시 중앙동 9번지에서 출생하여 1927년 10월 동향의 시인 유엽, 김해강 등과 전주시회를 조직하고, 문예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문학 대중화 운동을 전개하였다(최명표, 2002 참조).

3. 전시종합대학과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에는 전주에 명륜대학관, 군산에 군산대학관, 이리에는 이리농대가 있었다. 각 대학은 휴교 상태여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1951년 정부에서는 전시체제에 맞게 대학을 연합하여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도내 대학들은 전시체제에 연합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종합대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당시 전주에 피난을 내려온 많은 인사들이 전시연합대학의 강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람 이병기 선생을 필두로, 철학과 전원배, 국어학의 김형규, 정인승, 김영수(김포장) 등이 있었다.

전북대학교는 1951년 12월 10일 이리농과대학, 전주명륜대학, 군산대학이 합쳐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개강하게 되었다. 전시연합대학에서 가람 이병기, 미당 서정주, 김형규, 정인승 박사 등이 강의를 하였다. 52년 9월부터 56년 8월까지 가람 이병기 선생이 문리과 대학장 역임하고, 건재 정인승 박사가 전북대 총장을 역임하게 된다. 신석정 선생은 전북대학교에서 7년 동안 시론을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의 원로 시인이신 고하 최승범 명예교수가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회 졸업생이다.

52년 6월 8일(일) 오전 10시 전북중학교 교정에서 전북대학교 개교식이 시작되었다.

『가람일기』, p.657

52년 12월 29일, 문리대에 나갔다. 신석정의 김해강, 백양촌 등 문인들이 신천지(新天地)에서 회합하여 산옥이 집으로 가 망년회를 찍지게 하였다.

『가람일기』, p.662

1956년 12월 23일(일), 영산옥(映山屋)으로 가 전북 국어국문학회 총회. 전회원 13명. 신석정, 김교선, 이기우, 최승범, 김준영, 이학용, 고현, 나다. 회칙 통과, 상무위원 선정, 나는 그 회장, 부회장에 신석정, 김교선, 총무에 고현, 편집책임에 최승범.

『가람일기』

4. 가람문고

가람 이병기 선생은 평생 가난한 선비로 사시면서도 우리 옛 책을 많이 모으셨다. 지금은 거금으로도 사기 어려운 보물급인 많은 책을 월급으로 사셨다. 『가람일기』를 통해서 생활의 곤궁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일기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계실 때 진고개 근처에 있는 책방과, ‘한남서림, 광동서관, 박경수서사, 광창지점, 화신상회, 회동서관’ 등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옛 책을 구입하였다. 그 내용이 『가람 일기』 1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쓰여 있다.

1930년 6월 11일(수) 맑다.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국어역본 4권(첫1권 낙질)을 95원에 샀다.

1930년 10월 24일(금) 맑다.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2책, 『원각경(圓覺經)』 1책 사다.

1924년 휘문고등학교 선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책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1951년 전주에 내려오실 때까지 무려 20여 년간 상당히 중요한 책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에는 한글과 관련된 귀중본이 다음과 같이 소장되어 있다. 중세국어 당시의 이러한 책들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구입하기 어려운 귀한 책들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권1,2(1447년),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활자본) 5권(1461년),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 6, 7, 15, 16(1481년),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 2, 3, 4, 5(1482년), 몽산화상법어략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17년), 사법어언해(四法語諺解)(1517년),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1608년),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1608년), 양금신보(梁琴新譜)(1610년), 불정심경언해(佛頂心經諺解)(1631년), 가례언해(家禮諺解)(1632년), 농가집성(農家集成)(1656년), 어록해(語錄解)(1657년), 배자예부운략(排字禮部韻

略)(1678년), 중용언해(中庸諺解)(1684년), 역어류해(譯語類解)(1690년), 이문대사(吏文大師)(17세기경), 신간증보삼략직해(新刊增補三略直解)(1805년), 신전자초방언해(新傳煮硝方諺解)(1809년)

가람 선생님은 「한국 서지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서적은 학자의 밑천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람 선생님은 그 고된 책 수집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셨다. 『가람일기』에서는 그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서울로 와 중학교사가 되어 20여 년을 보내는 동안 나의 뜻하던 바 고서적 몇 천 권을 모았다. 내가 처음 18원 월급을 받았으나 그 돈의 반 이상은 책을 샀었다. 나는 이결한 오락으로 여기려니와, 보다도 우리 국학에 당한 귀중한 문헌을 수집하자던 것이었다.”

가람 선생님이 작고하시고 유족들이 선생님의 책을 전북대학교에 기증하려고 하자, 전북대학교는 당시 재정이 매우 빈약하여 선생님께 드릴 사례금이 없어서 기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전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약 4천 권의 옛 책을 기증하였는데 이 책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가람문고’에 들어 있다.

이 가람문고에는 국보급을 비롯한 좋은 책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선생님이 전공하신 국문학의 소설들도 상당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에는 완판본 한글고전소설인 ‘열녀춘향수절가, 홍길동전, 심청전, 소대성전, 유충열전’ 등이 보인다.

춘향전(가람古 813.5-C472a), 홍길동전(가람古 813.53-H41h), 심청전(가람古 813.5-Si41f), 소대성전(가람古 813.5-So15a)

5. ‘고하문학관’과 고하 최승범

1969년 동호회 형식을 빌어 한국문인협회 전북지부의 이름으로 『全北文學』이란 잡지가 전주에서 발행되었다. 그 후 2011년 현재까지 253집이 발행되었다. 현재 최승범 교수님이 발행을 하고 있다.

이 잡지는 6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데 이 잡지의 표지에는 화가들의 그림, 조각가들의 조각품이 표지 화면으로 등장한다. 현재 그러한 작품이 ‘고하문학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훌륭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하문학관’에 소장하고 있는 최승범 교수님이 전국의 문인들과 나눈 편지에는 유명한 문학인들의 친필 편지가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많은 문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하문학관’에는 수만 권의 문학과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특히 시집, 5, 60년대의 양장본 등은 매우 귀하고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Ⅲ. 전주 문인들의 활동 무대

1. 다방 문화

전주의 근·현대사에서 다방(茶房)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다방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 예술인들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전시하던 곳이었다.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이 다방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5·60년대의 다방은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친목하는 곳이긴 하지만, 시화전, 그림 전시회, 시낭송회, 각종 회의를 하던 곳이었다. 따라서 당시 전주의 다방의 분포와 그 활동 영역을 이해하는 일은 바로 전주의 문인의 활동사를 이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전주의 다방을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3장이 있다. 하나는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2008, p.525)에 수록된 ‘1951-60년까지 50년대 다방 분포 상황 (사진 1)’이다.

먼저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2008, p.525)의 지도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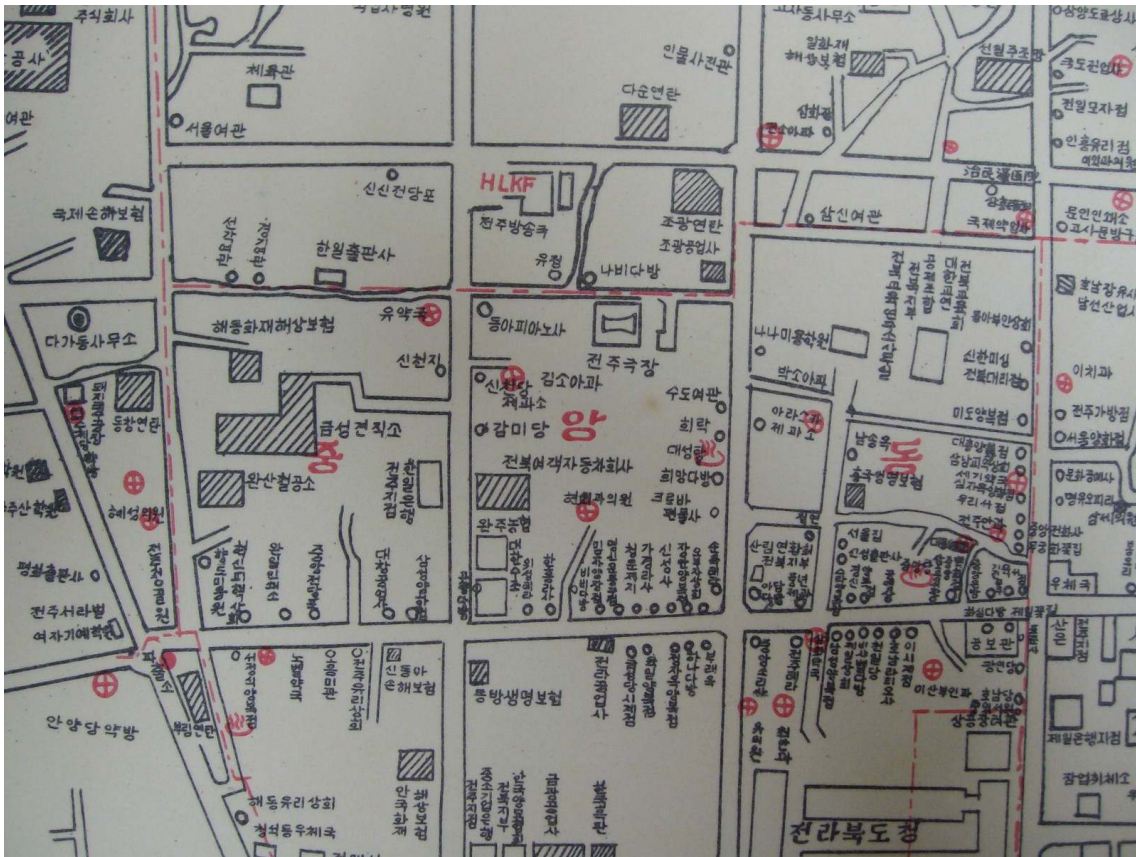
6·25 전에는 다방이 없었고 양식집인 신천지가 있었을 뿐이다. 6·25 후에 첫 번째 생긴 다방이 고향다방이고 이어서 왕궁다방, 우인다방, 아담다방, 삼양다방 순으로 문을 열었다. 그 후로는 우후죽순격으로 다방이 늘어났다. 전쟁 직후 암울할 때 지식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다방 이용이 잦았다. 특히 문화예술인, 연예인은 다방의 단골손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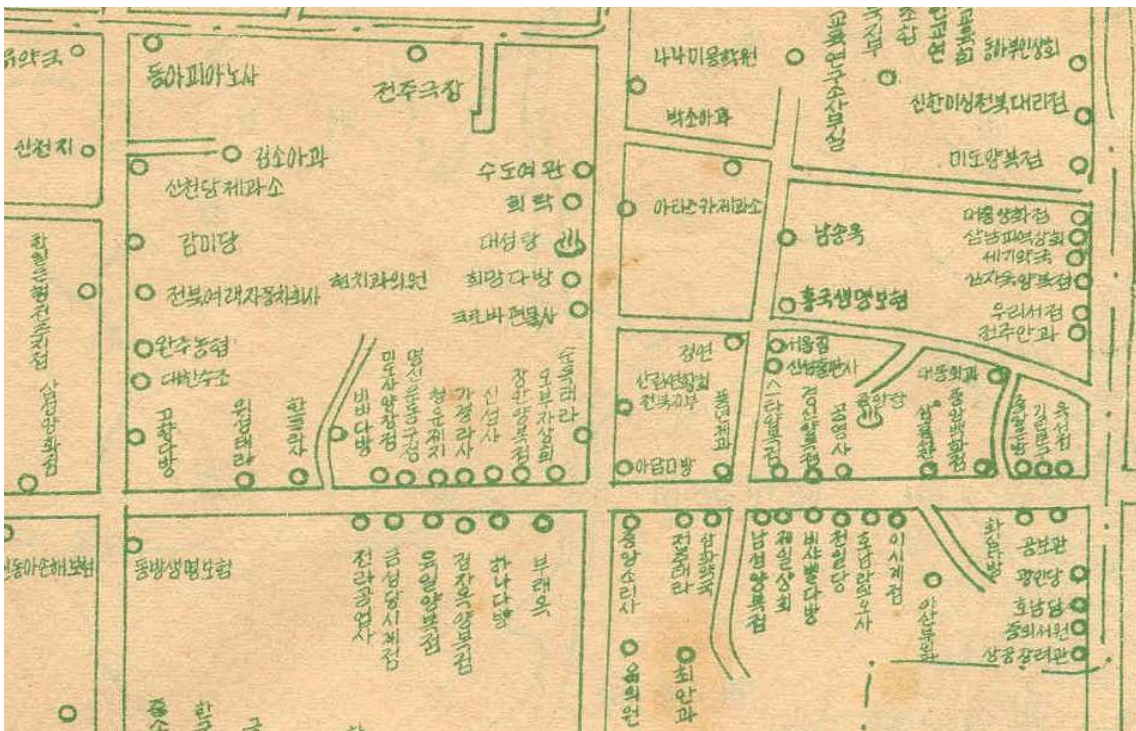
〈사진 1〉 1951-60년까지 50년대 다방 분포 상황

두 번째 지도는 1962년 대한상공전선사에서 발행한 '전주 상공 안내 시가도'(사진 2)이다. 이 지도에는 중요한 다방과 음식점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세 번째 지도는 1965년에 발행한 ‘湖南略圖’에 나오는 1960년대 다방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지도(사진 3)이다. 이 세 지도를 종합하고 참고하면 새로운 ‘전주 50, 60년대 다방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사진 2〉 전주상공안내시가도 가운데



〈사진 3〉 호남약도 가운데

1) 아담 다방

창업자는 고귀순 씨(1924년생)로 1950년대 중반에 창업, 80년대까지 1층에서 영업, 후에 2층으로 옮겼다. 여고 시절 중앙동 우리 집(하얀 웨딩) 가게를 구입하였다. '다리봉 식당' 자리였다. (『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권, 2008, p.523)

아담다방을 만들고 세를 내놓았으나 나중에 주인이 직접 영업하였다. 고급다방으로 판 검사, 고관들이 많이 다녔다. 연예인, 기자, 신문기자들이 주로 왕래하였다. 현재 다른 분이 '(구)아담다방'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저녁에 다리봉(茶里峯) 다방서 국문학의 빛나는 고시가화(古詩歌話)를 했다.

『가람일기』, p.650

다방에서 주로 전시하던 시기여서 아담다방에서 석정선생 시화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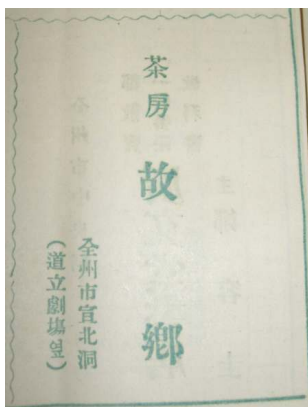
『이야기로 듣는 전주』, p.197

2) 고향다방

일제시대 국제관이었다가 도립극장으로 불리고 후에 전주극장이 된 이 극장 골목에 고향다방, 우인다방, 왕궁다방, 무영다방, 심원다방 등이 모여 있었다.

52년 10월 9일, 한글 반포 506주 기념날 도립극장서 기념식, 오후 5시부터 고향(故郷) 다방서 한글의 밤을 하였다. 어학회 사건 당시의 회억담을 하였다.

『가람일기』, p.660



다음 '고향 다방'의 선전물(사진 4)은 1953년 전주에서 발행된 '列車時刻表'에 게재된 광고이다.

〈사진 4〉 고향다방 선전물

3) 우인다방

도립극장(전주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으로, 6·25 직후 연예인이 가장 많이 모인 다방이다. 출입한 연예인으로는 변기종, 김승호, 이예춘, 허장강, 김진규, 주선태, 황해, 박노식, 전택이, 노경희, 도금봉, 김희갑, 현인, 김정구 등이다. 우인다방은 주로 극단배우들이 많이 다니는 다방이었다.

4) 무영다방

도립극장(전주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이다. 최승범 교수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가람일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56년 12월 30일, 무영다방으로 가 석정의 <빙하시집> 출판기념회를 했다.

『가람일기』

5) 심원다방

도립극장(전주극장) 골목에 있던 다방이다. 최승범 교수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가람일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1954년 3월 19(금), 가람동인회의 사화집 <새벽> 출판기념회를 열다.

『가람일기』, p.669

6) 삼양다방

경원동 아리랑제과소 사거리에 있는 다방으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 음악 다방으로 그림 전시회를 열곤 하였다.

7) 교차로다방

아담다방 건너편에 있던 다방이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p.231).

8) 풍남다방

9) 봉오리 다방(시청 옆)

10) 일번지 다방

‘신천지’ 양식집 앞에 있던 다방으로 화가들이 주로 드나들던 다방이다.

11) 신천지

양식집으로 전주극장 사거리에서 중앙동 사거리 사이에 있던 음식점이다. 90년대까지 ‘갈매꽃’이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장소이다. 6·25전부터 있었다. 『가람일기』에도 언급되고 있다.

52년 12월 29일, 문리대에 나갔다. 신석정의 김해강, 백양촌 등 문인들이 신천지(新天地)에서 회합하여 산옥이 집으로 가 망년회를 찍지게 하였다.

『가람일기』, p.662

2. 극장과 예술인들

일제시대 ‘국제관’이었다가 ‘도립극장’으로 불리고 후에 ‘전주극장’이 된 이 극장에서는 영화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인들의 행사가 있던 장소였다. 자연히 그 뒷골목에는 많은 다방이 자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현 전주백화점 자리에 있던 도립극장과 함께 풍남극장 무대는 시낭송의 밤으로 활용되었다. 시 낭송의 밤은 기성시인이고 대학생,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이고 간에, 남자들만으로 이뤄졌으며, 여류시인이 희귀한 당시에는 문학을 열망한 여학생을 양념으로 출연시켜 상황을 유도했다(『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 2008, p.521).

1945년 8월 하순에는 전북관현합창단이 활동을 개시하였다. 지휘 김홍진, 기획·감독 정인성, 악장 김길영 등이 맡았다. 음악인 80여 명이 모였고, 관현악부, 성악부로 나뉘어 연습을 하였다. 9월 하순에는 전주극장에서 1회 공연을 가졌고 60년대 중반까지 활동을 계

속하였다(『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 2008, p.445).

1947년에 개설한 미국문화원은 50년대 콘셋 건물에서 미국 문화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였고 최신 미국에서 간행한 도서가 많아 문학 활동이 활발한 본거지였다. 시 낭송회가 주로 열리는 장소였다(『전주근대생활조명 100년』 2, 2008, p.520).

미국문화원 콘셋이 헐리고 3층 건물의 극장(공보관)이 개관되자 대학생들이 문학서클 활동 무대가 극장으로 옮겨졌다. 전시실이 유일하여 미술, 사진 등의 전시가 많았다.

최승범 교수에 따르면 공보관 자리에 ‘유네스코 협회’가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었다고 한다. 회장에 오명순, 유영대 총장, 박길진 총장이 맡고, 최승범 교수는 상임이사를 맡았다고 한다.

52년 10월 17일, 공보관에서 호서문학회(湖西文學會) 주최인 ‘문학의 밤’에 갔다. 정훈(丁薰) 군이 문학회장으로 사회, 이병기 선생 축사.(가람일기, p.660)



〈사진 5〉 전주 극장 광고문

다음은 1965년도 발행된 ‘호남약도’에 게재된 전주 극장들의 광고(사진 5)이다.

현재 전주극장 골목은 5,60년대의 전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70년대에는 수많은 지역의 대학생들이 드나들던 음식 골목이었다. 현재에도 찻집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세탁소와 음식점이 옛 정취를 간직하며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3. 선술집

현재 막걸리집이라고 부르는 용어는 50년대 이전에는 선술집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서울에서 대포집이라고 부르니까 이 말이 전주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여 50년대 중반에 대포집, 왕대포집으로 불리게 되었다가 현재는 막걸리집으로 불리고 있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p.149).

전주극장 뒤에 대포집이 많았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p.222).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전주의 역사를 증언한 많은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치한다.

1) 정읍집

70년대 초 정읍집에 자주 다니던 사람들 배형식, 하반일, 묵산, 운봉, 유휴열, 권경승 등의 이름이 나온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p.222).

2) 삼천포집, 이화집

이화집은 구 시청 옆 전신전화국 앞에 위치했다고 한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p.124).

신석정 선생이 단골로 다녔던 구 전주시청 옆 ‘이화집’은 냉이국이 술 맛을 돋구었다.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눈이라도 살포시 오는 날이면 돌아오는 길에 호주머니가 막상 빈털털이가 되어도 좋고 단골로 다니는 대포집 이화장에 들릴 양이면 예전 다방에서 만나던 친구들의 얼굴은 거의 대할 수 있다.

『신석정 전집』 4, p.130

3) 전주여고 앞 철길 옆에 자리했던 ‘새우집’

4) 전고 앞 ‘구슬아기집’

5) 교동 성당가는 길목의 ‘동동주집’

6) 태평동 ‘혜경이집’

7) 곰보집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와 『가람일기』에 나오는 선술집이다.

‘곰보집’ 등 이루 셀 수 없는 단골 선술집을 만들어 다녔다.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p.281

남문시장안 '해방관' 역시 가람 선생이 자주 찾던 단골 술집이었다. 일명 '곰보집'으로 불리던 이 집은 큰 술뚜껑에서 만들어 낸 파전이 일품이었다.

8) 옴팡집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에 나오는 선술집이다.

그리고 남문시장 안에 있는 곰보집이니 옴팡집이니 하는 술집에 가서 약주 대접을 해드리며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러면 시종 진진한 강의가 선술집 한 모퉁이 바닥에서 펼쳐지곤 하였다.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p.284

9) 툇래미집

우리들의 단골은 허름한 선술집이었다. 가람 선생은 툇래미집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술을 파는 과부집에 자주 가서 환담을 하기도 하였다.

10) 전주 비빔밥의 원조는 지금의 남부시장이었다. 남부시장 한 모퉁이에 조소녀라는 여자가 하는 술집이 있었다.

11) 금암동 분수대 부근의 '버드나무집'

12) 도청 뒤에 있는 '후문집' 등은 허름한 선술집이었지만 각기 나름의 맛과 멋이 있어 단골을 끌었다.

13) 남노송동 '군자집(노파집)'

김준영 교수와 최승범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가람 선생이 자주 다니셨던 곳이다.

4. 음식점

1) 일제시대의 음식점(『이야기로 듣는 전주』, p.82)으로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비빔밥 전문점으로 ‘박다옥’(박다, 하까다), 남계동(다가동), 남문에서 다가동 가는 길에 있던 평양냉면 전문점 ‘평양집’, 기타 ‘비사벌’, ‘전주식당’, ‘금일옥’ 등이 있었고(『이야기로 듣는 전주』, p.109) 경원동, 시청 옆에 후생극장(깡통극장) 근처, 현 예술회관 옆에 콩나물국밥 집으로 ‘성심옥’이 있었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p.149).

2) 요정으로는 허산옥(남전)씨가 운영하던 요정인 ‘행원’이 있고, 보건소 앞에 있던 ‘수월정’이 있었다(『이야기로 듣는 전주』, p.221). ‘노송각’(『가람일기』, p.636), ‘청풍관’(『가람일기』, p.639) 같은 큰 음식점도 있었다.

3) 부여옥

『가람일기』(p.690)에 나온다.

1956년 3월 30일, 낙원(樂園)서 문인회 송별연. 석정, 해강, 백석, 백양촌, 최승렬, 박병순, 남상천, 최승범, 청포, 감용문 일동 촬영

4) 영산옥

『가람일기』에 나온다.

1956년 12월 23일(일), 영산옥(映山屋)으로 가 전북 국어국문학회 총회. 전회원 13명. 신석정, 김교선, 이기우, 최승범, 김준영, 이학용, 고현, 나다. 회칙 통과, 상무위원 선정, 나는 그 회장, 부회장에 신석정.

5) 산옥이 집

『가람일기』(p.662)에 나온다.

52년 12월 29일, 문리대에 나갔다. 신석정의 김해강, 백양촌 등 문인들이 신천지(新天地)에서 회합하여 산옥이 집으로 가 망년회를 짚지게 하였다.

IV. 결론 - 전주가 가지는 근·현대의 문학사적 의미

전주 교동에 있는 양사재는 한국 국어국문학의 거목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기거하면서 전주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터이다. 특히 가람이 이 터에서 가꾼 난, 난초, 수선화, 매화, 연꽃 등은 한옥이 가지는 생활 이미지와 매우 관련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는 꽃을 가꾸는 사업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주 중앙동 거리는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려 100여년 동안 전주의 제일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거리이다. 5,60년대 전주의 문화예술인들이 드나들던 다방은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한 장소로 전주의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장소이다.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주극장 뒷골목은 5,60년대 전주의 영화거리라 할 수 있는 곳이다. 다른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다방골목이다.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바로 옆 동네의 2000년대 문화와 대비를 이루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여전히 지나간 문화를 상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이를 기념하거나 발전시킬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전주극장 골목은 바로 영화의 거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이 영화의 거리가 된 것은 바로 50년대 전주극장 골목에 모였던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찾았던 식당과 술집은 전주의 낭만과 역사를 이야기한다. 이들 음식점과 술집과 다방을 통틀어 ‘가람길’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더불어 ‘가람길’을 만들어 다녀보았다. 50, 60년대의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가람길〉

전북대학교 - 덕진공원 - 금암분수대 옆 - 태평동 - 영화의 거리(오거리) - 전주극장 골목 다방 - 중앙동 다방 - 다가공원(가람시비) - 남부시장 - 고하문학관 - 한옥마을 - 양사재

【 참고문헌 】

- 국효문, 『신석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대한상공전선사, 『전주 상공 안내 시가도』, 전주 보광출판사, 1962.
-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4, 국학자료원, 2009.
- 신석정전집 간행위원회, 『신석정 전집』 5, 국학자료원, 2009.
- 열차시각표(1953)
- 이계수·박송암·신동식, 『湖南略圖』, 국제문화출판인쇄사, 1965.
- 이병기, 『가람 일기』 1, 정병욱·최승범 편, 신구문화사, 1975.
- 장명수 엮음, 『전주 근대생활조명 100년 제2권 - 전주의 8·15해방과 6·25전쟁』, 전주문화재단, 2008.
-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50년 뒷이야기 - 샘물이 큰 바다를 이름과 같이』, 신아출판사, 1998.
-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이야기로 듣는 전주, 전주사람들』, 전주시, 2001.
- 최명표 편, 『김창술 시 전집』, 문예연구사, 2002.
- 최명표 편, 『김해강 시 전집』, 국학자료원, 2006.
- 최승범, 『스승 가람 이병기』, 범우사, 2001.
- 홍성덕·김철배·박현석 번역, 『국역 全州府史』,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8.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이동희*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전주한지와 '송가종이' |
| II. 붓장이 필상 | V. 맺음말 |
| III. 필상에서 필방으로 | |

I. 머리말

전주는 문화예술이 발전한 예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예향으로서 그 구체적인 실상이 밝혀져 있지는 않다. 전주는 예향으로서의 이미지는 강하지만 이를 입증하고, 그 내력을 찾아보고자 할 때 난감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전주가 과연 예향인가 하는 의문도 때로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이런 차원에서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筆房)에 대하여,¹⁾ 붓과 종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방사우를 취급하는 필방 운영이 곧 직접적인 예술활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림과 서예의 기반이므로, 필방에 대한 고찰이 예향 전주를 밝혀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방에 대한 기존의 조사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다만 붓과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정리한 글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필방에 관한 연구들이 없는 상황하에서, 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데 기존의 구술채록 기사들이 비록 단편적이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

붓과 종이를 생산했던 장인들, 즉 필장과 지장 개개인에 관한 기록을 문헌에서 찾아보

*전주역사박물관 관장

1) 본고에서 근대는 광복이후 1960, 70년대까지도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 전통사회가 지금처럼 장인을 예우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을 통해 전주시역 필방의 연원을 찾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대로 필장과 지장을 이어오는 장인들이 있어서, 이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작고한 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인터뷰 기사들을 더하여 이 지역의 붓과 종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복원해 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전주에 필방이 들어선 것은 1960년대 이후로 보인다. 전주의 오래된 필방으로 고려필방과 송지방이 있으며, 필장(筆匠)의 가업을 이어온 이조필방이 있다. 또 전주일원인 모악산 자락에 금산필방이 있고, 전주에서 이주해간 필장이 꾸려가는 대전의 백제필방이 있다. 필자가 파악하지 못한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장인, 필방들이 더 있겠지만, 우선 이들 필방과, 그 후예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여 본 논고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전주시역 필방의 실체를 규명해 감에 있어서 구술채록이라는 조사방법이 가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필자가 부족하여 조사를 보다 폭넓게 수행하지 못하고, 장인들의 증언을 잘못 정리하거나 해석한 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주시역의 필방에 관한 자료를 채록하고 모으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전주시역 필방과 예술사 연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붓장이 필상

붓을 만드는 장인을 필장(筆匠)이라고 하고, 붓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필상(筆商)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개 필장이 붓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팔러 다니므로 필장은 곧 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붓을 제작하는 공정은 책상하나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가내수공업으로 지금과 같은 큰 공장과는 다르지만, 특히 붓 제조는 간단한 재료와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필요치 않다. 지금도 필장들의 붓 제작은 책상 같은 작은 작업대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다.

붓을 만드는 재료인 털은 노루 겨드랑이털(장액붓), 족제비 꼬리털(황모붓) 등이 널리 쓰였다. 예전에는 붓이 필기도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붓들이 널리 쓰였다. 노루털과 족제비 털은 짧아서 필기용 작은 붓을 만드는데 적합했다. 반면 큰 붓을 만드는 데는 염소털이 많이 쓰였다. 붓 만드는 털은 겨울철에 채취하는데 추운지방의 것이 좋으며, 대

나무도 겨울철의 것이 좋다고 한다.²⁾

이렇게 해서 만든 붓을 장날 장터에 나가 돛자리를 펴놓고 노점상 형태로 판매도 하였지만, 행상의 형태로 직접 서당 약방 등 붓 수요처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붓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붓을 만드는 재료와 도구들을 담은 바구니를 등에 지고 몇날며칠을 떠돌면서 붓을 만들어 팔았다. 물론 필상은 붓을 만드는 장인인 것만은 아니다. 붓을 사서 팔러 다니는 경우도 있다.³⁾ 또 필상들은 문방사우만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였다.⁴⁾

다음은 필상의 형태에 대한 구술 내용이다.

①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동부시장 이런 시장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돛자리 깔고 붓을 만들어다가 팔았어요. 옛날엔 5일장 식으로 열렸어요. 그런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직접 여러 서당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생활도구를 가지고 붓을 만든거예요. 서당가면 다리미도 있고 인두도 있고, 없는 것은 여기서 가지고 나가죠. 밀이랄지 아교랄지 예리한 칼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현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 교통이 불편하니 수십리 길 걸어가 그 서당에 가서 먹여주고 채워주고 해서 붓을 만들어요. 그러면 요만한 털을 가지고가서 쓸 수 있는 붓을 직접 서당선생의 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붓을 만듭니다. 서당선생이 강한 붓을 좋아한다, 직접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붓을 만들어 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붓을 만들어요. 작은 글씨 붓을 만들어 달라하면 만들어 주고.

- 필장 장대근씨 구술, 2011년 4월 녹취

② 붓을 만드는 사람 만들고, 파는 사람 팔고 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했지. 즉석에서 저녁에 만들어서 아침에 팔고 했어, 재료 짚어지고 다니면서.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어, 서당 다니면서. (부안) 변산 일주, 서당을 뺀 다 돌면 일주일 걸렸을 것여. 남원, 순창, 전라남북도 다 돌아다녔어, 5.16전까지. 그 전에는 촌에서 공부해서 촌일수록 서당이 많았어.

- 필장 채주봉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
- 2) 필장 광종찬씨에 의하면 한겨울에 설 쇠고 보름 동안 나온 털이 제일로 좋다고 한다. 봄에 채취하면 쯤이 빨리 슬고 털도 좋지 않다고 하였다. 대나무는 도처에서 채취하지만 겨울 것이 쯤이 안슬어 좋다고 한다.
 - 3) 보성군 구비문학에 '황정승의 딸과 이정승의 아들'이야기가 있는데, 황정승이 죽고 계모가 그 딸을 죽이려고 하자, 황정승 딸이 남북을 하고 시장에 가 붓을 사서 필상이 되어 해남의 이정승 아들을 찾아가는 대목이 나온다.
 - 4)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 전해 오는 '머슴의 아들 이승지'에 책을 파는 필상 이야기가 나온다. 19세기 초 순조 때 참봉 집에서 머슴을 하던 이씨 성을 가진 머슴이 쟁기질을 하다가, 필상이 책을 한 짐 걸머지고 가면서 책을 사라고 외치자 아들 교육을 위해 주인댁의 소 한 마리를 주고 이책을 구입한 후 1년 세경으로 갚았다고 한다.

필상은 행상이지만 일반 행상들과는 달리 괘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이들이 문방사우를 다루다 보니 서당 훈장 같은 식자층을 직접 상대하고, 또 어느 정도 식견이 있어서 식자층과 대화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필상치고 무식꾼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 동네 저 동네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으로, 식자층을 상대로 얻어 들은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전해주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상은 행상이지만 하룻밤을 묵어가는 객의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필상의 지위에 구술 내용이다.

① 대감 집에 가면 차별이 심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필상하고는 대감들이 겸상을 해요. 모르는 사람이 필상을 상놈이라 하는데 상놈이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자면서 붓도 고르고

— 필장 곽종찬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② 행상할 때 이거이(바구니) 짊어지고 다닌 것이라. 전부 재료 담아가지고. 전부다 들어. 호룽불, 쫓불 켜놓고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라. 서당, 약방, 서예가들, 이런데 들 찾아다녔어. 말 허자면 장인이라 허잖아. 안 알아준 것이여. 하인에 불과한 것이여. 말도 허소하지, 허쇼도 안 헌 것이여. 그런데 붓 만들건 그러들 았혀. 상대가 상대니만큼 선비로 대접혀. 의관 중에 갓 허고 붓 허고는 대등하게 선비로 대접혀. 그 여타는 장인들 전부 하대했어. 팔일오 해방 후까지도 그랬어. 이것은 상대가 상대니 만큼 그랬어.

이것은(필상) 아무나 허는 것이 아니라 무식헌 사람은 못 혀. 학자들 허고 뭘 얘기가 주고받고 대화가 돼야 델 것 아녀. 유식헌 사람이나 요것 허지 아무나 못했거든. 알아야 혀. 동석 허서 한방에서 자기도 하고 지위가 그랬어. 동등헌 대우를 받은 것이고. 필상은 어떤 사람이 허는 것이냐면. 유식헌 사람이 길이 없으면 하기도 했어. 헐라면 일문일답이 되야 헐 것 아녀. 그런데 일문일답이 안 되면 어떻헐거여. 요것 짊어진 사람은 대화가 되어. 그런 게 대우받은 것이지.

시방 갓 만든 이가 어디 있는가 몰라. 그전에 봉동 어딘가 있었는디. 세월이 그랬어. 이조 오백년 세월이. 이것만은 그러들 았혔어. 붓 허고, 갓 만든 이허고 선비 허고 대화가 됐어. 일본은 칼 쓰는 사람이 제일이고, 우리는 글 쓰는 사람이 제일이고 그랬어.

— 모필장 채주봉씨 구술, 『문화저널』 (2009.3)

한편, 필상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구전에서 필상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이고, 필상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로, 과객의 부모 제사를 지내주고 복을 받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과객이 붓장수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다. 붓장수가 어느 대가집에 가서 유하게 되었는데, 밥을 차려주자 윗목에 물려 두고 먹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늘이 부친 제사라 이렇게라도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하였다. 며느리를 불러 제사밥을 차려주라 하자 첫 번째 두 번째 며느리는 모두 거부하고 셋째 막내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차려 주었다. 그러자 그날 밤 꿈에 수염이 허영게 쉰 노인이 나타나, 오랜만에 따순 밥 잘 먹었다고 하고, 앞으로 아들 삼형제를 두고 셋다 대과에 급제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다.⁵⁾

필상 출신의 밀양부사가 원귀의 원수를 갚아주었다는 설화도 있다. 밀양 관내 영남루 아래 아랑각에 전하는 이야기이다. 아랑은 밀양부사의 딸로 금지옥엽 키웠는데 관노가 아랑을 사모한 끝에 겁탈하려다가 결국 칼로 찔려 죽었다. 이 후 밀양부사로 오는 사람마다 자고나면 아침에 시체로 변하자 누구도 부사로 올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을 어느 시골의 붓 파는 필상이 듣고 밀양부사를 지원하였다. 부임한 밤에 아랑이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붓 장수 밀양부사에게 알려 원수를 갚았으며, 그 정절을 기리기 위해 아랑각을 건립하였다는 이야기이다.⁶⁾

해안(海眼)선사 행장에도 필상 이야기가 나온다. 해안선사는 1901년 부안군 산내면 격포리에서 태어나 가까운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14세 때 필상을 따라가 내소사에 거하던 한학자 고찬선생을 찾아가 수학하게 된다.

이러한 필상에 관한 이야기들은 근대 신문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동아일보」 1925년 9월 4일자에 통의부 의용군들이 필상으로 변장하여 군자금을 모으다가 3명이 일경에 체포된 기사가 있다. 1932년 5월 31일자에는 브나로드운동(농촌계몽운동)을 펼치는 부산 배재학원 생도들이 필상대를 조직하여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붓을 팔아 경비에 충당하니 유지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런가 하면 1934년 8월 28일에는 필상이 형사로 가장한 괴한에게 강도를 당한 기사도 있다.

5)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 인귀설화

6) 「동아일보」, 1932. 7. 30.

III. 필상에서 필방으로

1. 전주일원 필장과 필방의 분포

연필, 펜 등의 필기도구가 들어오기 전에 붓은 일상의 필기도구로 일반 가정에서부터 관청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였다. 이러한 붓의 대표적인 생산지는 광주 무등산자락 백운동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붓을 진다리붓이라고 한다.⁷⁾ 한 때 백운동 필방골에는 50여명의 필장들이 있었으며, 이들의 모임인 필장계도 있었다고 한다.⁸⁾ 이곳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필장도 여럿 있었지만, 지금은 붓의 수요처가 줄어 몇 명의 필장이 있을 뿐이다.

전주에도 여러 필장들이 있었겠지만, 전해오지 않아 어디에서 어떤 필장들이 활동했는지 다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필장 집안과, 그들이 기억하는 필장들이 있다.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충청도 천안에서 필상을 하다가 완주군 신리로 이주해 붓을 만들어 팔았던 곽준팔씨(1971년경 74세로 작고)가 있다. 전주에서 이조필방을 운영하고 있는 필장 곽종찬씨의 부친이다. 채주봉씨(89세)에 의하면 완산동 용머리고개의 최도숙이라는 필장이 오랫동안 붓을 만든 알아주는 필장이었으며,⁹⁾ 중인리 주씨들이 동네에서 붓을 만들었다고 한다.¹⁰⁾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필장으로는 곽준팔의 아들 이조필방의 곽종찬씨(61세)가 있으며, 동산촌에서 붓을 만들다가 대전으로 이주해 백제필방을 운영하고 있는 필장 장대근씨(58세)가 있다.¹¹⁾ 전남 함평에서 이주해 김제 모악산 금산사 앞에서 금산필방을 운영하고 있는 채주봉씨(89세)도 그 선친으로부터 이어온 것은 아니지만 필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에 행상 형태의 필상에서 지금과 같은 가게형태의 필방이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이다. 풍남문 안쪽에 자리한 고려필방(고려당필방)이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필방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이때쯤 해서 송가종이로 유명한 송지방이 도청 옆에 문을 열었던 것

7) 백운동의 옛 지명이 진다리이다. 한편 벼루는 대천 백운산석이 좋다. 백운산석 벼루는 옛날에 선비들이 물 없이 갖고 다니면서 썼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먹은 울산과 서울에서 고급 먹이 생산된다고 한다.

8) 채주봉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9) 채주봉씨에 의하면 최도숙씨는 40~50년간 붓을 만들었으며, 30여년전쯤 작고했다고 한다. 곽종찬씨도 완산동고개에 광주에서 와서 붓을 만드는 젊은 사람이 있었다고 기억 하였다.

10) 전주 일원은 아니지만 익산 황등에서는 유씨들이 붓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붓 수요가 많아서 운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집집마다 부업으로 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채주봉씨 구술)

11) 장대근씨는 본래 상관(지금의 색장동)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그 조부때부터 붓을 만들었는데 동네에서 만들지 않아서 사람들이 털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장대근씨 부친을 털 장사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다.

으로 보인다. 전주에서는 고려필방과 송지방이 가장 오래된 필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필방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송지방은 문을 닫은지 10여년이 넘었다.¹²⁾

1970년대 후반 이후 풍남초등학교 길 건너 이조필방이 문을 열었으며 현재도 그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자필방, 성지필방, 문산필방 등이 있었다.¹³⁾ 청자필방은 고려필방 집안간인 임씨들이 운영하였는데, 시청 옆 대한통운 사거리부근에 청자페인트 가게를 내고 그 한 칸에서 필방을 운영하다가 객사부근으로 이전하였으나 몇 년 안돼 문을 닫았다.¹⁴⁾ 성지필방은 충경로(동서관통로) 변에 있었으며,¹⁵⁾ 문산필방은 다가고 못미쳐 충경로 우측으로 있었다.¹⁶⁾

2.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고려필방

풍남문 안쪽에 위치한 고려필방(高麗筆房, 高麗堂)이 1960년대에 문을 연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필방이라고 이야기된다. 고려필방 건물이 2층의 일제 건물로 예전 임치과 건물이라고 하는데, 1962년도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전주상가지도에 고려필방이 나오지 않고 임치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이후 고려필방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1960년대 말경 고려필방이 문을 연 것이 아닌가 한다.

고려필방 주인은 오홍석(吳泓錫, 이전 이름 吳東鎬)씨로 전주 흑석골에서 한지공장을 운영하면서 고려필방을 운영하였다. 오홍석씨는 또 골동품도 취급하였다. 그런데 오홍석씨가 고려필방을 차리기 전부터 남부시장 송약국 부근에서 자리를 펴놓고 붓을 팔았다고 한다. 이때가 50년대 후반으로 고려필방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고려필방이라고 써 놓고 붓을 팔았다는 것이다.¹⁷⁾ 그렇다면 고려필방의 연원은 필상의 형태이지만 더 오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홍석(오동호)씨는 완주 동상면 사람으로 6. 25 때 피난 나와 흑석골에 정착해 한지공장을 크게 운영하였다. 그 선친 때부터 제지업을 하였으며, 15세 때 약 3년간 초지를 하였으며, 도침공정에서 손을 찌어서 중단했다. 1953년에서 1975년까지 제지공장을 경영하

12) 후에 송우석씨의 아들 송제천씨가 서울 인사동 거리에 송지방 매장을 내었다. 송제천씨가 울초 작고하였고 현재 그 딸과 사위가 운영하고 있다.

13) 이하의 내용은 광종찬씨와 장대근씨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

14) 전주지역의 필방을 이야기하면서 임지방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 청자필방을 두고 임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15) 성지필방은 젊은 사람이 운영하였는데 3년정도 있다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16) 천변 못미쳐 우측 흰건물이 문산필방 자리라고 한다.

17) 이는 필장 광종찬씨가 구술한 것이다.

었는데, 문화제지라고 하다가 62년에 문산제지(文産製紙)로 개명하였다.¹⁸⁾ 효성흑석마을이 파트 자리가 문산제지 터이다.¹⁹⁾

흑석골 한지공장에 한 때 공장이 13개였는데 이 중 7개가 오씨들이 운영하였다는 말이 있다. 흑석골에 그만큼 동상면에서 이주해 한지를 뜨는 오씨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오홍석씨는 흑석골에 한지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세를 놓아 운영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취급한 오당지가 서예인들에게 큰 인기였다고 한다. 오당지는 원당리 오수업씨가 만든 종이로, 이 종이를 가져다가 고려필방에서 팔았다고 한다.²⁰⁾ 고려필방은 흑석골에 한지공장들을 세 놓고 필요한 한지를 뜨게 하여 이 종이를 고려필방에서 가져다가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홍석씨는 7, 8년전 쯤 작고하였고, 현재는 고려필방을 셋째 며느리인 문지연씨가 운영하고 있다. 문지연씨가 고려필방의 일을 본지 26년째인데, 문씨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직원이 3명이었고, 전국적으로 종이가 나갔으며, 하루 종일 포장 짐을 싸고 시숙이 한 달에 보름은 출장을 나가야 할 정도로 상황이었다. 서예대회 등을 앞두고는 한 밤중에도 예술가들이 종이를 구하기 위해 고려필방을 찾았다.²¹⁾

전주서화의 역사를 담은 오랜 연원의 2층짜리 일제 건물인 고려필방 건물이 철거되었다.²²⁾ 고려필방은 바로 그 옆에 있던 보훈지청으로 옮겨 간다고 한다. 비록 고려필방의 상호는 남아 있지만, 필방 건물의 철거는 아쉬움이 남는 일이다. 전주를 서화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연원 깊은 고려필방 건물을 매입, 보존하여 전주의 서화 관련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3. 필상의 가업을 이은 이조필방

이조필방(李朝筆房)은 풍남초등학교 구정문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완산구 중노송동 504-11) 모필장 곽종찬씨가 운영하는 필방으로 여기에서 필방을 운영한지 34년 되었다고 한다.

곽종찬(郭鐘贊, 1951년생, 61세)씨 출생지는 충청도 천안삼거리로 어려서 신리(상관면

18) 조형균, 「한지의 뿌리를 찾아서(15) -제2회 전주지방 편(중)」 『製紙界』 1990. 7, 18~21쪽. 이 글에 보면 1962년에 문산제지의 연혁을 기록해 놓은 병풍사진이 실려 있다.(20쪽)

19) 흑석골에서 호남제지를 운영한 천양제지 회장 최장운씨 구술. 이 내용은 2005년 필자가 전주 흑석골일원, 완주소양일원 한지유적 조사에서 채록한 것이다(『전주한지 유적지조사』, 전주시·전북역사문화연구소)

20) 지금은 오수업씨의 딸이 팔복동에서 한코리아라는 한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21) 현재 고려필방을 운영하는 문지연씨의 기억이다.

22) 4월 녹취 때만해도 고려당건물이 있었다.

지서 뒤 신평마을)로 피난 내려와 정착하였다.²³⁾ 그의 집안이 붓을 만든 것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였으며, 본격적으로 붓을 만든 것은 그의 부친 곽준팔씨 때부터였다. 곽준팔씨는 필상으로 6.25 때 난리를 피해 완주군 신리로 피난하여 필상을 이어갔다.

곽준팔씨 집은 필상이 잘되어 신리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한다. 곽종찬씨의 기억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양 손에 두보따리 들고 등허리에 한보따리 지고 그 위에다 한보따리 올리고 나가면 한 삼일만에 다 팔고 왔다고 한다. 충주, 청주, 서울 등 전국 안다닌 데가 없었으며, 소매상들에게 물건을 대 주었다고 한다.

지펜이 나오면서 붓의 수요가 줄어 위기를 맞기도 하였는데 이때의 일을 곽종찬씨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신리서 만들면서 그때 지펜(붓펜)이 막 나와 가지고 지펜이 이기나 붓이 이기나 싸울 때죠. 지펜이 붓 대용으로 쓰는거 넓적헌겨. 근데 그것이 쓰기가 편하니까 그걸 썼지 붓은 멀리하고. 근데 아버님은 언젠가 지펜이 들어간단, 지펜은 당분간이다, 그래서 일꾼들을 일곱 명을 두고 계속 물건을 해서 쟁였죠. 지펜 나왔을 때가 한 61년도나 되는가

그래가꼬 지펜하고 싸우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펜이 얼마 안돼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붓을 썬아는 놈이 왕창 나갔지. 막 방으로 천장 당게 썬아놔있거든요. 그 놈 가지고 나가면 이틀 사흘이면 너댓보따리 다 팔아가꼬 왔응게. 그니까 아버님 말씀이 맞았지 아니나 다를까 지펜은 자연미가 없고 연필 쓰는 식으로 쓰는것 뿐이지 붓 같이는 안나오죠. 그래서 얼마 안가서 지펜이 들어가고 붓을 세웠지.

— 곽종찬씨 구술

이후 이리로 이사하였다가 1970년대 초에 곽준팔씨가 74세로 작고하였다. 현재는 그 아들 곽종찬씨가 필상의 가업을 이어 이조필방을 운영하고 있다. 곽종찬씨가 부친을 따라 붓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어려서 부터로 신리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붓을 만드는 것을 거들다가 4학년 때부터 부친이 털을 주어 본격적으로 붓을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호남제일문을 쓴 붓을 곽종찬씨가 만들었다고 하며, 서울 인사동에 붓을 팔러가면 광주 붓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23) 이하의 곽준팔 곽종찬 부자에 관한 것은 곽종찬씨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2011년 5월 채록) 채주봉씨도 곽준팔이 붓을 만들었다고 하였다.(2011년 5월 채록)

서울인사동 물건 가지고 다니면 전주 붓이 광주 붓보다 좋고 싸다고 항상 그랬어요, 인사동사람들이. 그때가 한 75~80년도 었을거여. 흰 고무신을 신고 다녀서 흰 고무신하면 통했다. 전주는 거의가 다른 지역 것을 재료를 안 쓰고 해남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털만 썼거든. 별것 아닌것 같애도 붓 만드는 사람은 알지.

— 곽종찬씨 구술

필장 곽종찬씨는 붓만드는 털로 전라도의 것이 제일 좋으며, 강원도 지역의 털은 거칠어 붓 재료로 안 좋다고 하였다. 광주가 붓으로 유명한 것은 이 곳 전라남북도의 털이 좋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오랜 연륜의 모악산 자락 금산필방

김제 모악산 자락 금산사 앞에 필장 채주봉씨(1923년생, 89세)가 운영하는 금산필방이 있다.²⁴⁾ 전라남도 함평이 고향으로, 1945년 광복 후 김제로 이주해 왔으며, 39년 전쯤 지금의 금산사 앞으로 이주해 금산필방을 운영해 오고 있다.

고향에서 한학을 공부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어깨너머로 붓 만드는 것을 배워 붓을 만들어 파는 필상으로 돌아섰다. 23세 때 종교에 헌신하면서 함평 웃동네의 필장에게서 붓 만드는 것을 처음 배웠다. 그가 필상을 하다가 금산사로 정착한 것도 금산사 미륵신앙을 따라 온 것이라고 한다.

필상으로 바구니에 재료를 담아 등에 지고 걸어서 서당 약방 등을 찾아 다니면서 붓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²⁵⁾ 10월부터 반년정도 필상으로 붓을 팔러 다녔으며, 도보로 전라남북도 서당이란 서당은 다 다녔다고 한다. 필상 수입이 꽤찮아 반년만 일을 해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붓의 수요가 줄면서 필상을 그만두었으며, 그러면서 금산사 앞에 정착하여 필방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전에는 서당 방에서 행상을 했지. 행상이란 재료를 가지고 서당에 가서 붓을 만들어 준거. 즉석에서 찾아가서 하룻저녁 잠서. 전라남북도는 거의 다 거쳤을 거여. 도보로 걸어서. 직접 즉석에서 만들어 준 게 얼마나 실감날 것이여. 팔일오 해방 허고 육이오 전쟁

24) 이하의 채주봉씨에 관한 내용은 2011년 5월에 구술을 채록한 것과, 『문화저널』(2009년 3월)에 실린 구술채록 기사(김승민 정리, 유백영 사진, 「금산필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25) 채주봉씨가 필상 때 썼던 바구니와 도구주머니 등이 남아 있다.

허고 서당이 딱 끊겨 버리드라고. 없어져 버리고 지금 시방은 어디 서당이 있들 았혀. 어디 갈디가 없드라고.

— 채주봉씨 구술, 『문화저널』 (2009. 3)

IV. 전주한지와 ‘송가 종이’

1. 전주한지

문방사우 중 종이의 대표적 생산지는 전주라고 할 수 있다. 전주는 한지 생산을 대표하는 곳으로 질 좋은 많은 한지를 생산하였으며, 서화지의 경우도 이곳에서 생산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공급되었다. 이 같은 질 좋은 서화지의 생산이 전주지역 서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전주일원의 한지 생산지를 보면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동상면 등 도처에서 종이를 떼었다. 전주도심의 경우 전주천을 끼고 한지를 뜨던 지소들이 있었고, 흑석골에 한지공장들이 집결되어 있었다. 19세기 전주고지도에 전주부성내 전라감영, 전주부성 서문 밖 도토리 골, 상관 신원(신리역) 부근에 지소가 나타나 있고, 19세기 남고산성 도형에도 남고사 아래 지소가 그려져 있다.

상관 쪽에 질 좋은 닥나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으며, 1980년대만 하더라도 상관에 백산바우 지소를 비롯하여 8개의 한지공장들이 운영되었다. 이러한 상관일원을 전주한지의 뿌리로 보는 경우도 있다. 작고한 고려필방 오홍석씨는 전북일원의 한지 최대 생산지로 상관면과 구이면을 들었다.

한지골로도 불렸던 흑석골은 한국전쟁이후 한지공장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곳으로, 이전에는 전주제지 한곳만이 있었다. 전주제지는 곧 송지방의 주인 송우석씨가 운영하던 한지공장이다. 고려필방의 주인 오동호씨는 6.25 때 동상면에서 피난나와 이곳에 정착해 한지공장을 차렸으며(문산제지), 지금 천양제지를 운영하는 최장윤씨(1930년생)가 1968년 흑석골에 호남제지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전주제지는 현재 효성흑석마을아파트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이 아파트와 그 옆의 넓은 대지가 오씨들이 운영하던 한지공장들이 분포했던 곳이며, 그 위로 올라가 호남제지가 자리하였다. 현재는 전주제지가 고궁한지로 바뀌어 유일하게 한지를 뜨고 있다.

전주에서 질 좋은 서화지가 생산된 데에는 제지술의 발전도 있지만, 이곳에서 나는 닥나무가 서화용에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장 곽종찬씨는 전라도 닥이 섬유질이 많아 글씨 쓰기에 좋다고 하였다.

전라도 쪽이 좋아요. 섬유질이 더 많아요. 경상도 치는 섬유질이 좀 적고 경상도 치는 먹이 안 받는 초같은 그런 진이 나와요 좀. 그래서 잘못하면 글씨를 쓰면 먹이 안 묻어서 희끗희끗하게 약품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송지방의 후에 지장 송제훈씨는 전라도 닥의 섬유질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으며, 짧고 기공이 적어 서화용으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반면 경상도쪽 닥은 빨리 자라 섬유가 굳고 길며, 이를 말리면 질겨서 물건을 만드는 가공지로 적절하다고 하였다.²⁶⁾

2. '송가 종이', 송지방

서화가들 사이에 명성이 높은 '송가(宋家) 종이'로 널리 알려진 송지방(宋紙房)은 5대째 제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지의 명가이다. 송지방의 가업은 작고한 지장 송우석(宋禹錫, 1923년생)의 증조부 우천 송주완(愚泉 宋柱完)이²⁷⁾ 조선말 고종 때 참봉벼슬을 하다가 낙향하여 오목대 밑에(풍남동 3가 5번지) 지소를 차린데서 비롯되었다.²⁸⁾

송우석의 조부 송길환(宋吉煥)은 구 전주우체국 앞에서 「전주지물상회」를 경영하였다. 지물포는 1937년에 폐업하였다. 부 송기헌(宋基憲)은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에 제지공장을 옮겨 특히 태지(苔紙)의 생산에 힘을 썼다. 그는 조선중기 순창지방에서 생산되다가 사라졌던 「태지(苔紙)」를 재현했으며, 태지를 사용한 「태지 봉투」와 「태지 두루말이(苔周紙)」를 만들어 당시 전라북도 산업장려관을 통하여 생산량의 80%를 일본으로 수출하였다.²⁹⁾

태지란 빗물로 씻기우는 시내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끊임없이 생수가 솟는 우물이나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곳에 달마다 생겨나는 태(이끼)로 과랴게

26) 송제훈씨 구술, 2011년 5월 녹취.

27) 조선말 송지방의 창업자의 이름이 기존의 글들에 송승완이라고 많이 나오고, 또 송길완이라고도 나온다. 그런데 조형균의 앞의 글(23쪽)에 '창업자의 자필 현판(愚泉 自書)'라고 하여 현판 사진이 실려 있는데, 현판 끝에 이름이 송주완으로 나오고 '우천'이라는 낙관이 새겨져 있다.

28) 조형균, 앞의 글, 21~22쪽. 최승범의 글에는 송지방 위치가 풍남동 17번지로 되어 있다.(최승범, 「전통예술 산업의 고장 -예향 전주를 찾아서」, 1988년경)

29) 조형균, 앞의 글, 22쪽.

물이 오른 이끼를 채취하여 지료와 혼합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³⁰⁾ 태지는 서화인들이 애호했던 종이로 송지방의 대표적 한지이다. 지금은 태를 구하지 못해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송우석은 전주 제1보통학교와 일본 나가사키 중학을 졸업한 그해 1941년 4월부터 한지 일에 뛰어들었다. 8·15 해방과 더불어 현재의 흑석골(평화동 1-211)로 공장을 옮겨 전주제지공업소라고 하고 그의 부친과 함께 한지공장을 운영하였다.³¹⁾ 전주제지는 흑석골을 한지골로 육성하는 모태가 되었다.

한지 기술자로 이름이 나면서 송우석씨는 1965년에는 전라북도 한지공업협동조합의 한지 초지공양성강습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³²⁾ 가업으로 이어진 태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용 편지지로 쓰여지기도 했고, 송우석씨가 대만에 보낸 태지는 그 부드러움과 따뜻함에 장개석 총통의 부인 송미령 여사로부터 감사의 편지로 보답받기도 했다.³³⁾

송우석씨는 특히 초지공 강사로 활동한 이후 특수지 개발에 더욱 전념하여 마침내 옛날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던 화선지를 연구 개발하는데 성공했고 1957년에는 발명특허(256호)를 받았다.³⁴⁾ 한지에 실을 먹인 새로운 한지도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에도 일본 대만을 넘나드는 끊임없는 연구와 상품개발에 힘을 써 1976년에는 갈대를 이용한 화선지를 새로 개발하여 ‘송가종이’의 영예를 이루었다.³⁵⁾

초지장 송우석씨는 마침내 전북무형문화재 16호(1997. 7.18 지정) 공예기술분야 한지장으로 지정되었다.³⁶⁾ 안타깝게도 한지장으로 지정된지 얼마 안 되어 작고하여 1999년경 무형문화재에서 해지되었다.

송지방은 송우석씨가 구 도청 사거리 문우당인쇄소 우측(사립문다방 좌측) 현 삼성측기사 자리에 마련한 작은 필방이다. 그 시점은 1960년대 후반경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전주에서 오래된 필방으로 고려필방과 함께 송지방을 꼽는다. 송지방의 송가종이는 이당, 소정, 소천, 운보 등의 화가들이 “야 송가종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을 정도로 그 명성이 서울 장안에 자자했다고 한다.³⁷⁾

그러나 한지산업이 쇠퇴하면서 송지방의 운영이 어려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30) 원도연, 「전주의 마지막 지장 송우석씨」 『문화저널』 (1996년 7월호).

31) 조형균, 앞의 글, 21쪽.

32) 조형균, 앞의 글, 23쪽.

33) 원도연, 앞의 글.

34) 조형균, 앞의 글, 23쪽.

35) 원도연, 앞의 글.

3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紙匠 및 네이버 백과사전.

37) 조형균, 앞의 글, 25쪽.

그가 운영해온 「송지방」은 이제 그저 운영해 나가는 것만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몇 년전부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질 않지만 전통한지를 되살리는 길은 묘연하기만 하다. 거기에 환경 폐수 때문에라도 전통적인 수공으로 한지를 생산해낼 수가 없고, 85년부터는 값싼 중국산 한지가 밀려들면서 ‘송가종이’는 지금껏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문화저널』 1996년 7월호

그리하여 전주 송지방은 1990년대 후반에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³⁸⁾ 현재는 서울 인사동 송지방 만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 송지방을 차린 사람이 송우석씨의 아들 송제천(宋濟天)씨이다. 그는 서강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중 70년대 중반 부친의 전주제지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몰리자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지업에 뛰어들어 5대째 가업을 이었다. 부친 밑에서 공장 일을 배우다가 전주에는 판로가 한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1976년 서울에 매장을 내었다.³⁹⁾ 현재의 인사동의 필방 송지방이 그것이다. 송제천씨도 올 초 작고하여, 현재는 그 딸 내외가 송지방을 운영하고 있다. 가업을 이어 송제천씨의 아우 송제훈씨가 종이를 뜨지만, 현재 특별한 한지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송제천씨는 생전에 김제에 한지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 이었다고 한다.

V. 맺음말

붓을 만드는 장인을 필장(筆匠)이라고 하고, 붓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필상(筆商)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개 필장이 붓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팔러 다니므로 필장은 곧 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필방이 등장하기 전에는 필상들이 장날 장터에 나가 붓을 판매도 하였지만, 서당·약방 등 수요처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붓을 만들어 팔았다. 필상은 문방사우를 다루므로 어느 정도의 식견이 필요했으

38) 송지방이 있던 곳에서 한블록 떨어져 있는 전라일보 도로 건너 맞은 편 보천당표구사에 보면 건물 중앙 기둥에 ‘송지방’이라는 큰 글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도청 옆 송지방의 물건과 상호까지 보천당 표구사에서 인수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표구사의 이야기를 빌리면, 당시 송지방에서 부채를 많이 팔았고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송지방이라는 상호를 붙여 놓았다고 한다.

39) 「매일경제신문」, 1994. 1. 15. 프로시대 ‘대를 잇는 사람들’. 송우석씨의 인터뷰 기사로 인물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며, 당시 나이는 45세였다.

며, 식자층을 상대하여 일반 행상들과는 대우가 달랐다.

전주일원의 필장으로는 6,25 때 천안에서 완주군 신리로 피난 내려와 붓을 만들어 팔았던 곽준팔씨가 있었다. 또 완산동 용머리고개의 최도숙이라는 필장이 붓을 잘 만들었으며, 중인리에서 주씨들이 동네에서 붓을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조필방의 곽종찬씨가 그 부친 곽준팔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관출신 장대근씨가 필장으로 대전에서 백제필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모악산자락에서 채주봉씨가 금산필방을 운영하면서 필장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에 행상 형태의 필장에서 지금과 같은 가게형태의 필방이 등장하는 것은 1960년대이다. 풍남문 안쪽에 자리한 고려필방(고려당)이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필방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동상면에서 피난 나와 흑석골에서 한지공장을 경영하던 오홍석씨가 1960년대 후반경에 고려필방을 열었으며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고려필방에 이어 '송가종이'로 유명한 송지방이 송우석씨에 의해 도청 옆에 문을 열었다. 송지방은 5대째 한지업을 이어가고 있는 한지 명가로, 오목대 아래에서 처음 한지공장을 열었으며 이후 구이면으로 옮겼다가 광복 후 흑석골에 자리하여 전주제지공업소라고 이름하였다. 그리하여 전주제지는 흑석골을 한지골로 발전시킨 모태가 되었다. 맥이 끊긴 태지를 재현해 송가종이의 영예를 이루었으며, 화선지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송지방은 한지산업이 쇠락하는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1990년대 후반경에 문을 닫았다.

1970년대 후반 이후 필장 곽종찬씨가 풍남초등학교 길 건너에 이조필방을 열었으며 현재도 그 자리에서 필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객사부근의 청자필방, 충경로변의 성지필방, 다가고 못 미쳐 문산필방 등이 있었다. 청자필방은 고려필방 오홍석의 집안인 임씨들이 청자페인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한 칸에 필방을 차렸었다.

전주는 한지 생산을 대표하는 곳으로 서화지의 경우도 이곳에서 생산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공급되었다. 즉 문방사우 중 종이는 이곳 전주가 대표적 생산지이며, 이 같은 질 좋은 서화지의 생산이 전주지역 서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붓의 경우 광주가 대표적 생산지이지만 전주일원에도 필장들이 있었으며, 그 후예들에 의해 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서화의 고장을 공고히 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필장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림 1. 고려필방



그림 2. 고려필방 오홍석씨(『제지계』, 1990.7)



그림 3. 문산제지 연혁 병풍(1962.4 작성, 『제지계』, 1990.7 수록)



그림 4. 송지방(삼성측기사 자리)



그림 5. 지장 송우석씨(『제지계』, 1990.7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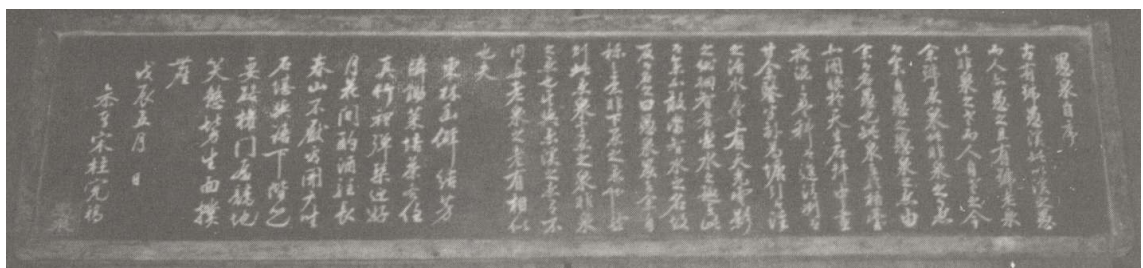


그림 6. 송참봉 자서(『제지계』, 1990.7 수록)



그림 7. 보천당포구사(송지방)



그림 8. 송지방 후에 송제훈씨



그림 9. 이조필방



그림 10. 이조필방 박종찬씨



그림 11. 필장 장대근씨



그림 12. 필장 장대근씨 작업대(대전 백제필방 내)



그림 13. 장대근씨 붓 제작 도구



그림 14. 금산필방



그림 15. 금산필방 채주봉씨



그림 16. 필장 채주봉씨 붓 제작 도구 주머니1



그림 17. 필장 채주봉씨 붓 제작 도구 주머니2



그림 18. 필장 채주봉씨 붓 제작 도구 주머니3



그림 19. 필장 채주봉씨 필상 바구니

전주 전통예능의 산실, 행원에서 백번집까지

송화섭*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한국 전통예술의 산실, 전주 |
| II. 조선시대 사회풍속의 변화 | V. 맺음말 |
| III. 전통예능의 맥, 행원에서 백번집까지 | |

I. 머리말

2005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에 전주시민의 문화지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다. 전주시는 전국 74개 시(市) 단위와 비교했을 때, 문화유산 지수가 최상위등급으로 타 시지역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높은 도시(1위)로 평가받았다. 문화유산 영역에서 전주시의 무형문화재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 74개 시(市) 가운데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주시와 유사한 전통역사문화도시(경주, 안동, 남원, 익산, 공주, 김해)와 비교해 본 결과, 전주시는 문화유산 지수, 문학·예술지수, 대중문화 지수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전주의 문화유산 지수와 예향이미지는 무형문화재 분야와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다.¹⁾ 전국 74개 시 가운데 전주시의 무형문화재²⁾ 향유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것인데, 이러한 문화예술의 지수는 하루아침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전통예능의 토양에서 피어난 것이다. 전주 전통예술의 토양은 역사적으로 후백제까지 올라갈 수 있으

* 전주대학교 교수

1) 문화관광부전주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 기본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56~58쪽

2) 무형문화재는 춤, 소리, 몸짓 등 연극, 공예, 기술, 놀이 등 형태가 없는 인간의 예능 및 기능을 말한다. 정부의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물질적으로 보존할 수 없는 정신적 창조물인 무형문화재의 예능보유자를 법적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나, 실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은 근현대 과정이다.

한국사에서 전통예술이 화려하게 꽃피우기 시작한 것은 영조(1724~1776), 정조(1776~1800)대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문예부흥기라 부른다. 조선 후기 문예부흥은 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회화, 음악, 학술, 문학, 도자, 서예 등 무형문화 분야를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방식이었다. 조선 전기의 문예부흥은 왕족과 양반 중심의 문예풍이었다면, 영·정조 연간의 문예풍은 중인과 신·흥부민, 서민 중심의 취향이었다³⁾. 문예부흥의 배경은 양반 이후 사회 안정, 장시(場市)의 발달, 실학(實學)의 성행, 화폐의 사용 등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조선 후기는 문예의 중심은 지배층에서 피지배층으로 이동하면서 장악원(掌樂院), 도화서(圖畫署) 등 국가기관이 뒷받침하였으며, 문예부흥의 주도층이 형성되었다. 전통예능의 주도층은 판소리와 풍속화가 발달하고, 누정에서 시회(詩會)를 즐기고, 주점에 드나들고, 기생들과 야유를 즐기는 풍류문화가 사회전반에 성행하였다.

이때에 전라감영과 전주부영이 위치한 전주는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전통예능의 중심이었다. 조선시대 전주의 풍류공간은 만화루, 진남루, 한벽루, 쾌심정 등 누정(樓亭)⁴⁾과 문학대, 가락대, 만경대 등 돈대(墩臺)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었고, 전주부성 안팎 곳곳에 사대(射臺)가 설치되어 있었고,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신분 요건도 갖추고 있었다. 조선시대 전주가 전라도에서 남원 다음으로 문과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것도 그러한 요건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풍류문화가 「전주대사습」을 태동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사습의 핵심은 궁술과 판소리와 백일장이었다.

이 글은 전주 풍류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근현대(일제강점기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근현대 사회변천 과정에서 전통예술의 주도층과 향유층이 어떠한 공간에서 풍류문화를 즐겼는가를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전통예능의 중심은 권번(券番)에 있었다. 권번은 조선시대 교방이 해체되면서 생성된 기생조합이다. 1923년 전주권번이 설립되면서⁵⁾ 예능의 공간이 요정도 활기를 띤다. 권번은 예능의 교육공간이라면 요정(料亭)은 향유 소비하는 공간이었다. 1943년 전주의 대표적 요정인 「杏園」⁶⁾이 들어서면서 전통예능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해방 이후 6.25동란을 겪는 과정에서 요정을 닮은 백번집같은 한정식⁷⁾ 전문점이 태동하면서 예능문화가 현대적으로

3)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그 닮은 예술세계』 효형출판, 2000, 13쪽

4) 『完山誌』樓亭篇 參照

5) 황미연, 『전라북도 권번의 운영과 기생활동을 통한 식민지 근대성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2010, 110쪽

6) 행원(杏園)은 낙원(樂園)의 자리에 그 이름과 흡사한 ‘살구나무 편 정원’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하였는데, 이 행원의 명칭은 전주라는 도시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갖게하는 깊은 뜻을 갖고 있다.

7) 요정(料亭)과 한정식(韓定食)은 동일한 음식점처럼 보이지만, 성격상 차이가 있다. 요정은 일제시대 권번에서 기생이

계승되었다. 이 글에서 부제를 ‘행원’에서 ‘백번집’까지로 선정한 것도 전통예능의 공간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행원에서 백번집으로 이어지는 전통예능의 맥을 짚어 전주 풍류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사회 풍속의 변화

1. 조선전기 사대부의 은일문화(隱逸文化)와 누정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경전과 사서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문학적 소양이 높았다. 유교가 윤리·도덕을 근본으로 하듯이 문학에서도 도가풍(道家風)의 시문(詩文)을 짓는 경향이 강하였다. 과거시험의 영향도 있겠지만, 선비문화에서 사장(詞章)이 풍미하면서 수양을 통한 자기완성보다 문예를 과시하여 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문예를 두고 훈구파와 사림파의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명분론에 그친 것이지 시문을 짓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훈구파들은 선비들이 성리(性理)의 학(學)에만 매달리고 사장의 아름다움을 숭상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반면, 사림파들은 사장이 도덕에 근본을 두지 않고 사조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유가(儒家)의 도(道)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⁸⁾. 조선 전기에 사장학(詞章學)이 발달하고 사대부의 문예 능력은 일취월장하였다.

조선 전기 사대부의 신분은 ‘중소지주 출신의 관인’이 많았다. 지방에서 경사의 학문적 소양을 쌓고 과거급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다가 정치와 관리 생활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낙향하여 초야(草野)에 묻혀 은둔생활을 즐기는 유학자들이 많았다. 사대부가 향촌으로 내려가 심산유곡에서 한가로이 전원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산수화에 묘사되어 있다. 산수화에는 한 선비가 호젓한 산간 계곡에서 자연을 벗 삼아 심성을 수양하는 듯한 그림이 많다. 그러한 강호한정(江湖閒靜)의 생활을 동경하는 의미에서 그려진 산수화도 있겠지만, 16세기에 낙향하여 누정에서 사대부의 은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도 있다고 본다. 그림은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예 창조의

출장을 나와 주연(酒宴)에 참석하는 방식이라면, 한정식 전문점은 해방 이후에 권번(券番)의 해체에 따라 기생이 없이 주연음식을 파는 식당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정식 집도 요리집으로 불리지면서 요정의 전통을 잇는 풍조가 강한 곳이다.

8) 林煥澤,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97, 37쪽

중심이 중앙의 관학(官學)에서 지방의 사림으로 이동하면서 서원(書院)이 발달하고 누정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도학의 전당이고, 누정은 문학예술의 산실이 되었다⁹⁾. 조선시대에 거듭되는 정쟁과 사회로 관료생활에 환멸을 느낀 사대부들이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고 참됨을 지킨다(遁世以保眞).”¹⁰⁾ 명분을 내세워 귀향하여 은둔생활을 의로운 선택과 실천이라고 판단했었다. 낙향한 선비들은 처사로서 승경이 좋은 정자에서 사회를 열고 술 한잔에 흥이 취하면 시문을 짓고 시조를 풍류문화를 연출하는 주체들이었다. 누정은 선비들이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예의 산실이기도 했다.

누정은 루와 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루(樓)는 자연의 절경을 갖춘 산간 계곡(溪谷)의 암벽을 배경으로 산수 수려한 곳에 정자를 조성하는 방식이며, 정(亭)은 자신이 거처하는 주거지 인근의 절경지에 정자를 세우고 연못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누정의 주체는 조선시대에 지방관리와 낙향한 사대부, 유학자들이었다. 관가형 누정(官亭)은 지방관리들이 중앙의 관리, 사신, 지체 높은 빈객을 접대하는 장소, 혹은 지방세도인들이 사회와 풍류 모임¹¹⁾을 하는 공적인 공간으로 읍성 내외에 조성되는 관 주도형의 누정이다. 경복궁의 경회루, 진주 남강변의 축석루, 남원의 광한루, 밀양 영남루 등이 이에 속한다. 사가형 누정(私亭)은 심산유곡의 계곡계류가에 조성되는 정자로서, 중앙으로 진출한 관리가 낙향하여 은자(隱者)로 생활하면서 자연과 벗하며 독서하고 시를 짓고, 강학하는 공간으로 활용한 민간 주도형의 누정이다.

전주에는 세 유형의 누정이 있다. 첫째, 성문의 문루이다. 문루는 부성의 성문위에 위치한 문루이다. 전주부성 사대문에 문루가 조성되었는데, 풍남문의 명건루, 패서문의 문루, 완동문의 문루, 공북문의 문루이다. 전라도 관찰사 조현명이 쓴 풍남문의 「明見樓記」에는 전주성을 견고하게 보수하고자 1734년 5월 9일 전주 성황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옛 성을 철거한 뒤에 다시 개축하면서 무지개 모양의 문루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패서문의 문루도 1734년에 명건루와 동 시기에 누각을 세웠으며, 완동문과 공북문의 누각은 1775년 관찰사 서호수가 중건하면서 조성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전주부성의 문루는 1734년에서 1775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관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한 관정(官亭)이다. 관정은 전주부성의 안팎에 조성되어 있다. 진남루(鎭南樓)는 공관(公館)의 후원¹²⁾에 위치하였는데, 1409년 전라감사 겸 부윤 윤향이 창건하고 1441년에 부윤 한승순이 중수하였다. 진남루에는 관찰사 윤향

9) 임형택, 앞의 책, 391쪽

10) 洪善杓, 『朝鮮時代繪畫史論』 문예출판사, 2004, 217쪽

11) 허균, 『한국의 누정』, 다른세상, 2009, 14쪽

12) 『완산지』 루정조에는 풍패관 북쪽 조산 뒤에 있다고 기술하였다.

(尹尙)¹³과 허주(許周)¹⁴가 지은 시액(詩額)이 걸려 있었다. 매월정(梅月亭)은 객관의 동북쪽 구석에 위치하였는데, 성종14년(1483)에 부윤 이봉(李封)이 창건하였다¹⁵. 관찰사 이숙감(李淑槭)의 시문, 문신 허침(許琛)¹⁶의 시문, 문신 신용개(申用溉)¹⁷의 시액이 걸려있었다. 녹균정(祿筠亭)은 관아의 북쪽에 위치하였는데, 1367년 목사 한계상(韓系祥)이 정자를 바꾸어 루(樓)라 하고 이달충(李達衷)이 편액을 바꾸어 관풍루(觀豐樓)라 하였다. 제남정(濟南亭)은 성의 남쪽 시내위에 있다. 홍여방(洪餘方)의 기문에 “東川 가에 樓가 있고, 한쪽에 고인의 詩板이 있으며, 또한 牧隱¹⁸ 선생이 남겨놓은 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것을 다시 세울 생각을 하였다.”고 기술하여 제남정이 고려 말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공북정(拱北亭)은 부의 서북쪽 5리에 위치한다. 부윤 이번(李蕃)과 통판(通判) 최지(崔漬)가 증건하였다.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¹⁹의 기문에 “조정에서 덕음을 펴고 사명이 있으면, 부윤이 관리들을 인솔하여 의관을 갖추고 이곳에 나와서 경례를 맞이하고, 만약 국왕의 생일이나 국가의 큰 경사, 큰 상서를 만나면 부와 주가 각기 전문을 받들어 대궐을 향해 예를 행하고, 또한 사신을 떠나보내는 곳이다.”²⁰라고 밝히고 있다. 문신 천은당 노사신²¹의 시문, 문신 노포 유순²²의 시문, 어사 김시걸²³의 시액이 걸려 있었다. 내사정(內射亭)은 성내 남쪽에 있고, 부윤 정자제(鄭自濟)가 건축하였다. 쾌심정(快心亭)은 제남정에서 4리가 떨어져 있으며, 신용개, 사검당 이승효 시액이 있었다. 청연당(淸讌堂)은 객관 서쪽에 위치하고, 부윤 강징(姜澂)이 세웠다. 만화루(萬花樓)는 향교에 있으며 김종직²⁴의 시액이 걸려 있었다.

셋째, 사정(私亭)은 사대부와 중앙의 관리가 낙향한 뒤에 자연을 벗 삼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전주에서 대표적 사정이 한벽루이다. 지금은 한벽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한벽루는 집현전 직제학을 지낸 월당 최담이 성황산 서쪽 기슭의 암벽에 세운 누각인데, 전주최씨의 강학 공간으로 겸해서 사용하였다. 1683년 관찰사 이사명(1647~1689)이 별도의 층각을 창건하여 후대에는 관정의 기능도 겸하였다. 한벽루는 전

13) 윤향(1374~1418)은 조선시대 문신, 본관은 파평이다.

14) 허주(1359~1440)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백방, 호는 숙재, 본관은 하양이다.

1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 전주목 루정조

16) 허침(1444~1505)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현지, 호는 이헌, 본관은 양천이다.

17) 신용개(1463~1519) 조선시대 문신, 자는 개지, 호는 이락헌, 본관은 고령이다.

18) 목은 이색(1328~1396)은 고려 말의 문신이고, 유학자이다.

19) 서거정(1420~1488)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강중, 호는 사가정, 본관은 달성이다.

20)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 전주목 루정조

21) 노사신(1427~1498)은 조선시대 문신, 호는 보진재, 본관은 교하이다.

22) 유순(1441~1517)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희명, 호는 문산, 본관은 문화이다.

23) 김시걸(1653~1701)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사흥, 호는 난곡, 본관은 안동이다.

24) 김종직(1431~1492)은 조선전기의 문신

주지도에 5개의 누각이 층각으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는 2개만 존재하고 있다. 전주 팔경가운데 한벽청연의 명소로서 풍광이 수려하여 시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누정의 편액을 살펴보면, 이경전²⁵⁾의 시, 관찰사 유색의 시, 백강 이경여²⁶⁾의 시, 관찰사 박태순²⁷⁾의 시, 관찰사 홍석보²⁸⁾의 시, 퇴어 김진상²⁹⁾의 시, 이랑 이정보³⁰⁾의 시, 관찰사 권적³¹⁾의 시, 관찰사 조현명의 중수기가 걸려있었다. 비비정(飛飛亭)은 1573년 무인 최영길³²⁾이 창건하였으나, 1752년 관찰사 서명구가 중건하니 관정(官亭)이 되었다. 편액에는 서귀 이기발³³⁾의 시, 조여빈의 시, 김호익의 시, 권해³⁴⁾의 시, 판교 홍남립³⁵⁾의 시, 김두명³⁶⁾의 시, 이일상³⁶⁾의 시, 이우성의 시, 관찰사 조세환³⁷⁾의 시, 관찰사 이사명의 시, 관찰사 유득일³⁸⁾의 시, 우암 송시열의 기문이 걸려있었다. 죽수정(竹藪亭)은 가련산 아래에 있었고, 다가정(多佳亭), 진북정(鎭北亭), 군자정(君子亭), 읍양정(邑讓亭), 청수정(淸水亭)이 전주부성 안팎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이 전주 부성의 안팎에 위치한 관정과 사정에 걸린 시액(詩額)을 통해서 조선시대 문인들의 문학세계와 낙향한 사대부들의 생활상을 파악해볼 수 있다.

첫째, 누정은 고려 말 신흥사대부들이 주도적으로 세우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에 중앙관직에 나아간 관리들이 낙향하는 명분을 도연명(陶淵明)이 쓴 귀거래사의 영향을 받고 도시탈출을 실천하여 은둔하면서 살아가는데 흥미를 가졌다. 순창의 귀래정(歸來亭)³⁹⁾과 태인 칠광도의 그림에서 읽어볼 수 있다. 낙향한 사대부들이 향촌으로 돌아가 자연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방식은 현실 도피와 염세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대부들이 은(隱)의 정신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고려 말 사대부 관리들은 자신들의 자호에 은을 넣은 것이 성행할 정도였다. 대표적으로

25) 이경전(1567~1644)은 조선 문신 자는 중집, 서초, 석루이며 본관은 한산이다.

26) 이경여(1585~1657)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직부, 본관은 전주다.

27) 박태순(1653~1674)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여후, 호는 동계, 본관은 반남이다.

28) 홍석보(1672~1729)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양신, 본관 풍산이다.

29) 김진상(1684~1755)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여익, 본관 광산이다.

30) 이정보(1693~1766)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경하, 본관은 안동이다.

31) 권적(1675~1755)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경하, 본관은 안동이다.

32) 이기발(1602~1662)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패우, 본관은 한산이다.

33) 권해(1639~1704)는 조선시대 문신, 자는 개옥, 호는 남곡, 본관은 안동이다.

34) 홍남립(1606~1679)는 조선후기 문신, 호는 화곡, 본관은 남양이다.

35) 김두명(1644~1706)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자양, 호는 만향, 본관은 청풍이다.

36) 이일상(1612~1666)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함경, 호는 청호, 본관은 연안이다.

37) 조세환(1615~1683)은 조선시대 문신, 자는 의망, 호는 수촌, 본관은 임천이다.

38) 유득일(1656~1709)은 조선시대 문신, 호는 귀와, 본관은 창원이다.

39) 귀래정은 신말주(1429~1503)가 처가로 낙향하여 1456(세조2)년에 순창읍 가남리 남산대에 지은 정자이다. 신말주는 신숙주 동생으로 수양대군의 권력 찬탈에 염증을 느끼고 벼슬을 버린채 낙향하였다.

三隱(圃隱 鄭夢周, 治隱 吉再, 牧隱 李穡)을 들 수 있으며, 도은 이숭인, 최죽옹은 농은, 전정당의 야은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⁴⁰⁾.

둘째, 조선 전기 사대부들은 누정의 시액을 통해서 전원적, 도학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이색의 영모정기(永慕亭記)에 “조정에 나아가 벼슬한 즉 논밭이 목계 되어도 돌아보지 않더니 벼슬을 그만두자 처자를 거느리고 돌아가 농사짓고 독서하고 시를 읊으며 나무하는 사람·밭가는 늙은이와 더불어 웃고 이야기하며 권세와 이욕에는 마음이 멀다.”고 표현하여 ‘隱’ 생활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주 매월정 시액 가운데, 신용개의 시에 “매화와 달이 서로 청신함을 다투어 맑은 빛 담담한 모습이 우리의 벗이로다. 달그림자가 天上에 춤추니 고사산(姑射山)에 아가씨처럼 고운 신선(神仙)이 그 아닌가. 눈이 깊으니 달 속 두꺼비는 뼈 속까지 차갑고 바람 탄 무학은 날개가 바퀴처럼 크구나. 나부산(羅浮山)은 고래로 신선(神仙)과 진인(真人)이 사는 곳, 사옹(師雄)으로 하여금 하룻밤을 친하게 한들 어떠하리.”하였다. 신용개의 시에서 당시 사대부들이仙境(仙境)의 세계를 동경하고 시로 읊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누정문화는 18세기 이후에는 점차 소멸되어 갔다. 전주 고을의 누정에 등장하는 시액의 주인공들은 15~17세기에 살았던 사대부와 선비들이며,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와 부윤, 사대부들이 대부분이다. 누정의 시액은 사대부와 지방관리들이 조선 전기의 ‘隱’사상을 향유하고 실천하는 전원적, 도학적 삶의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주 부윤 이백승이 성현에 부탁한 진남루, 제남루의 기문에 “여러 귀빈을 초청하여 술잔을 나누며, 촛불을 들고 밤까지 노는데, 예로서 응수함에는 진남루의 깊은 것이 좋고, 난간에 의지하여 사방을 둘러보고 천지를 부양하여 성정(性情)을 즐겁게 하고, 울적함을 풀기에는 제남루의 넓은 곳이 좋으리라.”⁴¹⁾라 하여 전주 부성의 진남루와 제남루가 풍광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었음을 밝혔다. 이 기문에 사대부와 낙향한 관리들은 누정에서 자연풍광을 관조하면서 시회(詩會)를 갖거나 늦은 밤까지 술잔을 나누는 풍류문화를 즐겼다.

2. 조선 후기 중인·서리의 여향문화와 주점

양란이후 17세기는 사대주의를 기저로 하는 성리학적 인식에서 점차 탈피하여 실학사상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성리학의 전통적 기반에서 점진적으로 실학과 그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역사와 문화에서도 중국문화의 관심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40) 林煥澤, 『韓國文學史의 視覺』, 창작과비평사, 1997, 387쪽

41)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 전주목 투정조

증폭되기 시작하고, 중앙 관료보다 향촌사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한문학의 토양에서 국문소설로 쓰여지기 시작하고, 지식인들이 국토에 관한 관심과 지방지의 편찬,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 확산, 중국풍의 산수화에서 탈피하여 진경산수의 화풍이 생겨나고, 인물화에서 풍속화로 변모하고, 신윤복은 기생들의 생활풍속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예 전반에 새로운 문예사조가 싹트기 시작하였다⁴²⁾. 이러한 사회변화의 배경 가운데 17세기 지방 장시의 발생은 전국적인 경제유통망을 형성시켰고, 화폐의 유통으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고, 상인들의 부를 축적시켰다. 상인들의 독점자본은 대도시 시장이 번창하면서 형성하였으며, 상업자본은 수공업, 농업, 유흥업 등의 발달이 도시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시대 신분제의 지배질서를 더 이상 지탱할 명분이 사라졌다. 신분제의 해체는 양반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주도층의 출현을 의미하는데, 도시사회의 중인,서리층이 사회주도층으로 등장한다.

실학사상의 새로운 사조가 전개되면서 사회주도층은 중인(中人)·서리(胥吏)들이 맡게 된다. 중인·서리는 소위 잡학 기술직으로 호칭되는 의학(醫學), 역학(譯學), 산학(算學), 율학(律學), 음양학(陰陽學) 등의 전문지식과 화학, 약학 등 전문예능을 중시하는 계층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대부와 서민의 중간층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고 있으며, 학문 교양이 사대부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적,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사장 중심의 사대부들의 예능이 잡기 중심의 중인층으로 바뀌면서 시(詩)·서(書)·화(畵)와 잡기(雜技) 등이 도시사회 전반에 급속하게 확산된다⁴³⁾. 이와 같이 17·18세기에 중인·서리가 새로운 사회주도층으로 부상하면서⁴⁴⁾ 다양한 예능인들이 도시의 여향문화(閭巷文化)를 주도한다. 그동안 사대부와 양반들에게 신분적 제약을 받았던 중인과 서민문화가 상업적으로 분출하면서 시인, 화가, 기생, 가객, 기악, 유랑연예인, 연회집단이 예능문화를 이끌었다⁴⁵⁾. 17세기 말부터 기생과 가객(歌客), 악사(樂士)를 초청하여 즐기는 기악(妓樂)이 도시유흥의 흥행 상품이였다. 기악은 각종 연회도(宴會圖)에 등장할 정도로 유행하였으며, 기생은 가객, 금객으로 불리는 전문음악인과 함께 기악단을 꾸려 도시의 기악 수요에 대응하였다. 18세기에 기생은 유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기생은 기방에서 손님을 맞이하였고, 기방은 술과 춤, 음악, 노래가 진행되는 도시의 유흥공간이 되었다⁴⁶⁾. 조선 후기 풍류와 유흥을 즐기는 공간은 기방 외에 경승지였다.

42) 金龍德, 「朝鮮後期の 社會와 思想」 『韓國思想史大系』 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64 ~ 69쪽

43) 정옥자, 「조선 후기의 문풍과 진경시문학」 『진경시대』 1권, 돌베개, 2006, 56쪽.

44) 임형택, 앞의 책, 438쪽

45) 임형택, 앞의 책, 443쪽

46)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2002, 165 ~ 168쪽

『漢陽歌』에 풍류의 공간으로 누정과 돈대와 경승지가 나타난다. 풍류객들은 서울 일대의 누정 뿐만 아니라 인왕산 아래 필운대·세심대·수성동·옥류동, 북악 아래 삼청동·도화동·유란동·백련봉, 북부 안국방의 화개동, 성균관 근처의 송동, 혜화동 밖의 북사동, 남산 아래의 산단, 창덕궁 서쪽 몽담정 등 수 많은 곳이 도시인들이 유흥지로 등장하였다. 특히 필운대의 살구꽃, 동대문 밖의 버들, 천연정의 연꽃, 삼청동·탕춘대의 수석에는 술 마시며 시를 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회를 자주 열던 곳이다⁴⁷⁾. 여항시인들의 시회는 필운대가 제일 유명하여 필운대 풍월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였으며, 인왕산 기슭에 ‘가대(歌臺)’라는 곳에서 시회와 연회를 즐기는 풍류문화가 발달하였다.

이러하듯 조선 후기 풍류문화는 도시공간에서 경관이 좋은 돈대와 누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혜원 신윤복의 그림에는 중인들의 야유에서 기생들과 풍류와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기생이 술을 파는 선술집(목로주점)에서 술 마시는 그림도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에는 선술집, 내외술집, 사발막걸리집, 모주집, 색주가 등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이 일상적이었다⁴⁸⁾. 이와 같은 조선 후기의 풍류문화는 향락적이고 경제력이 이끄는 도시소비형 풍류문화였다. 도시의 유흥공간으로 목로주점(木爐酒店)과 색주가(色酒家)을 꼽을 수 있는데, 목로주점은 퇴기들이 기방에 선술집을 차려놓는 방식인데, 목로주점이 아니더라도 기방에서 술을 사와 마시는 경우도 있다. 색주가 역시 기녀가 흥을 돋우고 노래를 부르면 호객하여 술을 파는 것인데, 도시의 유흥은 항상 기방(妓房)과 기녀(妓女)를 중심으로 흥청거렸다. 18세기 중인들의 유흥 방식은 혜원이 그린 『蕙園傳神帖』에 나타난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중인과 기생들이 어울려 유흥과 성적 쾌락을 즐기는 그림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혜원의 성풍속도는 중서층의 향락적 풍류의식이 반영된 것이다⁴⁹⁾.

이러한 여항문화는 전주에서도 그대로 표출되었다. 조선시대 전주의 중심은 전주부성과 자만동과 남부시장이었다. 전주의 토호세력들은 자만동 인근에 위치한 이목대, 오목대, 가락대,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와 만화루, 진남루, 한벽루, 쾌심정 등지에서 시회 풍류를 즐겼다. 얼마나 경승지로 좋은 것이었으면 千·萬·億이라는 단위를 붙였을까. 또한 발산(鉢山) 아래의 오목대(吳穆臺), 이목대(李穆臺), 가락대(嘉樂臺)는 전주 고지도에 등장하는 돈대 명칭인데, 세 곳 모두가 연회를 베풀 즐겼던 경승지였다. 특히 18세기 전주지도에 선비들이 ‘가락대(嘉樂臺)’에서 장막을 치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은 전주에서도 돈대 중심

47) 강명관, 앞의 책 163쪽

48)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 역사, 2004, 145쪽

49) 洪善杓, 『朝鮮時代繪畫史論』, 문예출판사, 1999, 573쪽

으로 연회가 자주 열렸음을 시사한다. 전주 풍류객들의 문예풍은 사대부의 전통을 잇고 있었지만, 조선후기에는 그 중심이 도시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전주의 도시중심은 전주부성의 도시공간과 남문밖시장의 저자거리였고, 그곳에서 유흥문화가 꽃피었다. 전주부성의 풍남문 밖에 위치한 남문밖시장(남부시장)은 조선시대에 중국과 일본의 여상(旅商)들이 몰려들고, 감영이 위치한 관아도시로서 시전(市廛)과 포(鋪)가 매우 많았으며, 물화(物貨)를 쌓아놓고 백성들과 매매하여 화폐의 유통이 매우 활발한 곳으로 명성이 높았다.⁵⁰⁾ 시장에는 부보상들을 위한 술과 밥을 팔고 숙박까지 겸하는 주막과 점막 등이 발달한다. 남문밖시장은 전주부성에서 가장 변화한 저자거리로서 다양한 술집과 주점들이 조성된 유흥공간이 있었다. 남부시장의 언저리에 전주의 유명한 요정과 음식점이 몰려있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完山誌』에 따르면, 전주는 관기를 관장하는 관아로서 전라감영에는 영노청(營奴廳), 전주부영에는 관노청(官奴廳)이 있었으며, 교방(敎坊)이 조선 후기까지 활발하였던 곳이다. 나이 들어 기적(妓籍)에서 말소된 퇴기(退妓)들이 도시에서 목로주점을 운영하였음은 신윤복의 주사거배(酒肆擧盃) 그림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전주에서도 1917년 퇴기조합이 결성될 정도로 기생문화가 발달해 있었다⁵¹⁾. 일제시대 기생문화는 조선후기의 중서층이 즐기는 향락적 전통이 이어졌으며 술집과 기생들이 중심적 기능을 하였다. 일제시대에 전주 권번이 풍남문 밖에 조성되어 있었고, 권번 가까운 곳에 요정(낙원, 행원 등)이 위치하였고, 풍남문 밖 인근에 보부상들이 즐긴 주점과 색주가 등이 풍남문 안팎이 전주 여항문화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교방에서 권번으로, 그리고 요정문화

조선시대 기생은 관기(官妓)였다. 관기는 경기(京妓)와 지방기(地方妓)로서 관아의 관노청에 소속된 노비 신분이었다. 『성종실록』 17년 10월 27일 왕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국가에서 경외(京外)에 창기소(娼妓所)를 둔 것은 노래와 춤을 가르쳐 연향(宴享)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듣건대 우후(虞侯), 수령 및 대소 봉사자들이 사사로이 데려와서 자기 소유로 삼아 주(州)·부(府)의 기생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니, 경은 엄하게 조사토록 하라⁵²⁾

50) 소순열·원용찬, 『전북의 시장경제사』 신아출판사, 2003, 102쪽

51) 황미연, 앞의 책, 110쪽

52) 『朝鮮王朝實錄』 「成宗實錄」 17年 10月 9日

「國家設京外娼妓 以敎歌舞備宴享也今聞虞候守令及大小奉使者 私自帶來 以爲己有 州府人物 以此凋弊 卿其嚴加檢覈」

“는 엄명을 내린다. 조선시대에 관리들이 기생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기생을 두고 관리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관리가 기생과 사랑에 빠져 직무를 전폐하는 일 등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다.⁵³⁾ 성종이 전라도 관찰사에게 창기소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라는 왕명을 내리는 시기가 1486년(성종17)이라면, 창기소 운영이 조선 성종 시기의 기록이지만, 처음 설치의 시점은 고려시대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기녀들을 중심으로 가무를 관장하던 기관으로 교방(敎坊)이 있었다. 고려시대 교방은 향악, 속악을 담당하였으며 창기와 기예에 뛰어난 자를 뽑아 교육시킨 기생학교이기도 했다⁵⁴⁾. 이러한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세종대에 장악원을 설립하면서 아악(雅樂)은 좌교방(左敎房)에서 속악(俗樂)은 우교방(右敎房)에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기녀들은 천인 신분으로 우교방에 속하였다. 고려시대 교방의 창기에게 기예를 가르키는 일을 우교방에서 담당하였다.

그런데 전주부영에 기생들을 교육시키는 교방이 있었다는 기록이 『完山誌』 공해(公廨) 교방조(敎坊條), 중직대부 이영민의 중수기(重修記)에 실려 있다.

(A) 몇 달 뒤에 나 승임이 부모를 찾아뵙겠다고 말하고 전주에 돌아왔는데, 돌아온지 수일에 기녀 몇 사람이 와서 그들이 보고들은 것을 거듭 다 들었는데, 그것이 교방 중건에 관한 기억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전주부에 교방이 있었지가 오래다. 이전 정유재란 때에 불탄 뒤 버려두고 일으키지 않은 지가 거의 60년쯤 되었다. 지금 우리 부윤어른과 통관이 이것을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더불어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집 다섯 채를 짓고 짧은 담장으로 둘렀는데,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농민들을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공사를 완공하고 마침 중앙절을 당하여 전주부윤과 통관 두 분이 각각 그들의 봉급 일부를 떼어서 낙성식을 베풀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소문을 듣고 준비를 도왔다. 관기들 중 나이가 늙어 관기의 역(役)이 면제된 사람과 병약(病弱)하여 기적(妓籍)에서 말소된 사람도 모두들 모여 여러 가지 악기를 들고 이틀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부윤과 통관은 지방관청에 속한 관기들의 공역을 감면하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 교방(敎坊)에 모여 오로지 음악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그 후로는 노래하는 사람이 교방에서 노래하고 북을 치는 사람이 교방에서 북을 치며,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는 이들이 모두 여기에서 연주하고 손으로 춤추며 발로 뛰며 오래도록 그곳에 머무니 여러 우렛소리와 바람소리가 멀리 도로에까지 퍼졌다고 하였다. 아 우리 두 원님이 이 일을 고집했던 것을 알만하다⁵⁵⁾.

53)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4, 211쪽

5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권, 교방편, 342쪽

55) 『완산지』 공해 교방조

(A)에서 전주 교방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전주의 교방은 고려시대 교방의 전통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전주 교방이 불탄 뒤 60여년쯤이 지난 시점에 통정대부 심택(沈澤)이 전라도 관찰사 겸 전주부윤으로 재임(1651~1654)⁵⁶⁾하면서 건물 다섯 채를 짓고 담장을 둘러 교방을 복원하였다. 전주부윤과 통관이 봉급 일부를 떼어 교방의 낙성식 잔치를 베푼 후에 교방의 제 기능이 복원되었다. 교방에서 아악, 기악과 기녀들이 춤을 익히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71년에 편찬된 『완산지』에 전라감영에서 관기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영노청(營奴廳)이 있었고, 전주부영에는 관기청(官奴廳)이 있었으며, 교방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주교방은 1895년 갑오개혁으로 장악원이 궁내부 장예원(掌禮院)으로 이속되면서 해체되었다. 1909년 관기제도의 폐지에 따라 교방이 해체되고 관기들이 갈 곳을 잃었으나, 1909년 한성기생조합(권변)이 만들어지면서 기생의 명맥은 이어졌다. 전주 관아의 지방기(地方妓)들도 1915년 예기조합(藝妓組合)⁵⁷⁾을 만들어 예능의 맥을 이어갔다.

1880년경 일본인들이 경성에 상주하면서 일본식 요정이 등장하였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요정을 본뜬 한국식 요리집이 등장하면서 기생들이 요리집으로 불려나갔다. 일본 요정에는 게이샤가 있다면, 한국식 요정에는 기생들이 있었다. 조선시대 교방의 관기들은 관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향연에 나아가 춤과 노래를 추는 것이었다면, 권변의 기생들은 요리집으로 불려나가 주연에 참석하여 춤과 노래의 기예를 파는 일이 본질이었다. 1887년 처음으로 일본식 요정인 정문루(井門樓)가 생겨나고, 곧이어 화월루(花月樓)가 들어섰으며 친일파인 송병준이 청화정(淸華亭)을 내면서 한말 3대 요릿집으로 등장한다. 1909년 경성 종로에 명월관(明月館)이 들어서고, 1918년 명월관이 불탄 이후 태화관(泰和館)과 식도원(食道園)이 연이어 들어섰다.⁵⁸⁾ 일본의 요정 영향을 받아 20세기 초에 한국식 요정이 등장하는데, 요정의 명칭이 한국식으로 등장하고 있다. 요정이 단순히 음식 하는 식당이 아니라 유흥과 풍류를 즐기는 곳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의 누정문화를 잇고 루(樓)자명의 요정 명칭이다. 물론 OO館, OO屋, OO園이라는 일본식 요정 명칭도 등장하지만, 정문루, 화월루, 청화정은 누정을 본뜬 한국식 요정 명칭이다. 전주에서 일본식 요릿집이 등장하는데, 1919년 박다옥(博多屋), 1928년 길전옥, 1932년 청풍관(淸風館), 1933년 전풍관, 1934년 약지정, 1938년 낙원(樂園)이 들어서고 있다⁵⁹⁾.

56) 이동희 편저, 『조선시대 전라도의 감사수령 명단』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5, 10쪽

57) 황미연, 앞의 책, 110쪽

58) 신현규, 『기생인물 생활사 꽃을 잡고』 경덕출판사, 2005, 72쪽

59) 전주시,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국역 전주부사』 신아출판사, 2009, 483쪽

한국에서 권번 설립은 일제 식민통치의 수단이었다. 권번의 설립은 1908년 9월 15일에 ‘기생 및 창기 단속시행령 제정건’이었다. 이 건은 일제 경시청에서 발행하는 인가증으로 각종 여행이나 공연의 경우 경시청이 발급한 인가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법령이었다. 기생단속령 제 2조에 의하면, 기생은 경시청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조합을 설치하고 규약을 정하여 경시청에 인가를 받음이 가함이라 하였고, 10월 6일 ‘기생 및 창기단속령 시행 심득’, 즉 기생 및 창기단속령에 대한 세부지침이 전국 각 경찰서와 경찰분서로 하달되었다⁶⁰⁾. 일제 경시청의 명령에 따라 1908년 9월 25일 이후 1909년 4월 1일 사이에 「한성기생조합」이 만들어 졌고, 그 후 기생조합인 권번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의 권번은 예기(藝妓) 중심의 기생권번이 아니라 유곽의 공창(公娼)인 예창기(藝娼妓)를 관리하는 곳이었다. 일본의 유곽제도는 사창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음업자를 일정한 곳에 모아 영업을 하는 집창제(集娼制)에 따른 것인데⁶¹⁾, 일제는 ‘기생 및 창기단속령’을 시행하면서 기생이미지를 유곽의 창기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조선의 기생은 매음(賣淫)이 목적이 아니라 예기(藝妓) 수련에 목표를 두고 있기에 그 격과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조선의 권번은 일본의 권번과 달리 매음이 아니라 예기를 양성하는 기생학교 운영에 더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권번에는 예기를 수련하는 근대식 기생학교를 부속으로 두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 교방의 전통을 이으려는 강한 집념이라 할 수 있다. 평양의 기성권번(箕城券番)에 부속된 「기성기생양성소(箕城妓生養成所)」는 3학년제 기생학교를 운영하였는데, 10대 소년들이 입학하여 가무음곡을 배우면서 숙련된 기생은 대동강변의 요리집으로 출장을 나갔다고 한다. 「기성기생양성소」는 조선 후기 ‘평양관기학교(平壤官妓學校)’의 전통을 잇고 있었다. 3년제 기생학교를 졸업해야 기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3년제 예술대학을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당시 기생들은 사회적 여건상 연희무대가 아니라 요릿집으로 출장 나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현실이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일본의 게이샤와는 차원이 다른 엘리트적인 예기였다. 일제가 기생들을 창기로 활용하려했으나 권번의 기생학교에서는 예기를 양성하였다.

기생학교는 평양, 경성, 전주 등지의 권번 부속의 기생양성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으며, 기생양성소 규정을 두고 엄격한 학사운영을 하였다. 기성권번 부속 기생양성소 규정에 따르면, “제 12조에 입소 인원은 연 60명으로 한다. 제 13조에 본 양성소에 입소하려는 자는 원서에 호적등본, 이력서를 첨부하고 부모형제 및 보호자의 보증을 요한다.”고

60) 신현규, 앞의 책, 48쪽

61) 신현규, 앞의 책, 65쪽

되어 있고, “제15조에 양성소의 졸업연한은 만 3년으로 하고, 매년 3학기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제 16조 교과과목은 다음과 같다. 제 1학년은 가곡·수신·창가·국어·조선어·산술·서화, 제2학년은 우조·시조·가사·국어·조선어·산술·음악·서화·수신·창가·무용, 3학년은 가사·무용·잡가·일본창·국어·조선어·산술·음악·수신·창가”였다. “제 17조 매년 3월 학기말에 수업과목에 따른 시험을 실시, 합격하는 자에게 수업증 또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고 되어있다. 제 20조에 따르면, “학생 중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소를 명한다. 1.성행이 불량하고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수업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는 자”였다.

평양 기성권번 기생양성소에서 시행중인 3학년 수업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월	국어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노래복습
화	국어	서화	가곡	일본창	예법	음악
수	작문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예법
목	회화	서화	가곡	일본창	성악	노래복습
금	시독해	서화	가곡	일본창	잡가	
토	시독해	서화	가곡	회화		

기생학교의 3학년 학생이 배우는 수업시간표인데, 매일 6과목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목은 서화, 가곡, 잡가, 회화, 작문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켰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학과교사, 가무교사, 잡가교사, 서화교사, 음악교사, 일본창 교사가 있었다.⁶²⁾ 3학년 수업시간표를 보면, 말이 권번 소속의 기생양성소였지, 조선시대 교방의 전통을 잇는 근대화된 교방, 즉 관기학교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의 기생은 예기를 목적으로 교육을 시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종합예술학교나 다름이 없었다. 또한 수업료를 낼 수 없으면 기생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다. 권번 소속의 기생양성소는 교방과 근대학교가 조합된 근대화된 기생학교였던 것이다.

전라북도에서 기생조합이 가장 먼저 조성된 곳이 전주다. 전주권번은 1915년 예기조합이 결성되고, 1923년에 전주권번으로 바뀐다. 남원권번은 1921년 기생조합이 결성되고, 1926년 남원예기권번으로 바뀐다. 군산소화권번은 1923년 군산예기치육이 결성되고 1931년에 군산소화권번으로 바뀐다.⁶³⁾ 기생조합은 정읍, 부안, 익산에도 결성되었다. 각 권번마다 교육시키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교방의 전통방식에 따라 기악(소리·악

62) 가와무라미나토, 『말하는 꽃 기생』 유재순 옮김, 소담출판사, 2002, 191~197쪽

63) 황미연, 앞의 책, 110쪽

기), 서화, 춤과 근대무용 등 다양한 기예를 가르쳤다. 권번의 예능교육은 교방의 관기들이 받는 기예교육보다 더 다양하였다. 교방의 관기들은 악기연주, 소리, 춤 등 속악에 치중하는 경향이었으나, 권번의 기생들은 서화를 배웠다. 기생들은 서화 수업을 받으면서 난을 치고 사군자를 배웠다. 일제 강점기에 지방에서 전통예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권번이 유일하였다. 권번은 근대 신식교육이 도입되면서 근대 최고의 종합예술학교로 입지를 세웠다. 권번에서 기생들에게 서화, 잡가, 작문, 가곡, 기악 등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였기에 당시 전통예술에 기량이 뛰어난 화가, 작가, 소리꾼, 춤꾼 등이 권번의 교사로 활약하였다. 1923년 전주권번의 기생규모는 50여명이었고, 권번 교사는 가야금 김창조·김삼태, 거문고 신쾌동, 통소의 유동초, 춤에 정자산·정형인·정모란과 판소리에 장판개·김준섭·신영채·송봉업, 시조에 최일원, 서화는 김희순이 담당하였다. 전주권번의 교과목은 소리(판소리, 단가, 잡가, 시조), 기악(가야금, 거문고, 통소), 춤(승무, 검무, 북춤, 살풀이춤), 서화, 구연극, 예절교육을 가르쳤다.⁶⁴⁾ 권번에서 기생들에게 시서화, 가무악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화가인 김희순이 교장으로 있으면서 서화계에 거목인 효산 이광열과 이당 김은호도 기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친 것으로 보인다.⁶⁵⁾ 김은호는 기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기생을 모델로 미인도를 그렸다. 김은호는 남원 광한루원에 위치한 춘향사당에 모실 춘향초상을 조선권번에 나가던 기생 김명애를 모델로 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기생들은 연예인의 기질을 발휘하여 공연단을 꾸려 활동하였다. 전주권번의 기생들은 가무악의 다양한 레퍼토리로 전통예술을 공연하였으며, 중앙무대에 진출하고 국내 원정공연과 일본 해외공연⁶⁶⁾을 하면서 전통예술을 선도하였다. 그런가하면 화가의 모델로 활약하는 기생들도 많았다. 당시에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여성은 권번의 기생들 밖에 없었다.

4. 요정에서 한정식으로, 예능의 현대화

일제 강점기에 권번의 기생들은 요정에 불려가 돈을 받고 예능을 파는 전문예능인들로 변모하고 있었다. 뛰어난 예술 감각과 가야금, 거문고, 아쟁 등 기악 연주와 춤과 소리를 할 수 있는 전문예능인은 권번의 기생들 밖에 없었다. 그리고 권번의 부속 기생학교에서 서화, 가곡, 무용, 작문, 잡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기에 근대화 과정에서 연예인들

64) 황미연, 앞의 책, 144쪽

65) 이용엽 서화가 증언(2011.5.31)

66) 황미연, 앞의 책, 174쪽

은 거의 대부분 권번의 기생들이었다. 일제시대 기생들은 봉건왕조의 관행이 지속되면서 기생들은 유흥과 오락의 대상이었으며, 신분제의 관행에 따라 천민이었던 기생들은 ‘강요된 근대’를 경험하면서 술을 따르고 소리와 춤을 상품화시킨 예기(藝妓)들이었다. 근대화는 억압받던 여성을 종속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동기를 부여하였다. 서구의 제도와 문화는 종속적 지위에 있던 기생들의 식민지 근대성을 탈피시키고 기생학교에서 신식화된 교육을 받으며 여성해방의 선봉에 서게 된다. 서구의 문물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라디오, 축음기, 영사기, 촬영기 등 음반영상 기기들이 도입되면서 기생들도 여성해방의 선진적 조류를 받아들이게 된다. 신식교육을 받은 기생들은 누구보다도 근대화된 신여성의 세련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각종 연예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기생들은 일제시대 권번 부속의 기생양성소에서 가곡, 서화, 예절, 성악 등을 배우면서 전문예능인 교육을 받았으며, 개화기 이후 서구문화를 발 빠르게 받아들인 곳도 권번이었다. 권번의 기생들은 서양예술의 공연방식을 받아들여 지방에서 행하던 노래와 춤을 무대 공연으로 발전시켰다. 1920년대 명월관 특설무대에서 기생들이 예술공연이 열렸다. 1920년대 서양의 양악대와 재즈와 서양댄스가 수입되면서 기생들도 공연예술단을 조직하여 무대공연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권번에서도 국악단과 양악단을 구성되고, 레뷰춤과 사교댄스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요정에서도 기생들이 양악대 공연에 등장하면, 손님들도 양악대의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기생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평양과 한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확산되었다. 전주의 행원에서도 제1부에서 판소리와 국악 중심의 공연이 이뤄지면, 제2부에서는 밴드(양악대) 음악에 맞추어 버라이어티쇼가 벌어졌었다.⁶⁷⁾ 그러나 전주권번에서는 서양댄스, 일본춤, 사미센 등을 가르치지 않았기에 순수한 전통예술의 공연예술을 연행하였다고 본다.⁶⁸⁾

일제 강점기에 가장 명성이 높았던 기생학교는 3년제 평양 기생학교였다. 평양 기생학교는 국악·양악 합동연주단까지 조직하여 공연할 정도로 공연문화를 선도하고 있었다. 1932년 평양 기성권번의 기생들이 경성으로 가서 경성 시대 각 권번의 후원하에 단성사(團成社)⁶⁹⁾ 무대에서 특별공연을 하였는데, 공연레퍼토리는 가곡, 무용 레뷰, 합창 가곡 등이었다. 레뷰는 드라마, 희곡, 오페라, 발레, 재즈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취하고 음악과 춤을 뒤섞어 호화찬란한 연출을 하는 무대예술을 말한다.⁷⁰⁾ 레뷰춤의 등장은 요정에서

67) 장명수 증언(김명엽 조사)

68) 황미연, 앞의 책, 126쪽

69) 단성사는 1907년에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이었다.

70) 신현규, 앞의 책, 216쪽

국악 중심의 정적인 예술이 양악 중심의 동적인 예술로 바뀌고 방의 공간에서 소극장, 카바레의 무대 공간에서 공연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근현대에서 서양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집단이 기생이었다.

국악에서 성악으로 가곡, 시조, 가사, 경기민요, 남도소리 등을 배우고, 국악기는 거문고, 가야금, 생황, 아쟁, 대금, 장구 등을 다뤘으며, 전통춤으로는 선유락, 향장무, 포구락, 검무, 사자무, 학무, 승무 등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을 배웠다.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에는 기생들이 검무를 추는 그림이 나온다. 또한 기생들은 권번에서 서양춤으로 사교댄스와 레뷰춤을 배우고, 일본악기 사미센과 서양기인 서양금, 만돌린, 아코디언, 트럼펫,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등을 배웠다. 1930년대 평양기생학교에서는 국악기와 양악기를 혼합한 연주단이 등장하였으며, 서양악기로 연주하는 관현악단도 조직되어 공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와 같이 기생들은 성악, 기악, 무용, 전통춤 외에 전통예절과 시·서·화도 배우는 등 모든 예능과 일반교양까지 모든 종목을 망라하여 배웠다.

한마디로 권번은 전통예능의 전문교육기관이었으며, 요정은 전통예능의 산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⁷¹⁾ 권번 부설의 기생학교에는 3년제 종합예술학교로서 예능 중심의 기생교육을 시켰다. 그러다 보니 권번의 기생들은 현재의 연예인처럼 방송, 음악, 영화, CF, 모델 등으로 활발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권번은 지금의 연예인기획사 또는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다.⁷²⁾ 기생가운데 노래와 춤과 몸을 파는 창기(娼妓)들이 있는가하면, 뛰어난 예능의 소질을 갖춘 예기(藝妓)들은 연예계로 진출하였다. 예기는 기악, 성악, 무용춤 외에 시·서·화에 예능적 소질이 있는 기생들은 화가로서 화단, 문단에 진출하여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 서양문화의 붓물로 기생들은 점차 기생에서 전문예능의 연예인 및 화가, 작가로 신분변화를 가져오면서 점차 요정문화는 퇴화해갔다.

1945년 해방을 전후로 요정(料亭, りょうてい)은 점차 사양화되어가고 대신에 요정을 닮은 한정식집이 등장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권번과 요정문화가 유지되었다면, 해방 이후에 권번이 해체되면서 기생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예에 뛰어난 기생들은 해방 후 방송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몸 파는 창녀로 전락하는 등 제 갈길로 가고 요정은 기생이 없는 요릿집으로 전락하게 된다. 요릿집이 한정식집으로 바뀌고, 한정식집은 예능보다 음식을 판매하는 일이 주업이었다. 그렇지만 요정을 찾던 사람들은 여전히 한정식집으로 바뀐 요정에 가서 놀기를 즐겼고, 요정을 대체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한정식집에 찾아가 유흥을 즐겼다.

71) 신현규, 앞의 책, 87쪽

72) 신현규, 앞의 책, 61쪽

해방 이후 1950년대도 도시의 지식인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요정과 한정식집 밖에 없었다. 요정이 자연스럽게 침체되자 한정식집이 출현하고 사람들은 한정식집을 찾았다. 그런 점에서 한정식(韓定食)⁷³⁾의 출현은 해방 이전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전북 화단을 지키는 하반영 화백은 한정식은 요즘에 쓰는 용어지 일제시대에는 정식(定食, ていしょく)과 한식(韓食)이라는 용어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식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요정에서 판매하고, 한식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요정에서는 상다리가 훔 정도로 많은 음식을 내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다.⁷⁴⁾ 전주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요정은 1932년에 「청풍관」(대표 서성철)이 개업한 이후 1933년 「전풍관」(대표 최만기), 1935년 「전일관」(대표 이병선), 1938년 「낙원」(대표 한태수⁷⁵⁾) 등이 개업하였다.⁷⁶⁾ 1943년 허산옥은 「낙원」의 건물 일부를 일부 인수받아 행원을 개업한다.⁷⁷⁾ 실제로 전주의 한정식은 1950년대에 부월옥, 평화촌, 만성장, 백번집 등이 개업하면서 번창하게 된다. 1950년대 초 한정식집은 음식점이지만, 일제시대 요정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측면이 있다.

III. 전통예능의 맥, 행원에서 백번집까지

1. 허산옥과 행원사람들

허산옥의 본명은 허귀녀(1926 ~ 1993)였다. 그는 16세에 남원권번⁷⁸⁾에 들어가 기생이 되었지만, 예능 활동은 전주에서 하였다.⁷⁹⁾ 산옥(山玉)의 예명은 권번에서 처음 받은 것이며, 행원(杏園)은 낙원(樂園)⁸⁰⁾의 건물 일부를 인수받아 문을 연 요정이었다. 낙원은 행원

73) 한정식(韓定食)은 한식(韓式)+ 정식(定食)의 합성어이다. 한식은 우리나라 전통밥상인 백반을 지칭하는 것이며, 정식은 일본의 定食(ていしょく)을 지칭한다. 일제시대 한국에 일본식당과 한국식당이 있었는데, 料亭(일본식 요리집)이 등장하면서 한식을 일본식으로 내놓는 음식이 한정식이었던 것이다. 일본 정식은 음식의 량과 가지수가 일정한 형식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한정식은 상다리가 훔 정도로 많은 음식을 내놓는 형식이다. 한정식의 발달은 요정이었다. 한정식은 한식을 일본인의 취향에 맞는 정식화 한 것인데, 요정은 식사하는 공간보다 주연을 즐기는 곳이라는 점에서, 한정식은 ‘밥상’보다는 ‘술상’에 가까운 음식이라 할 수 있다.

74) 필자가 2011년 5월 4일 하반영(94세) 화백과 면담하였을 때 증언해줌.

75) 하반영 화백은 낙원을 개업한 사람은 부여의 정영기라는 사람이며, 한태수는 남전 허산옥과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 허산옥의 돈을 받아 전주 중노송동에서 기름공장을 했다고 한다.(2011. 3. 25 필자 현지구술조사)

76) 전주시, 『國譯 全州府史』, 전주부사국역편찬위원회, 2009, 683쪽

77) 허산옥이 낙원의 권번을 인수받아 행원을 개업하였다는 요정이 권번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전주권번은 풍남문 밖에 한 곳에 위치하였고, 그곳에서 기생을 요정으로 파출했기에 낙원 소유 권번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78) 이용엽 서화가는 남전 허산옥이 전주권번이 아니라 남원권번 출신이라고 밝혔다.

79) 허산옥이 남원권번 출신이라는 주장은 이용엽 서화가의 증언(2011.5.31)

80) 낙원은 부여 정형인이 현재 행원 일대에 큰 규모의 운영한 요정이었다. 『전주부사』에 낙원은 1938년 대화정에 한태수가 운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 3배 정도로 규모가 큰 요정이었고, 부여 사람인 정형인씨가 운영하였다. 당시 요정은 권번에서 기생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전주권번은 현재 풍남문 옆에 위치⁸¹⁾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행원의 세 여자를 산다마(三玉)라고 불렀다. 산다마는 연옥, 산옥, 금옥 세 명의 기생을 삼옥이라고 불렀다. 3명 모두가 권번 출신이었고, 3명이 의기투합하여 풍남동 경기전 뒤쪽에서 운심각이라는 자그마한 요정을 운영하였다. 삼옥이는 운심각에서 돈을 벌어 행원을 매입하여 운영하였다. 행원은 산다마가 운영하는 요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허산옥은 권번에서 사군자를 기본적으로 배웠다. 전주권번(대표 : 최병철)은 풍남문 밖 남동방향 직전에 위치하였다. 권번의 공간은 인력거 대기소인던 조방, 대기실 1칸, 소리와 북 가르치는 곳 1칸, 미술 가르치는 곳 1칸으로 세 칸 건물이었다. 전주권번의 교장은 유당 김희순이었다. 서화를 가르친 교사는 유당 김희순⁸²⁾으로 알려졌고, 전주권번의 기생학교는 규율이 매우 엄격하게 정규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기예에 뛰어난 기생들이 요정을 출입하기도 하고, 예술단을 조직하여 요정에서 춤과 노래의 연행하는 일도 권번에서 맡았다.⁸³⁾ 소리꾼이 아닌 화가 유당 김희순이 권번 부속 기생학교의 교장을 맡은 것은 당시 전주 풍류계에서 화풍(畵風)이 소리보다 더 우위에 있었음을 반영한다. 당시 전주에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화가로서 효산 이광열, 유당 김희순, 설송 최규상이 활동하고 있었다. 1935년 효산 이광열 주도로 한목회가 결성되면서 변관식, 이응로, 이상범, 허건, 김은호, 허백련 등 국내 명성 높은 화가들이 전주를 찾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들이 전주를 자주 찾게 된 것도 서화의 소장가들의 서화수요도 한 몫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허산옥의 기여도 빼놓을 수 없다.

허산옥은 권번에서 춤과 소리는 흥미가 없었지만, 사군자를 배우면서 미술에 남다른 소질을 발휘하였다. 그가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동광미술학원(東光美術學院)⁸⁴⁾에 모델(1,2,3기)로 활동하면서 시작되었다. 동광미술학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한 2년제 사설미술학교였다. 재력가 집안의 아들로써 일본유학을 다녀온 임실 출신 박병수(朴炳洙)가 동광미술학원을 전주 고사동에 설립하였으며, 관재 이도영⁸⁵⁾이 동양화, 고

81)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일제시대 전주부 대화정 77)에 위치하였다.

82) 유당 김희순(1881~1968)은 전주 완산동 출신의 동양화가였다. 시서화에 능했으며 사군자를 잘 그렸다.

83)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전주사람들』 83쪽, 최근무 증언

84) 동광미술학원은 일본식 미술학교를 말한다. 전라북도에서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서양화(유화)를 가르치기 위하여 설립한 근대미술학교인데 서양화와 한국화, 동양화를 가르쳤다.

85) 관재 이도영(1884-1933)은 서울에 올라가 종로구 다계다약국 창고건물에 경성서화미술원을 설립하였다. 이 경성서화미술원이 후에 홍익대학교(설립자, 초대 이사장 이도영)를 설립하는 계기가 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명성은 전주 동광미술학원이 그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암 이용로⁸⁶⁾가 수묵화, 박두수가 동양화, 금릉 김영창과 진환(陣瓚)이 서양화를 가르쳤다. 당시 화가들은 권번의 기생들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리는 관행이 있었다. 전북지역에는 일본 동경으로 미술유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서양화가 들어오면서⁸⁷⁾ 모델이 필요하였는데, 허산옥이 동광미술학원에 모델로 활동하였다. 기생으로 모델 활동을 하던 허산옥은 자신도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동광미술학원에 학생으로 등록하여 본격적으로 미술수업을 받았다.

허산옥이 서화에 소질을 발휘하면서 국전에 15회에 걸쳐 입선할 정도로 서화 능력이 뛰어났으며, 초대작가와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허산옥은 동광미술학원과 모델로 인연을 맺으면서 금옥, 연옥이와 함께 3명이 모두 동광미술학원에 나갔는데 기생으로서 소질을 보인 것은 허산옥이었다. 당시 전주권번에서 그림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기생은 남전 허산옥 외에 초선(草仙), 선화(善花)도 있었다. 허산옥은 해방이후 1943년 행원을 개업하면서 본격적으로 화가로서 활동을 전개한다. 허산옥이 화가로서 남전(藍田·南田)이라는 호를 사용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본다. 남전은 동광미술학원에서 관재 이도영에게 동양화, 고암 이용로에게 산수화를 주로 배웠으며, 개인적으로 의재 허백련에게 산수화, 강암 송성룡에게 서예, 묵로 이용우에게 기명절지(器皿折枝)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남전은 행원을 운영하면서 작품 활동하는 화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전은 효산 이광렬⁸⁸⁾, 소정 변관식⁸⁹⁾, 청전 이상범⁹⁰⁾, 월전 장우성⁹¹⁾, 묵로 이용우⁹²⁾ 남농 허건⁹³⁾, 의재 허백련⁹⁴⁾, 금추 이남호⁹⁵⁾ 등이었다. 효산 이광렬이 한묵회(翰墨會)를 조직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진 화가들이 전주를 자주 찾았고, 남전이 화가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10대 작가들이 전주에 오면 효산의 식객으로 거처하거나 남전이 거처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원을 화가

86) 고암 이용로는 간판 글씨를 잘 썼는데, 전주 다가동에서 開拓社라는 간판글씨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전주에서 작품 활동을 한바 있다. (2011.2.25 하반영 화백 증언), 고암 이용로는 전주에서 9년동안 거주하였는데, 틈만생기면 효산 이광렬(1885~1966)을 찾아가 서예와 사군자를 배웠다. 효산은 고암보다 19살 연상으로서 전주에 거주하는 동안 효산의 화풍을 배워 제 2회 선전에서 사군자 부분에 입선을 하였다. 전주에서 작품활동을 해온 고암은 1935년 일본 동경으로 미술유학을 떠났다.(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한국예총 전주지부, 1994, 287쪽)

87) 전주에 서양화를 도입한 사람은 전주고보에서 미술교사였던 일본인 森麟平이었고, 전주여고 미술교사였던 大津逸次였다. 일본 유학파로는 이순재, 백병수, 김영창, 이경훈, 문운모, 권영술 등이 있었다.(이용엽, 『全北美術略史』 신아출판사, 2007, 256쪽.)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미술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자는 이순재였다. 그는 서양화실을 차려놓았는데 작촌 조병희 선생도 이순재에게 그림을 배웠다.

88) 효산 이광렬(1885~1967)은 전북 김제출신으로 전북화단의 대표적인 동양화가이다.

89) 소정 변관식(1892~1976)은 황해도 웅진출신이다.

90) 청전 이상범(1897~1972)은 충남 공주 출신의 동양화가였다.

91) 월전 장우성(1912~2005)은 경기도 여주 출신의 동양화가였으며, 이천에 시립월전미술관이 있다.

92) 묵로 이용우(1904~1952)는 강원도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생애를 마친다.

93) 남농 허건(1907~1987)은 전남 진도출신으로 소치 허유의 손자로서 남종화에 능하였다.

94) 의재 허백련(1891~1977)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동양화와 사군자에 능하였다.

95) 금추 이남호(1908~2001)는 경북 출신으로 민속화에 깊은 조예가 있다.

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었고,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누정에 모여 시회를 즐기듯이, 일제시대에는 요정에 모여 서화회를 즐겼다. 남전은 6.25 당시 전주에 피난 온 국악인과 서화가들도 후원하였다. 당시 박초월, 김소희, 임방울 등 당대 명창치고 신세지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으며, 변관식, 김은호, 이상범, 이용우도 식객노릇을 하였다.⁹⁶⁾

남전은 전주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들에게 행원에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술을 마시다가 흥이 나면 남전이 지필묵을 방바닥에 펼쳐놓으면 서화가들이 앞 다투어 글씨와 그림 대결을 벌인다. 일종의 서화숨씨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화가들이 한 장씩 그리거나 글을 써서 누가 잘 쓰고 그렸나 겨뤄보는 방식이었다. 서화가들이 행원에 자주 찾아오니 항상 지필묵이 준비되어 있었다. 남전은 서화가들과 서화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남전은 의재 허백련이 쓴 ‘목가필무(墨歌筆舞)’라 글씨를 받아둔 적이 있는데, 목가필무란 당시 서화가들이 요정에서 어떻게 풍류를 즐기고 어떠한 방식으로 예능 활동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반영 화백은 묵로 이용우는 술이 한잔 들어가야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데 술기운에 그려낸 작품이지만 출중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남전은 화가들과 어울린 것은 아니었다. 전주를 찾아온 문인(文人)들에게도 배려를 하였다. 해방이후 문인들이 원고료를 받아들이고 풍류를 즐기려 행원을 찾았을 때에는 돈 액수와 관계없이 특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 고하 최승범 선생은 신석정, 송지영, 정비석, 박동화선생과 함께 부안에 갔다가 전주에 와서 행원에 갔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주안상을 들여놓고 식사를 하다가 술기운이 달아오르면 남전은 지필묵을 내놓고 붓을 들고 시를 짓게 하였다. 말하자면 현대판 시회를 벌였는데, 송지영선생과 신석정, 정비석선생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시문을 지었는데, 최승범선생에게 차례가 돌아오자 『논어』 첫 장에 나오는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라는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고 술회하고 있다.⁹⁷⁾ 이와 같이 화가 외에도 시인들이 전주에 자주 찾아와 풍류를 즐기는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향각지의 시인들이 전주에 오면 행원을 자주 찾아왔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당시 서화가들이 전주에 자주 찾아온 것은 전주가 전통예술의 맥을 잇는 명향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었으며, 남전이 화가들의 후원한다는 말에 더 자주 찾아와 전주에서 작품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전이 화가들에게 후원하는 방식은 전주에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작품들을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군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하반영 화백은 행원에서 소정과 청전의 병풍이 5~6개씩 있는 것을 보았으며, 묵로 그림도 매우 많았다

96) 李容燁, 『全北美術略史』 전북역사문화학회, 2007, 247쪽

97) 전주백년사편찬위원회, 『전주사람들』 2001, 124쪽/2011 5.11일 필자 최승범 선생 면담 구술자료.

고 증언하고 있다. 남전은 화가들이 전주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하고, 경제적 지원도 하였으며⁹⁸⁾, 완성된 작품은 사들이는 고동서화(古董書畵)의 소장가(所藏家)⁹⁹⁾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선후기 경화세족(京華世族)들의 고동서화 소장가들은 서화 감상과 취미로서 작품을 매입하여 소장하였다면, 남전은 본인이 화가로서 그림을 좋아하고, 훌륭한 화가들이 전주에 오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남전은 우선적으로 화가들을 후원하였으며, 장학사업에도 헌신적이었다. 젊은 학도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인철¹⁰⁰⁾은 남전 허산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B) 허산옥은 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1900년에서 일제강점기, 8.15해방, 6.25 등 1960년대까지 얻어지고 깨지면서 근대화의 격동기에서 살아오신 분이다.

그 과정에서 자리를 지키고 살아온 것을 기본적으로 갖춘 소양이 있다. 자신을 낮추고 다듬고 남을 위하는, 배려하는게 몸에 배어 있는 분이였다. 그 분이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누가 탓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분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 사람 인품 중심으로 남자들이 집결하였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예술계, 문학계, 음악계,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 당시는 문화적 활동으로 밥을 먹는 시대가 아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것이니 밥 먹기 위하여 예술 활동을 하던 시대가 아니다. 그냥 좋게 말하면 예술성을 갖고 작업하던 때 이다. 모든 것이 궁핍하던 시대였다. 글 쓰고 음악하고 미술하는 사람이 궁핍한 생활 속에서 미술하고 음악하는데 일단 그런 사람이 궁핍을 면하려면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한량(閑良)이 그런 분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한량의 조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해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보호를 해드려야 한다. 서예가 예능인 문화인이 나타나면 잡수고 가셔야 한다. 전주가 예향이라서 시 한수 붓 한필하는 풍조가 많이 있었다. 허산옥은 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격을 갖추게 해주는 것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멀리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오면 기본적으로 재워주고 잡수게 해주고 음악하시는 분 미술 하는 분들이 오시면 돈에 관계없이 어느 자리를 만들어서 창 한번 북 한번 들어보게 하는 것 그

98) 소정은 전동여관에 모셨고, 청전은 풍남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 모셨으며, 묵로는 다가동에 별도로 방을 잡아서 거거하면서 작품활동을 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도 전주 행원을 자주 찾았으며 몇일씩 머르고 가기도 하였다. 남전은 이들과 어울리면서 풍류도 즐겼지만, 그림도 배웠다.(하반영 화백 증언, 2011년 3월 25일 현지 구술)

99) 강명관, 「조선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와 취미」 『조선후기 문화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2002

100) 사단법인 체육발전연구원 원장

러한 매개적인 역할을 하였다. 행원을 찾아오는 예술인들에게는 돈에 관계없이 충분히 잡수시고 놀고 지필묵을 준비하여 그림도 그리도록 했고 어떤 사람들이라도 허리띠를 풀어놓고 놀고 즐기고 잡수도록 하는 게 몸에 배었던 분이다. 허산옥은 권번 출신의 본격적인 기생으로서 당시 판따라(유흥계)에서는 모두가 친딸로 여기고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여장부는 아니다 여결(女傑)이었다.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놓고 자신도 그 예술의 세계에 심취해 들어가는 분이었다. 스스로 인격을 도야하면서 예술인 뿐만 아니라 기생들도 모두 먹여 살렸다.¹⁰¹⁾

(B)는 행원은 1950년 이후에 전주풍류의 맥을 잇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남전 허산옥은 자신이 서화가로서 후원자로서 행원이라는 공간에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풍류객이요 한량이었다. 그는 서화가들이 전주 행원에서 풍류를 즐기는 방식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는 돈과 관계없이 즐겼다. 이러한 놀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누정에서 시회를 갖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허산옥의 배려와 후원으로 풍류문화의 맥이 이어지고, 전주에서 문예부흥이 유지되어 전주가 전통예능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물론 남전이 전주 화풍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효산 이광렬, 유당 김희순, 최규상 등과 함께 경제적, 물질적인 후원자요 스폰서였다. 남전이 행원을 운영하였기에 물질적 후원이 가능하였다. 남전은 자신의 그림을 용채(用債)로 내놓는 일이 빈번하였다¹⁰²⁾. 그래서 화랑에는 남전그림이 많을 수 밖에 없었다. 6.25 이후에 남전은 기생 출신의 화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에 몰두하였다. 그가 작품활동에 집념하던 시기는 서서히 권번의 기생문화가 퇴출되기 시작하였고, 기생들도 요정을 떠나는 시점과 맞물리기도 하였다.

남전은 해방 이후에 주로 수묵화와 기명절지를 그렸으며, 신선도같은 인물화도 그렸지만, 인물화는 남아있지 않다. 남전은 수묵화와 서예를 배우면서 화제(畵題)를 넣는 문인화를 그려 시·서·화를 겸비한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추구하였다. 남전은 화가의 명예인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남전이 남긴 문인화는 현재 행원에 보존되고 있는 수묵화, 기명절지 등 문인화 병풍의 작품에서 알 수 있다. 남전은 국전에 15회 걸쳐 연이어 입선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 초대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전북 미술대전 심사위원도 역임하였다. 수차례 개인전도 열었으며, 1993년 전북예술회관을 대관하여 개인전을 준비하다 전시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¹⁰³⁾

101) 2011.6.1일 사단법인 체육발전연구원 구술조사(구술자 이인철 원장)

102) 이인철 사단법인 체육발전연구원장 증언(2011.6.1)

103) 이용엽, 앞의 책, 247쪽

2. 백번집 사람들

백번집은 1958년 전주 남부시장 인근에 ‘칠봉옥’¹⁰⁴⁾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다. 칠봉옥은 완산칠봉의 칠봉(七峰)을 딴 이름이었다. 해방 이후 생계 목적으로 외식집이 한두곳씩 생겨나면서 OO 집, OO옥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당시에 요정에는 관(館), 원(園)을 달았고, 서민적인 백반집에는 ‘옥(屋)’자를 붙였다. 屋(야)과 館(칸)은 모두가 일제시대 일본식 음식점 명칭을 모방한 것이다. 백번집의 전신인 칠봉옥은 처음부터 백반집으로 출발했다. 칠봉옥은 현 사장인 주환씨의 모친 김종화씨가 처음 문을 열었다. 김종화는 고향이 충남 부여인데 20세에 전주로 시집 와 음식솜씨가 좋다는 평을 받았다. 칠봉옥을 개업한 지 3년 후에 ‘백번집’으로 상호명을 바꾸고, 구 전북도청 부근(현재 한국식당 앞) 서인창고 건물을 개수하여 이전한다. 여전히 백반집이었지만, 술꾼들 사이에 ‘술안주가 좋은 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서 「백제땅의 주막」 뜻에서 ‘百’자를 차용하였고, 반찬과 술안주가 식탁에 꼭 찬다, 뽀뽀하다, 걸다, 많다는 의미에서 ‘번(繁)’자를 붙여 ‘백번집(百繁家)’으로 상호를 정했다. 백번집의 음식이 소문을 타자, 전화국에서 전화번호 100번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100번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¹⁰⁵⁾

3년 후 백번집은 다시 남문파출소 근처¹⁰⁶⁾로 옮기고, 한식을 한정식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환 사장은 백반상에 몇 개의 술안주를 놓는 방식으로 한정식상을 차렸다고 한다. 백반이 밥상이라면, 한정식은 술상이라는 시각이다. 1960년대 후반 전주에는 한정식을 파는 집이 5~6곳이 있었다. 당시 한정식집은 술상과 밥상을 겸한 한상을 내놓는 반요정(半料亭) 음식점이었다. 요정에는 권번에서 기생들이 출장나오는 형식이었지만, 한정식집에는 기생과 씨빙하는 여자들이 고용되어 손님 시중을 받드는 형식이었다. 기생들은 판소리를 하였고, 씨빙걸은 손님들이 술시중을 거들었다. 한식백반에서 한정식으로 바뀌고 술안주가 좋고, 판소리로 풍류를 즐기고 아가씨들이 씨빙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문인, 예술인보다는 고급관리와 재력있는 사업가들이 손님접대를 위한 비즈니스 목적에서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1978년경 구 전라북도청 앞 큰 2층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2층은 100명 1층에는 150명이 들어가는 식당이었다. 당시 전주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은 백번집이 가장 큰

104) 칠봉옥은 현재 서울소바 근처 왜식건물에 처음 문을 열고, 백반과 약주, 막걸리 등을 팔기 시작하였다.

105) 송화섭 외, 『전주음식』 민속원, 2009, 181쪽

106) 남문파출소, 남문약기점 근처, 수구정 뒤편에 자리를 잡음.

규모였다. 당시 관청 공무원들과 고위급 사람들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명성있는 행원을 드나들었지만, 백번집도 행원에 버금갈 정도로 대중화된 한정식집으로 명성이 높았다. 한정식은 밥상이 아니라 술상으로 인식되면서,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기는 풍류객들이 즐겨 찾아들었고, 요정처럼 기생들이 동석하여 소리와 춤을 곁들여 놀기를 요구하여, 기생과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손님들이 요구하면 판소리꾼과 씨빙하는 여자가 손님방에 함께 들어가 유흥을 즐겼다. 자연스럽게 손님들의 요구로 백번집은 반요정처럼 운영되었다.

그래서 백번집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한다. 백번집에서 기숙하면서 1끼 식사를 하는 사람이 55명에 이를 정도로 기업화되었다. 기생(소리꾼), 씨빙걸, 주방 및 방에서 일을 돕는 종업원들이 모두 백번집에서 기숙 생활을 할 정도로 번창하였다. 씨빙걸들은 요정집에서 기생이 시중드는 것처럼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상에서 시중을 들었고, 소리꾼들은 손님의 요청으로 방에 들어가 소리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였다. 1970년초에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소리꾼이 출연하는 반요정식 한정식에서 대규모 연회를 갖고 보컬밴드를 불러들여 노래와 춤을 추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전주에서 로터리, 와이즈맨, 라이온스같은 사회봉사단체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백번집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전매청 전속밴드가 저녁에는 항상 백번집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손님이 요구하면 손님방에 들어가서 음악을 연주할 정도로 유흥문화가 번창하였다. 1980년대 초에 백번집은 대중 유흥업소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전주 오스카극장, 삼남극장에서 광고할 정도였다.¹⁰⁷⁾

그러나 80년대 초에 춤과 노래는 요정, 룬살롱 등 유흥음식점에서 허용하고 대중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유흥을 목적으로 소리와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었다. 이 식품위생법의 제정, 시행으로 한정식집에서 유흥 행위가 금지되고 자취를 감추게 된다. 요정은 유흥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요정에서 유흥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반요정격인 한정식집은 대중음식점으로 분류되어 대중음식점의 유흥행위는 단속의 대상이었다¹⁰⁸⁾.

70년대 후반 예술인들도 백번집을 찾아 여흥을 즐겼다. 백번집도 요정처럼 항상 지필묵을 준비해 놓았다. 70년대 전라북도에서 예술 활동하던 화가들이 백번집에 자주 찾았다.

107) 백번집 대표 주환(67세) 증언(2011.5.21)

108) 식품위생법 제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백번집을 찾은 문인들은 취흥이 오르면, 즉석에서 시를 읊으며 즐겼으며, 화가들은 화선지를 한 장 방바닥에 펴놓고 3인 합작, 4인 합작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화가들이 술을 마시다가 즉석에서 합작으로 그리는 것이니 만큼 작품에는 낙관도 없이 자기 그림에 호를 달아놓는 방식이었다. 서로 예능의 실력을 대결하듯이 내기하는 방식으로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다. 술좌석의 분위기가 고조되면 소리꾼의 판소리 한 대목을 들은 뒤 한지에 합작 그림을 그려놓고 술을 한잔 마시면서 그림이야기 꽃을 피우는 관행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 합작그림을 그리는 화단(畵壇)의 풍조가 있었고, 서화가들이 모이면 합작그림을 그리며 풍류를 즐겼다. 당시 백번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서화가들은 강암 송성룡, 작촌 조병희, 벽천 나상목, 석정 남궁훈, 현림 정승섭 등이었다. 이렇게 서화가들이 두어 달에 한번 씩 백번집을 찾아와 술 마시고 취흥에 합작화를 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현림은 술회하고 있다.¹⁰⁹⁾ 지금도 백번집에는 현림과 석정과 벽천 3명이 그린 합작그림이 있는가 하면, 70년대 중반 4명이 합작한 그림 등 여러 점이 걸려있다. 백번집을 찾은 서화가들의 그림이 방마다 걸어 놓는 화랑(갤러리) 기능을 하자, 자신의 그림을 그려 표구해 와 백번집에 걸어놓는 화가들도 있었다.

서화가들이 합작 그림을 그리면서 서화연(書畵宴)을 즐길 때에는 주인 김종화는 돈에 관계없이 술안주를 만들어 무료로 추가 제공하면서 서화가들에게 취흥을 돋구는데 후원하였다. 김종화씨는 음식솜씨가 뛰어나 즉석에서 푸짐한 술안주를 서화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다. 행원은 요정이었다면, 백번집은 반요정으로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하였지만, 백번집이 행원보다는 대중적이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를 전후로 백번집은 대중음식점 한정식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사업가와 한량들이 유흥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서화가들의 예능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IV. 한국 전통예술의 산실, 전주

조선전기 사대부들은 학문을 일궈 과거급제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거나 관료에서 물러나면 시골로 낙향하여 처사로서 전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양면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관의 형성은 유학자들이 사서삼경의 경서와 중국 한시를 읽으면서 자연스

109) 현림 정승섭 화백(70세) 증언(2011.5.28)

럽게 중국 도가사상을 체득하여 자연 속에 묻혀 사는 무위자연의 삶을 동경하는 관행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 관료로 진출하여 관리생활을 하다가 염증을 느끼면 관직에서 물러나 산수 좋은 향촌으로 낙향하여 강호자연에 은둔하면서 누각을 짓고 산수시(山水詩)와 강호시(江湖詩)를 읊으며 세상을 초연하는 삶을 보여주었다.¹¹⁰⁾ 조선 전기의 사대부들은 사장학을 배워 오언율시와 칠언절구를 짓는 문인의 자질을 갖고 있었다. 고향이나 처향으로 낙향한 사대부들은 누각에서 시서화의 풍류를 즐겼다. 조선 전기의 산수화는 당시 사대부들이 어떻게 풍류를 즐겼는지를 보여준다. 산수화는 당시 사대부들이 심산유곡에서 한유자적(閑遊自適)과 금풍농월(吟風弄月)을 즐기는 처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많다.¹¹¹⁾ 그래서 전국의 산천계곡에는 곳곳에 누각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사대부들은 전원적인 삶을 누리며 풍류를 즐겼다. 조선 전기에 전주를 찾은 점필재 김종직, 사가정 서거정, 양촌 권근, 노포 유순, 청하 권극중, 천은당 노사신, 삼탄 이승소, 체소 이춘영, 백헌 이경석 등 수많은 사대부들이 전주부성 안팎의 누정에서 전주의 산세와 풍광을 찬탄하는 시문을 지었다.

서거정이 ‘완산십영(完山十詠)’을 읊었는데 다음과 같다.

완산의 변화한 물색은 성산보다 낫거니와 / 完山佳麗勝星山
전후 풍류 고상한 이는 늙은 교관이로다 / 前後風流老教官
굳이 목지처럼 방탕할 필요는 없겠지만 / 未必牧之空落魄
그대는 곤궁한 선비 꼴을 씻을 만 하고말고 / 如君亦可洗儒酸

영호루 위에서 그대와 함께 즐겨 마시고 / 映湖樓上共君歡
웃으며 미인 시켜 관을 바로잡게 했었지 / 笑倩佳兒爲整冠
지난 일은 아득히 온통 꿈만 같을 뿐이요 / 往事悠悠渾似夢
백발이라 정흥 또한 이미 쇠잔해져버렸네 / 白頭情興已闌珊

향교 한 누각엔 일찍이 기문을 지었고 / 鄉校一樓曾作記
견도 십영의 시도 내가 또한 지었으니 / 甄都十詠又題詩
선생께 알리노니 화답의 시를 꼭 짓게나 / 爲報先生須和得
화답하거든 의당 다시 내게 알려도 주오 / 和來宜復報吾知

110) 주승택, 「선비들의 삶과 한시」 『선비들의 예술세계』 한국국학진흥원, 2004, 179쪽

111) 임형택, 앞의 책, 360쪽

위의 시는 조선 초기에 사대부들이 누각에서 술을 마시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초에 전주에는 영호루, 제남정, 쾌심정, 공북정, 한벽루 등이 있었고, 풍광이 좋은 곳은 만경대, 덕진연, 건지산, 봉황암, 기린봉 등이 있었다. 전주의 사대부와 관리들은 이와 같은 누각과 돈대에서 풍류를 즐기는 관행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 전주지도에 가락대¹¹²⁾에서 장막을 치고 시회풍류를 즐기는 그림에서 알 수 있다. 이 전주지도는 1782년(정조6) 8월에 국왕이 전주의 건지산과 전주부성을 그리게 한 산수화풍이 빼어난 회화식 지도다.¹¹³⁾ 정조가 왕조의 정통성과 왕권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하여 도화서에 지시하여 화원이 그린 것으로 보인다. 회화식 지도는 특정지역의 산수와 자연환경을 산수화처럼 극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실제의 명산승경을 화폭에 담는 실경산수화와 진경산수화의 화풍에서 유래되었다¹¹⁴⁾는 시각이다. 규장각 소장의 전주지도는 산을 표현하는데 피마준법(被麻皴法)과 미점법(米點法)이 나타나 남종화법과 진경산수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수작으로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진경산수화는 겸재 정선의 화풍을 잇는 17세기 전형적인 한국화풍이다.

이러한 진경산수 화풍의 전주지도는 2점이 더 있는데, 전북대학교 박물관(全州府古地圖)과 국립전주박물관(完山府地圖十曲屏風)에서 각각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회화식 지도는 당시 도화서에서 풍패지향 전주에 대한 깊은 관심의 발로였을 것이다. 전주에는 조선 왕조의 어진전인 경기전에 위치하고 있었고, 어진을 그리는 것은 도화서의 화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단원 김홍도는 도화서의 화원으로 어용화사로 뽑혔으며, 영조 49년(1773)에 정묘(正廟)의 초상을 그리고, 정조 5년(1781)에도 한중유, 신한평, 김홍도를 시켜 어진 1본을 그리게 하고 있다.¹¹⁵⁾ 1782년 규장각 소장의 전주지도 역시 단원 김홍도가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은 1782년 전주지도에 선비들의 풍류를 즐기는 풍속도를 그려 넣은 점과 김홍도가 어진전인 경기전도¹¹⁶⁾를 그렸다는 사실¹¹⁷⁾에서 추론은 가능하다. 어진의 화맥은 석지 채용신(1850-1941)이 잇는데, 석지는 영조 어진의 이모본을 그린다.

영정조대에는 서화만 발달한 게 아니라 음악에서도 발달하였다. 조선중기 이후에 화폐 유통과 시장 발달에 따른 상품경제의 활성화는 중인계층이 풍류와 유흥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나례도감 소속의 재인, 광대들이 저잣거리에서 판을 벌이고, 장악원

112) 가락대는 현재 전주 남노송동에 위치하는 천주교 전주교구청 자리였다.

113) 한영우·안휘준·배우성, 『우리나라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1999, 111쪽,

114) 한영우·안휘준·배우성, 앞의 책, 202쪽

115)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그림』 학교재, 1995, 109~112쪽

116)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肇慶廟慶基殿圖形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17) 조병희, 『완산고을의 맥박』, 한국예총 전주지부, 278쪽,

의 악생과 악공들이 민간의 음악 수요에 응하였다. 음악의 유흥에는 특히 기생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였다.¹¹⁸⁾ 18세기 도시에서 기생들과 향락과 유흥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은 각 전(殿)의 별감·포도군관·정원사령·금부나장·궁가왕실외척의 청지기·무사 등 이었다.¹¹⁹⁾ 지방에서는 관아의 아리와 향리들이 지방기들을 관리하였다. 전주부성 내에는 감영 소속의 영노청과 부영 소속의 관노청이 있었으며, 관기를 양성하는 곳으로 교방이 있었다. 교방에서 지방기 양성은 지방관아에서 발생하는 음악적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었지만,¹²⁰⁾ 조선후기 전주에서도 지방관리와 이서집단이 기생들을 관리하면서 풍류와 향락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는 교방의 전통이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우교방에서 민속악(판소리)의 전통이 강하게 온전해올 수 있었던 고을이었다. 따라서 전주 판소리의 진원지는 교방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영조가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였다는 사건으로 18세기 사대부들이 판소리를 환호하고 심취하면서 판소리가 공연예술로 등장하였다.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연간에 왕들은 명창들을 공연하게 하고 첨지, 낭청, 참봉 벼슬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흥선대원군(1828~1890)은 안동김씨 세도시절 전주지방을 떠돌 때 백이방의 도움으로 송홍록과 만나 인연을 맺게 되고, 후에 백이방을 통해서 전주대사습놀이¹²¹⁾를 설립하게 되었다.¹²²⁾ 흥선대원군은 대사습 경창대회에서 장원한 명창과 송홍록과 같은 소리꾼 광대들이 사랑방으로 불러들였고,¹²³⁾ 고종앞에서도 어전 공연을 함으로써 광대들이 본격적으로 판소리 공부에 나서게 된다.¹²⁴⁾ 판소리가 숙종 말 영조때에 불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소리꾼들이 경창을 한 것은 고종때에 정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대사습은 전주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풍류와 유흥을 즐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악원이 1897년 교방사로 바뀌고 1907년 장악과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졌고, 한일합방 이후 교방은 해체되고 관기양성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였다. 교방은 일제 강점기에서 권번의 기생학교로 대체되었다. 1935년 전주 권번은 풍남문 밖에 위치하였으며, 기생학교를 부속으로 두었다. 기생들은 권번의 기생학교에서 시서화와 가무악을 배우고 요정으로

118) 김현주, 『판소리와 풍속화, 그 님은 예술세계』 효형출판, 2000, 33쪽

119) 강명관, 『조선사람들, 해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푸른역사, 132쪽

120)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인의 생성공간』 151쪽

121)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한 연원이 분분하다. 그동안 전주대사습의 역사에 대하여 18세기 초엽(조선 숙종 말~영조 초)에 생겨났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고종 원년(1864) 서기 국가적인 행사로 말을 올렸던 전주대사습놀이는 임오군란(1882), 동학혁명(1894), 민비시해사건(1895) 등 국가적인 대변란으로 인하여 열리지 못했던 다섯차례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지내왔다(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전주대사습사』 1992, 38쪽)는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다.

122) 김현주, 앞의 책, 177쪽

123) 고창 출신 소리꾼 진채선과 판소리를 집대성한 신재효와 흥선대원군의 삼각관계는 흥선대원군이 판소리를 얼마나 즐겨했는지를 가늠케 한다.

124) 김현주, 앞의 책, 179쪽

과출을 나갔다. 행원의 허산옥도 전주권번에서 서화의 기예를 배우게 된다. 해방 후 권번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권번 건물에 전주국악원(전동국악원)이 들어섰다. 권번에서 국악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동호회를 만들어 전동국악원을 운영한 것이다.¹²⁵⁾

허산옥은 가무악보다는 시서화에 능하여 화가의 소질을 발휘하였다. 허산옥이 본격적으로 서화수업을 받은 것은 동광미술학원에 모델로 나가면서부터다. 허산옥은 6.25 전후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서화가들과 교분을 맺으면서 행원을 풍류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패턴(patron)의 역할을 수행한다. 허산옥은 본인이 화가로서 활동하면서 궁핍한 시대에 예술 활동하는 예능인들에게 돈 걱정 없이 충분히 먹고 놀고 즐기도록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남전 허산옥은 진정한 한량이었다. 본인이 서화에 능하고 행원 운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궁핍한 예능인들에게 맘껏 작품 활동하도록 배려하고 행원에서 맘껏 놀고 즐기도록 유흥의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전주에는 효산 이광렬같은 훌륭한 서화가들이 있어 전국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몰려 들었지만 풍류의 공간을 마련한 것은 허산옥이었다. 남전도 화가들로서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풍류를 즐기고 놀았다. 이 시대의 진정한 풍류객이었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대모였다. 전주에서 행원을 중심으로 예술 활동이 활발해지자, 해방이후 요정을 모방한 반요정의 한정식집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전주 전통예능의 맥은 백번집으로 연결되었다. 백번집은 음식점이었지만, 예능인들이 자주 찾아가 소리도 듣고, 그림도 그리는 예능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서화를 표구하여 전시해놓은 갤러리(또는 화랑)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이후 근현대에서 전주사람들의 풍류문화를 짚어보았다. 풍류의 장르는 시서화와 가무악이다. 전주에서 풍류문화가 발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주사람들이 풍류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사람들은 그림을 볼 줄 알고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한량문화(閑良文化)를 오랜 세월동안 면면히 지속적으로 전승시켜왔다. 한량문화는 기본적으로 학문, 소양과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조선 전기부터 이름난 사대부들이 전주에 와서 전주의 풍광을 찬탄하고 누정에서 시회를 즐겼다. 조선 후기에 시장의 발달과 화폐유통으로

125) 전복예총, 『전복예총사』, 신아출판사, 2011, 177쪽

물화(物貨)의 중심에 전주가 있었다. 전주는 기본적으로 전라감영이 있고 전주부영이 있는 지방도시였다. 역사문화적으로 전주는 풍류를 즐기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전주는 조선왕조를 태동시킨 풍패지향(豐沛之鄉)으로서 왕조문화가 깃들어 있었고, 사대부들이 전승해온 문화가 조선후기 르네상스시대에 꽃피우게 된 것이다. 전주사람들은 풍류를 알고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였으며 전라감영이 위치한 도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중심의 시서화와 가무악이 발달하면서 전국의 풍류객들이 전주로 몰려들었다. 전주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싶고 전주 사람들과 어울려 약주 한 상 받아들고 시문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그 중심에 출중한 예능인들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후원자들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 중심에 행원과 백번집이 있었다. 행원은 일제시대에서 6.25동란 이후까지 풍류문화의 중심이었고, 백번집은 1970년대 중반에 유흥문화의 중심적인 공간이었다.

풍류문화는 조선시대 누정, 경승지에서 일제시대에는 요정,주점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룸살롱,노래방으로 공간의 변천 과정에 따라 변화하였다. 전통예능의 맥은 교방에서 권번까지 이어져왔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분화되었다. 그러나 권번은 신식문화를 수용하면서 교방보다 더 다양한 예능교육의 산실로서 오늘날 종합예술학교와 동일한 기생학교였음은 분명하다. 이제 뒤틀린 기생문화를 바로잡고, 전주에서 기예문화와 풍류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재조명하는 진정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소망해본다.

종합토론

「근대 전주, 예술 향유층의 변화」 에 대한 토론문

이철량*

전주를 예향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만큼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예술을 즐기고, 한편으로는 예술을 소장할 수 있었던 향유층이 두터웠던 데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은 예술가들만으로 발전할 수 없고 역시 예술가들을 후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상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예향의 조건으로 함한회교수가 지적하신 “예향이라면 첫째 예술가 층이 두텁고 둘째 예술을 향유 또는 소비하는 계층이 발달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예향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라는 말은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주가 일찍부터 예향이라 불렸던 것은 그만큼 소리와 서화 등 다방면의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두텁게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술 향유 층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한 언제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이번 함교수의 조사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지역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함교수는 이번 연구를 근대 전주로 한정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근대 이전을 조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이번 연구로나마 근대이전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였다.

먼저 함교수는 전주가 예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술향유층의 형성에 있어서 “전주에 새로운 예술향유층이 등장하는 시기는 20세기를 전후한 때”라고 못 박고 있다. 그 이유를 “한국의 근대문화가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조선왕조가 무너지면서 전통적인 문화예술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며,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의

*전북대학교 교수

변화와 관련이 깊다. 19세기 말부터 전통적인 신분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부와 권력구조가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엘리트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다시 새로운 예술향유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전주에 예술향유층의 형성은 훨씬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불행하게도 19세기 후반 이전의 서화작품이 거의 산실되어 그 정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전북의 서화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전북은 조선의 서화발달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서화를 이해하고, 또한 소장하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필자는 서화를 소장할 수 있었던 새로운 중산층의 형성과 신분제 붕괴현상이 19세기말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18세기의 상공업의 융성과 실학의 대두 등으로 서화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현상으로서 민화의 발달과 함께 풍속화 등이 유행한 예에서 찾아질 수 있다고 본다. 18세기에 들어 급작스러운 민화의 보급은 모름지기 새로운 감상 층의 형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부자들, 즉 새로운 경제적 여유 층의 확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풍속화의 대두는 표현의 주체가 서민들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말하자면 조선초기부터 형성되었던 양반들의 서화관(書畵觀)이 무너진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화를 즐기고 감상하며, 스스로 제작하였지만 그것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풍조의 변화를 말한다. 어쨌든 18세기에는 조선서화계의 새로운 변혁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만하다. 여기에서 전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전주는 당시 대단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정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함교수가 지적하신 20세기의 서화 수요층의 변화는 좀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다만 20세기의 새로운 사회변혁은 또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수요층의 확대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함교수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엘리트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이 엘리트층은 실상 과거 엘리트층하고는 큰 변화를 보이는 세대라고 할 만하다. 즉 이 신주류는 신학문의 세례를 받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말한다. 이전 세대들이 오래된 지주계급으로서 선비세대라면, 신세대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리드하였던 운동가적 성격이 짙다고 보여진다.

다만 함교수가 지적한 조선후기부터 생성된 지방의 농업자본가 즉 향리 출신과 전통적

인 양반 즉 사대부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공부가 부족하다. 어쨌든 향리 자본가의 후세들로서 새로운 부르주아계급들이 새롭게 예술향유층으로 등장하고 활동내역을 밝혀낸 것은 함교수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부르주아층들의 예술향유가 아직도 전통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1930년대 이후에는 전주에 새로운 작가세대가 등장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작품 활동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예컨대 최초의 일본 유학 생이었던 이순재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일직 절필을 하게 되었고, 이후 많은 젊은 신 미술 운동가들이 실상 이런 새로운 부르주아 향유 층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함교수의 논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박영철과 백남혁 등의 수집목록에는 전통적인 서화가들 특히 이미 성가를 이루고 있었던 인물들에 한정되어있었던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랄 수 있다.

이번 함교수의 조사에서 특히 사랑채문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다. 특히 학인당, 향천주장을 운영했던 백남석과 오일주장의 송형섭의 활동을 통해 사랑채를 통한 예술소통의 실체를 밝혔다. 이러한 사랑채문화는 아마도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컨대 서화를 즐겼던 지주계급들은 그들의 사랑채에 서화가들을 긴 시간 기숙하게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던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함교수가 20세기 신부르주아 계층이 새로운 사회 지배층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문화의 “양반화”를 꾀하고 노력한 활동을 했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것 같다. 다만 해방이후 1950년대부터는 개인전을 비롯해서 그룹전들이 아담다방이나 공보관 등을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이는 새로운 문화 판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된 인물들과 같은 신 지주계급의 부유층만이 아니라 서화향유층의 폭이 밀로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함교수가 전주가 예향으로서의 지위를 얻는데 특히 1920-1970년대까지의 활동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밝혀내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로 인해 전북의 수준 높은 서화활동의 다른 한 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주가 조선조에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해 축적된 서화활동으로서 예향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앞서 언급한대로 불행하게도 19세기말 이전 작품이 남아있지 않는 아쉽움이 크지만, 그러나 17세기의 이덕익(1604-?)과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정직(1841-1910)이나 조주승(1854-193),

그리고 최석환(1808-?)과 같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걸출한 서화가가 이미 포진해 있었던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지역 서화는 대단한 수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통해 20세기 송기면, 이광열, 김희순, 유영환 등이 이들 선배들을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또한 1920년대 이후 이순재, 박병수, 김영창을 비롯해 많은 젊은 인물들이 일본으로 화업을 위해 유학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실 토지자본가의 아들이었던 박병수는 최초의 사설교육기관이라 할 만한 동광미술학원을 설립하고 후배양성과 동료들의 활동을 도왔던 인물이다. 이처럼 특히 전주가 20세기 신미술운동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등장한 것도 그동안 두터운 서화애호층이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만하다. 그중 특히 1920-1970년대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동란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화가들이 전주로 피난처를 삼거나 혹은 전쟁이후 먹을거리가 다른 지역보다 풍족했던 전주에 자주 다녀갔던 연유도 한 몫 했다고 보여 진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서화를 즐기는 화가들을 지원할 수 있었던 향유 층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 바탕이 된 것은 틀림 없는 일이었다.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 에 대한 토론문

최명표*

요즘에 이르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서울에 대한 '지방'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유통되는 현실을 거스르려는 반동적 움직임이기도 하고, 자치제의 발달에 의한 필연적인 상황 변화이기도 합니다. 더러는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역기능이 노출되기도 하나, 지역민들이 지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일 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주학 학술대회는 유익한 경험을 제공하리라 기대합니다.

발표문 「근대 전주, 문인들의 활동사」는 전주 지역 문인들의 활약상과 함께, 그들이 활동하던 공간을 점검한 글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950-60년대에 한정된 논의입니다. 발표자는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주의 문인들'과 '전주 문인들의 활동 무대'로 이분하였습니다. 그 뒤에 전자로 양사재, 비사벌초사, 전시종합대학 등을 살펴보고, 후자로 다방, 극장, 선술집, 음식점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발표자는 전후 전주 지역 문인들의 활동 모습과 공간을 증언이나 지도 등의 구체적 자료를 동원하며 살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간상으로도 광범할뿐더러, 시기상으로도 넓어서 토론자의 역량을 벗어납니다. 더군다나 토론자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발표자의 성과를 따라가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이에 토론자는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점을 좁히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다방이라는 기호공간(嗜好空間)의 기호(記號)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중의 작가들을 그린 작품 중에서 수작이라면, 단연 김동리의 소설 「밀다원시대」(『현대문학』, 1955. 4)를 꼽을 겁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소설적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전쟁으로 인해 망가지고 지친 작가들의 군상을 놓치지 않고 형상화했습니다. 그의 묘사에 의해 전후문학은 실존주의나 휴머니즘에 더 몰두할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밀다원이라는 다방에 어깨를 늘어뜨린 채 모여들어 시간을 죽이는 작가들의 하릴없

*문학평론가

는 노닥거림을 포착하여 보여줍니다. 그에 따라 ‘밀다원’은 일상적 찻집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문학적 공간으로 뜻매김될 터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거나 작가에 의해 호명된 다방이거나를 떠나서, ‘밀다원’은 작가들의 시국에 대한 인식이나 전황에 따른 대처양상 등을 증언하는 특수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무릇 한 작품은 시대의 증상과 인간의 대응 방식을 추출해 낼만한 자료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지요.

오늘 발표자가 주장하려는 바도 이 범주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듯합니다. 발표자는 1950-60년대 전주에서 활약하던 문인들의 모습을 재구성하여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다방은 문인들의 활동‘사’를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호출됩니다. 그의 노력이 중요한 점은 김동리가 밀다원다방을 초점화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근대인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방이 실은 ‘문인들의 활동’을 추적할만한 문화적 기표라는 사실이겠지요. 그렇다면 당시에 큰길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다방들이 문인들의 활동하던 주요 공간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무렵의 일상적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발표자가 선 마당이 ‘전주학’이라는 특정 지역의 학문적 입론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다방처럼 ‘근대’의 표지를 찾아내어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바람직하기 그지없습니다.

끝으로 토론자는 시력 60여년 동안 고향 전주를 떠나지 않은 시인 김해강의 산문 중에서 발표자의 논의와 관련된 내용을 덧붙여 보강하고자 합니다. 인용문은 발표자가 말하고자 하는 문인과 공간에 두루 걸쳐 있어서 일독할만합니다.

3月 4日(木)

가람 李秉岐 先生의 招待를 받았다.

夕汀, 白楊村, 구름재, 그리고 나. 오늘이 先生의 生辰이라 하여, 薄酒나마 나누어보자고, 特히 우리 네 사람을 부른 것이다.

술床이 나왔다. 簡素한 술床이지만, 안주로서 놓일 것은 다 놓였다. 藥食藥菓를 비롯하여, 이菓 정菓에 煎부침이 있는가 하면 마른 肉포도 있고, 全州名物인 청포묵에 고기에 조림 씬바귀 하며, 홍어膾에 불고기하며, 설기떡에 白餅 기정까지….

先生의 高淡한 風格을 말하는 듯, 안주마다 맑은 韻致가 一味를 더했다. 勸커니酌커니 巡杯가 거듭함에 따라, 거나한 醉氣와 함께 더워 오르는 談笑.

豁達하여 조금도 凝滯함이 없는 先生의 豪氣는 『가람』 그대로 油然自若하시다.

泰山을 우렐어보는 듯 犯치 못할 凜然한 風貌이면서도, 어린애라도 마음놓고 재롱을 부릴 수 있는 溫厚하고도 너그러운 襟度. 氷月처럼 서슬이 날리는 빛나는 叡智에, 젊은이로도 敢히 따르지 못할 넘치는 情熱. 그러면서도 샘처럼 솟는 구슬 같은 童心.

거기에, 낡은 詩型으로도 恒常 새로운 숨씨를 보여주는 珠玉같은 作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老가람은 몸은 늙어도 詩想은 젊어만 간다. 그러기에 先生의 時調는 누가 뭐라든, 어린 이파리처럼 새로워지려고만 하는가 보다. 모르는 이는 몰라도, 가람의 가람 된 所以와 가람만이 가질 수 있는 眞價는 거기에 있는 것이리라.

—『카나단스』라는 高級洋酒를 누가 보내주어 받아둔 것이 있는데, 한 잔씩 해보라구. 아무리 醉했다가도 그놈을 한 잔 할나치면 술이 깨이게 된단 말야. 그 神妙함이란 可謂 天下一品이거든! 하고, 손수 따라 놓는 술을, 맨 나중판에 한 잔씩 마시고는, 저물어서야 자리를 뗐다.

3月 19日(金)

午後 다섯時 茶房 『心園』에서 열린 詞華集 『새벽』 出刊 祝賀會. 거기 모인 人士로는 主로 『새벽』에 詩를 낸 執筆同人들이었는데, 老가람을 筆頭로 夕汀, 白楊村, 구름재, 柳林一, 崔勝範, 崔辰聖, 高琳順들이었다. 特히 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金敎善氏도 參席을 해주었고, 그밖에 數三人의 靑年 文學同志들도 陪席해 주었다.

한 가지 섭섭한 일은 고운 詩를 써준 R嬢이 자리에 나타나주지 않음이었다. 嬢은 구름재가 『薔薇』라 愛稱하는 妙齡의 女性으로서, 구름재를 싸고서 늘 話題에 오르는 閨秀인 만큼, 어떠한 型의 女性인가, 한번 보아지기를 慇懃히들 바랐던 것이라서, 끝내 나타나지 않고 말았던 것이다.

次例가 詩朗誦으로 들어가자 指名을 받은 나는 卽席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구름은 호젓이 재를 넘는고야.

가람 흐르는 언덕에

薔薇 필 때가 오면

詩를 외우리. 내 詩를 외우리.

뒤를 이어서 時調로서, 그 座席의 卽興으로

가람 흐르는 언덕에 구름은 떠노는데

白楊村 洞口 밖에 白슴 핀 夕汀이라
薔薇야 넌 어디 갔느냐 海剛 여기 있노라.

마침 『白슴』이라 愛稱을 받는 K嬢이 夕汀의 옆에 와서 자리잡고 앉음이었다. 衆議에
依하여 K嬢의 自作朗讀이 끝나자, 바로 그 뒤를 이어, 나는 다시

白슴 꽃 입술을 구슬이 구슬러라
구슬은 피어 가슴마다 모란인걸
薔薇야 넌 안 와도 좋다 『白슴』만이 좋아라.

다음 구름재의 휘느러진 가락으로 빼놓는 時調 朗誦을 듣고서, 나는 또 그 뒤를 받아

구름 재 넘어 구름만 재를 넘어
노을은 타도 薔薇도 없는 언덕을
여기가 어디라고 구름만 두웅 둥둥 떠도나니.

座興은 漸入佳境인데, 文理大學長 會議가 있다 하여 老 가람이 가신 뒤였다.
판막이로 나는 다시 한 首를 더 읊었다.

山水莫 피는 心園의 밤이더란다.
이젠 가람도 가고 별들만 총총한데
薔薇야 네 모습 보지 못해 나는 詩만 읊었다.

3月 27日(土)

K君이 點心을 먹으러가자 하여 따라나섰다. 갈비를 잘 굽는다는 불고기집이었다. 조용
한 뒷房을 치워주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K君의 눈치가 平常時와는 좀 다른 데
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뒤미쳐 一 妙齡의 女性이 수집은 듯 조심조심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K君의 紹介로 비로소 알게 된 그가 바로 R××嬢이었다. K君이 앉은 座席이면 依例히
話頭에 오르는 한번 보아지라 하던 女性이었다.

妻屬을 거느린 몸으로서, 話頭에 오를 程度로 젊은 女性과 接近한다는 것은 容認할 수

없는 外道라 하여, 그 不當함을 極口 忠告도 해오고 責望도 해오던 내가, 한번 對面할 機會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가 했더니, 오늘 것처럼 孃을 보여준 것이리라.

같이 點心을 하는데, 술도 따라주고, 술을 마시기까지도 한다. 그야말로 환하게 핀 한 송이 『薔薇』를 彷彿케 하는 고운 모습인데, 말하는 音聲에나 表情에나 一點 흐림이 없고 거짓이 없는, 純情 그대로의 明朗하고 豁達한 氣稟이었다.

떠보는 눈, 말의 말씨, 한 가지도 규격에 벗어남이 없다.

고운 꽃밭 속처럼, 오고가는 酬酌은 千紫萬紅으로 무르녹아가건만, 興에 지쳤음일까, K君은 꾸벅꾸벅 조을고만 있다.

나는 모를 일이었다. K君과 薔薇宅과의 艷史가 어떠한 記錄으로 읽혀지게 될는지.

그렇게 오랜 時間은 아닌 것 같았는데, 날은 어느듯 저물어버렸다. 함께 일어서기가 거부했던지 R孃은 『心園』에서 기다리겠오라 하고, 먼저 자리를 떴고, 둘이서는 동안을 띠어 일어섰었다.

그다지 時間이 늦었던 것은 아니었는데도 『心園』에서 나오는 K君의 말인즉, R孃이 와서 기다리다가 갔다는 레지의 전갈이었다고.

아쉽게 돌아서서 발길을 떼어놓는 K君의 모습이 어쩐지 쓸쓸기만 했다.

8月 27日(金)

뜰에는 白蓮이 피어있고, 마침 蓮葉酒가 알맞게 익었으니 와달라는 老가람의 부름을 받고, 낮에 夕汀, 白楊村과 함께 養土齋로 내달았다.

大門 안에 들어서자, 마루 아래로 내려서서 欣然히 맞아주시는 가람 先生.

房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기가 바쁘게 古歌를 蒐集해놓은 노오트를 펼쳐놓으시고 『正月 나릿므른』하고는, 그 노래의 由來가 어떻다는 것을 說明하시며 句句字字 풀어 들려주시는 것이었다.

언제 봐어도 즐거우시고, 언제 뵈시어도 든든하시다. 後輩를 일깨워주시고, 티없이 사랑해주시는 따뜻한 情이 어느 때고 敦篤하시다.

未久하여 素淡한 술상이 나오는데, 따라주시는 술이 한層 香臭가 높다.

一杯 一杯 復一杯, 잔이 더해감에 따라 陶然히 떠오르는 興趣는, 蓮香 그것처럼 俗塵을 씻어주는 듯 했다. 뜰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송이 白蓮은 수집은 듯 淸楚한 맵시가 으것도 차분한데, 先生의 이야기는 津津하여 저물 줄을 모른다.

先生을 뵈시게 되면 醉하기 싫어도 醉할 수밖에 없고, 또 醉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懸河의 長廣說話-. 先生은 精力도 精力이시려니와 氣稟이 좋기도 하시다. 목청도 짜

랑짜랑 그 數 많은 말씀을 長時間 끄떡도 안 하시고 連疊 내놓으시는 것이라니- 果是
'가람'일시 分明하시고.

긴 長長夏日이 다 저물어서야 下直을 告하고 물러나왔다.

白蓮이여! 네 알아 맑은 香氣로써 가람을 이에서 더 淸으시게는 말지어다.³⁾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방은 사화집의 축하회가 열린 역사적 공간입니다. 시중 사람들이 다방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낭비하며, 인생을 소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위 예에서처럼, 다방은 문인들을 호명하여 축하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부추깁니다. 그곳에서 시인들은 즉흥시 낭독회를 열어 다방의 성격을 재래의 시회(詩會)마당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무료한 소비공간이 아니라, 다방이 문학작품의 생산공간으로 거듭나는 찰나입니다. 또한 국권침탈기에 깃다점으로 들어와 지식인들의 절망감을 수용하던 다방이 형질 변경을 시도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은 '지금-여기에서'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태를 묻은 곳이자 삶터이며 일터인 지역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동시대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의 노력에 의해 지역은 살만한 곳이 되고, 역사의 현장이 되며, 자신의 '활동사'를 구성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 점이야말로 1950-60년대에 문인들이 살았던 모습을 찾아나서는 참뜻일 터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다방이라는 시시한 유흥공간이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시시콜콜 끄집어내준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이유입니다.

3) 김해강, 「一杯 一杯 復一杯로」, 『자유문학』, 1958. 9; 최명표 편, 『김해강시전집』, 국학자료원, 753-760쪽 부분 발췌.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붓과 종이」 에 대한 토론문

조수현*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님의 부탁을 받고 「근대 전주지역의 필방, 붓과 종이」에 대한 논고를 읽고 논평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논평에 앞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박물관 · 미술관이 40여개나 갖추어져 있으며 이들은 예향의 중심이요,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소중한 문화기관입니다. 2009년 한국박물관 100주년을 기점으로 16개 시 · 도별 박물관 · 미술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이동희관장님께서 제위를 이어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명실공히 예향의 고장으로 거듭 발전되어 가는데 큰 역할하시기를 심축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곳 전주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이어온 선비들의 벼이 되어준 <문방사보>중에서 붓과 전주한지에 대한 역사와 가치를 조명해 주시어 늦은 감은 있으나 한편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더욱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1945년 광복 이후로 한정지어 조명하고 있음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인들의 구술 자료에서 필장 · 필상 · 갓 만드는 분들은 그런대로 선비로서의 대접을 받았다는데 그 만큼 유식하고 잠자리도 같이하고 마주하며 대화의 상대가 되었다는 증언은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장사꾼 · 쟁이라 하여 그림 그리는 화상들까지도 낮게 보는 시대에 붓을 대하고 머리에 쓰는 갓을 만드는 분들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에 붓 · 한지 · 갓에 대한 증언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주하면 전통한옥 · 한정식 · 한지 · 막걸리 등 “한(韓)”의 뿌리가 되고 근래 크게 유

*원광대학교

행하는 “한류”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중심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제에 논고에서 밝혀주신 “이조필방”, “백제필방”, “금산필방”, “고려필방” 전주한지의 맥을 이은 “송지방”등이 이 시대에도 명맥을 이어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근래 듣기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관사와 집무실을 한국전통한지와 가구 등으로 꾸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것의 세계화가 인정받고 있는 시기에 진정 우리 도민이나 국민들은 우리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지 않나 반성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필방과 전주한지의 유지와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지방”의 5대째 가업을 이어가다 금년 초에 작고하신 송제천 선생의 명복을 빌며 그 따님과 사위가 가업을 훌륭히 이어가길 기원드리며 간단한 토론문에 가름합니다.

「전주 전통예능의 산실, 행원에서 백번집까지」 에 대한 토론문

심승구*

이 글은 전주 풍류문화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함께 근현대 시기에 전통예능의 산실로 기능해 온 행원에서 백번집까지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 전통예능의 맥을 재조명함으로써, 예향인 전주 문화의 정체성을 살피는데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논고로 이해된다.

발표문의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맛과 멋의 고장이자 예향 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아래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역사민속학적 관점에서 다룬 글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송화섭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전주의 풍류문화를 대표하는 행원과 백번집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가, 문인, 명창, 서화가, 예술인 등 다양한 인물과 활동, 그리고 그 공간적 역할에 대하여 문헌자료와 각종 증언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낸 점이 돋보인다. 특히 전통예능 산실로서의 행원과 백번집의 역할을 통하여 전주 풍류문화의 실체와 추이는 물론 오늘날 전주에 맞는 새로운 풍류문화는 어떻게 되살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주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역사정에 어두운 토론자로서는 토론에 앞서, 송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전주 전통예능의 맥이 어떤 공간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다. 따라서 토론자는 발표문에 대한 전반적인 논지에 공감하면서도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려고 한다.

첫째, 전주 전통예능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질문이다. 발표자는 조선전기에는 사대부의 은일문화가 3가지 유형의 누정과 함께 발달하면서 18세기에는 누정문화가 소멸되어 갔다고 설명한다. 그 배경으로 아마도 조선후기 중인서리의 여향문화와 풍류의 성행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만일 조선후기 중

*한국체육대학교

인서리의 여항문화의 성행에 따라 누정문화가 소멸되는 것이라면, 이를 대신할 전주 사대 부층의 문화적 향유는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한 문제와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둘째, 전북에서 기생조합이 가장 먼저 조성된 곳이 1915년 전주라고 하는데, 타 지역보다 기생조합이 유독 빨랐던 이유가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방의 관기들이 악과 가무에 치중한 반면에 권번의 기생들은 서화를 배웠다고 했는데, 원래 교방에서의 관기들은 아예 서화를 배우지 않았던 것인지가 궁금하다.

셋째, 『전주부사』에 따르면, 1938년말 당시 전주 내 요리점(10곳 : 6곳 일본인, 4곳 한국인)과 음식점(63호, 한국인 45, 일본인 11, 중국인 7)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요리점과 음식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권번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1916년 3월 31일 경무총감부령 제2호에 따르면 예기(藝妓), 작부(酌婦)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예기와 작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넷째, 1943년 행원이 개업하기 전인 전주의 문화예술에 대한 동향에 대한 질문이다. 이미 전주에 효산 이광렬 주도로 1935년 한목회가 결성되어 변관식, 이응로, 이상범, 허건, 김은호, 허백련 등의 화가들이 전주를 찾는 기회가 많아졌고, 또한 일본 유학생 출신 박병수가 동광미술학원을 설립(언제 설립되었는지?)하여 이도영, 이응로, 박두수, 김영창, 진환 등이 동서양화를 가르치고 또한 기생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 관행이었다. 혹시 이외에 전주의 또 다른 문화예술의 동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아울러 1943년 허산옥의 행원 개업 이전에 문화예술계가 다른 요정과 관련성이 어떠했는지, 전주의 문화예술계가 행원 개업 이후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다섯째, 행원에서 백번집까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중요성 뿐 아니라 음식과 관련한 궁금증이다. 전주부지에 따르면, "1938년 당시 전주 토착 구가(舊家)의 조선요리는 종류, 방법, 재료 등에서 호화로움의 극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맛에 있어서는 한국 전 지역을 통틀어도 비할 데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고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색이자 결점이다. 그런데 최근 타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고 또한 일본 요리를 모방하는 경우도 많아져 예전부터 이름 높았던 전주 음식도 점차 그 특색을 잃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요리집으로 출발한 행원과 백번집의 음식문화는 실제로 어떠했는지, 전주의 고유한 음식문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새로운 풍류문화를 위해 평소에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듣고 싶다. 감사드린다.